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753-01

2019년도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용역보고서

2019년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2019년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2019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9. 11. 29

수행기관 국제아동인권센터

본 보고서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연구용역수행기관 결과물을 기초로 한 연구진의 의견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용 중 기록된 이름은 익명처리, 사진은 특수효과 처리
되었습니다.

목 차

| | |
|--|-----|
| 1. 2019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보고 | 1 |
| 2. ‘교육 현장에서의 차별’ 실태 설문조사 결과 | 17 |
| 3. 주제별 모니터링 활동보고서 | 61 |
| 1) 성적으로 인한 차별(5모듬) | 63 |
| • 성적 동백꽃 | 65 |
| 아이캔두잇 | 81 |
| 우리 결정했어요 | 87 |
| 찰찰E | 99 |
| 프리즘키퍼 | 105 |
| 2) 학교 내에서의 차별(4모듬) | 119 |
| • 학생회 여부에 따른 참여권 제한, 교훈/교가/교명 개똥벌레 | 121 |
| • 연령 아이언맨 | 135 |
| • 교칙 또치와 아이들 | 153 |
| • 교복 에버랜드 | 161 |
| 3) 소수자 관련 차별(7모듬) | 175 |
| • 미등록 이주아동 oo조 | 177 |
| • 장애아동 경상도 | 194 |
| 도담도담 | 201 |
| • 학교 밖 청소년 백조 | 213 |
| • 성별 아동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아말1) | 229 |
| 플러스커뮤니티 | 242 |
| • 성적지향 마피아 | 262 |
| 4. 사업결과 발표회 | 281 |
| 5. 부록: ‘교육 현장에서의 차별’ 설문지 | 287 |

1

2019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보고

1. 2019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결과 보고

1) 2019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 사업 소개 및 구성

- 권리주체자인 아동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해 능동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
- 아동: 각 지역에서 교육현장에서의 차별을 직접 모니터링하는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만 10-18세 아동
- 코디네이터: 캠프, 지역별 모니터링 활동에서 아동의 모니터링 활동 지원

2) 사업 목적

- 아동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 과정에 아동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아동의 주체성 증진 및 참여권 실현
- 아동 주도적인 아동권리 모니터링 경험을 통해 아동의 권리옹호역량 강화
- 대한민국의 아동권리 보장 실태에 대한 사회적 이해 확산 도모

3) 사업 목표

- 아동이 스스로 권리 주체자로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해 능동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아동권리옹호활동 역량 증진
- 교육 현장에서 아동이 경험하는 다양한 차별 실태 및 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4) 모니터링단 활동 주제

- 공통주제 : 교육 현장에서의 차별
- 세부주제 : 캠프에서 이슈 분석 등의 절차를 통해 모둠별로 모니터링단이 지역별 모니터링 주제 선정 및 활동 자율 진행

5) 기대 효과

①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및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증대

- 2019년은 유엔 총회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실현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요구되는 때임. 즉, 모든 아동의 모든 권리를 보장하고자 마련된 첫 국제법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내 아동의 권리보장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미흡한 부분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2017년 12월 우리나라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대한 제5·6차 국가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국제규준에 따른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심의과정(UN CRC Reporting and Monitoring Process)이 진행됨. 2019년 도 지난 2월, 국가보고서와 시민사회보고서(NGO보고서), 아동보고서를 토대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질의목록을 발표한 바 있음. 정부는 해당 내용을 토대로 9월 본심의를 대응하였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권고사항에 교육 관련 이슈들이 다수 포함되었음
-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5호는 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모든 권리가 전적으로 향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법 및 정책 개발·이행에서의 모든 과정에서 독립적인 감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이에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역할로 “국가의 이행의무 준수와 그 과정을 독립적으로 감독하는 것, 그리고 아동권리의 완전한 존중을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종합적인 국가정책이 모든 아동의 권리 실현에 초점을 두도록 정부의 노력을 모니터링 및 촉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지향해야 함. 아동이 주체적으로 아동권리 모니터링 과정에 참여하여 권리옹호역량을 증진하는 것은 아동이 아동인권옹호가로서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권리옹호활동의 지속성을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5년 후의 제7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심의대응을 위한 자료 축적에도 기여할 것임
- 이에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및 모니터링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된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주관 하에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문제

에 대한 모니터링에 아동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됨

② 교육현장에서의 아동 비차별 방안 모색을 통한 아동권리 증진 및 사회적 인식 제고

- 교육현장은 아동이 하루 중 가장 긴 일과를 보내는 공간이자 아동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간임. 재학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은 성장 과정에서 교육 시설을 경험하게 되며, 교육을 제공하는 공간은 학교, 학원부터 홈스쿨링을 지원하는 가정까지 매우 폭넓음. 때문에 아동이 경험하는 다양한 권리 침해의 사례의 발생지가 교육 현장인 경우가 빈번함. 또한 이러한 권리 침해는 교육 현장에 종사하는 성인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나, 함께 생활하는 아동 서로 서로에 의한 경우 또는 사회적 분위기 및 인식에 의한 경우까지 권리 침해의 양상이 매우 다양하기에 다각도에서의 조명이 필요함
- 특히 ‘차별’에 의한 권리 침해의 경우 직접적이면서도 가시적인 양상뿐 아니라 무의식적이고도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양상까지 포괄적으로 살펴보아야 더욱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주제임. 예컨대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차별은 학교 폭력 또는 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 유형부터, 교육 환경 조성 시 다문화가정의 아동, 장애아동 등 소수집단 상황에 있는 아동을 미처 고려하지 않는 등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한 채 받아들여지는 차별 유형에까지 매우 다양함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¹⁾ 비차별의 원칙은 인종·종교·문화·장애·성별 등 그 어떠한 이유로도 아동이 차별을 경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여 강조하고 있음. 이에 아동권리교육부터 제도 정비를 통한 지원책 마련까지 아동이 경험하는 차별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병행되고 있으나, 아동권리옹호사업에 참여한 다수의 아동들이 교육현장에서의 차별이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
- 1) 협약의 당사국은 아동이나 그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여부,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아동에게 이를 보장해야 한다.
 - 2)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후견인 또는 다른 가족의 신분과 행동, 의견이나 신념을 이유로 차별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적인 바 있음

- 이렇게 차별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에는 아동과 성인의 시각 차이로 인해 명확하게 문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음. 이에 아동의 시각에서 정확하게 교육 현장을 바라보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실효적인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더욱 요구됨

③ 아동 주도의 아동권리 실태 모니터링을 통한 아동 참여권 실현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서 아동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것을 명시하여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아동권리 실태에 대한 국제심의회가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아동이 아동권리 실태 모니터링 과정 전반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아동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당사자로서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의견은 신중하게 고려 및 반영되어야 함. 아동의 의견을 직접 듣는 것은 아동의 참여권 실현과 직결될 뿐 아니라 아동의 욕구 및 아동의 생활상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임
- 아동의 진정한 참여권 실현을 위해서라면, 아동의 의견이 실제로 얼마나 잘 반영되고 있는지를 아동의 시각으로 그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정부 및 국제사회에 조치를 촉구하는 과정으로 지속하는 것이 필요함. 당사자는 변화의 과정에 직접 참여할 때 그 중요성을 더욱 체감할 수 있기에 이러한 과정은 이후 유엔아동권리협약 심의과정에서의 아동의 지속적인 역할로 이어지며, 이를 통해 중·장기적 아동 참여권 실현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임

6) 연간 수행 내역

| 일정 |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 세부 내용 |
|--------|--|--|
| 3월-4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자료 개발 및 제작 ● 캠프 장소 선정 | |
| 5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및 모집: 5.7(화)-6.2(일) | <p>[홍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초·중·고, 기관 등에 홍보 (각 지역 시도교육청 협력) - 지역별 대학교 유관학과에 홍보 <p>[모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아동인권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http://incrc.org/news)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cp@incrc.org) |
| 6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자 선발: 6.14(금) | <p>[참가자 선발]</p> <p>신청서 검토 후 참가자 선발</p> |
| 7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디네이터 사전교육 - 7.22(월)-7.23(화) [1박 2일] / 서울여성가족재단 ● 발대식 및 캠프 - 7.29(월)-7.31(수) [2박 3일] / 서울여성가족재단 | <p>[아동권리 워크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권리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해 - 활동주제 탐구 <p>[지역별 활동계획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모니터링 세부주제 선정 - 지역별 공통주제&세부주제 모니터링 활동계획 수립 - 공통주제 체크리스트(설문조사) 지역별 배부 |
| 8월-11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모니터링 활동(16개 모듬) | <p>캠프에서 논의한 모니터링 계획을 지역 사회에서 실천 (세부주제 모니터링 활동 예: 인식개선 캠페인, 정책 제안, 교육 등)</p> |
| 11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인권 보고대회 - 11.27(수) 14:00 ~17:00 / 서울, 로얄호텔 ● 사업 평가 및 결산 | <p>지역별 모니터링 활동 내용 공유</p> |

7) 세부 내용

(1) 참여자 모집 및 홍보

| | 아동 | 코디네이터 |
|-------|---|---|
| 대상 | 강원, 경기, 경상, 서울, 인천, 전라, 충청, 제주 지역에 거주 중인 만 10~18세(2001년~2008년생) 아동 지역별 10명 내외 | 강원, 경기, 경상, 서울, 인천, 전라, 충청, 제주 지역 아동과 활동 가능한 20대 지역별 1~2명 |
| 참여 인원 | 71명 | 16명 |
| 모집 기간 | 5월 7일(화) ~ 6월 2일(금) *5월 27일(월)부터 6월 2일(일) 일주일 동안 추가모집 진행 | |
| 신청 방법 | 국제아동인권센터 메일(cp@incrc.org)로 신청서 제출 | |
| 발표 | 6월 14일(금)에 국제아동인권센터 홈페이지(incrc.org)에 공지 | |

아동인권 당사자 코디네이터 모집

-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활동: 권리주체자인 아동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해 능동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입니다.
-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발대식 및 캠프·지역별 모니터링 활동에서 아동의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합니다.

2019 공통주제: 교육현장에서의 차별

| | 일정 및 장소 |
|-------------|-----------------------------------|
| 코디네이터 사전교육 | 7.22(월)~7.23(화) 1박 2일 / 서울 여성가족재단 |
| 발대식 및 캠프 | 7.29(일)~7.31(수) 2박 3일 / 서울 여성가족재단 |
| 지역별 모니터링 활동 | 8월 ~ 11월 |
| 활동보고회 | 11월 / 장소 및 일정 추후 공지 |

- 모집대상: 강원, 경기, 경상, 서울, 인천, 전라, 충청, 제주 지역 아동과 활동 가능한 20대 지역별 1~2명
* 사전교육, 발대식 및 캠프, 지역별 모니터링 활동에 모두 참여 가능해야 함
- 신청방법: 5.26(일) 24:00까지 국제아동인권센터 메일(cp@incrc.org)로 신청서 제출
* 신청서 다운로드: 5/7(화)부터 국제아동인권센터 홈페이지(incrc.org)에서 확인
- 결과발표: 6.14(금)에 국제아동인권센터 홈페이지(incrc.org)에 공지
- 활동혜택: 소정의 활동비 지원 / 활동증명서 발급

국가인권위원회 | 국제아동인권센터
International Child Rights Center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 모집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활동: 권리주체자인 아동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해 능동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입니다.

2019 공통주제: 교육현장에서의 차별

| | 일정 및 장소 |
|-------------|-----------------------------------|
| 발대식 및 캠프 | 7.29(일)~7.31(수) 2박 3일 / 서울 여성가족재단 |
| 지역별 모니터링 활동 | 8월 ~ 11월 |
| 활동보고회 | 11월 / 장소 및 일정 추후 공지 |

- 모집대상: 강원, 경기, 경상, 서울, 인천, 전라, 충청, 제주 지역에 거주 중인 만10~18세(2009년~2001년생 / 초5~고3) 아동 지역별 10명 내외
* 발대식 및 캠프, 지역별 모니터링 활동에 모두 참여 가능해야 함
- 신청방법: 5.26(일) 24:00까지 국제아동인권센터 메일(cp@incrc.org)로 신청서 제출
* 신청서 다운로드: 국제아동인권센터 홈페이지(incrc.org)에서 확인
- 결과발표: 6.14(금)에 국제아동인권센터 홈페이지(incrc.org)에 공지
- 활동혜택: 지역별 모니터링 활동비 지원 / 봉사활동 시간 인증 / 활동증명서 발급

국가인권위원회 | 국제아동인권센터
International Child Rights Center

<홍보 포스터>

(2) 코디네이터 교육

① 개요

| | | | |
|-------|-----------------------------------|-------------------------|---------------------|
| 일시 | 7월 22일(월) 12:30 - 7월 23일(화) 13:00 | | |
| 장소 | 서울여성가족재단 3층 다목적실 | | |
| 참여자 | 2019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코디네이터 16명 | | |
| 주제 | 교육현장에서의 차별 | | |
| 세부 일정 | 시간 | 1일차 | 2일차 |
| | 07:00-08:00 | | 기상 및 세면 |
| | 08:00-09:00 | | 아침식사 |
| | 09:00-10:00 | | 활동주제탐구 (3시간) |
| | 10:00-11:00 | | |
| | 11:00-12:00 | | |
| | 12:00-13:00 | 접수 및 입장(12:30~) | 점심식사 |
| | 13:00-14:00 | 점심식사 | 활동 마무리 및 해산 |
| | 14:00-15:00 | 팀 빌딩 (40분) | |
| | 15:00-16:00 | 오리엔테이션 (30분) | |
| | 16:00-17:00 | 아동권리워크숍 (1시간30분) | |
| | 17:00-18:00 | 아동보호정책가이드 (1시간) | |
| | 18:00-19:00 | 저녁식사 및 짐 이동 | |
| | 19:00-20:00 | 코디네이터의 역할 (2시간) | |
| | 20:00-21:00 | | |
| | 21:00-22:00 | 공지사항 안내 (30분) | |
| | 22:00- | 취침 | |

② 주요 진행 내용

- 팀 빌딩
 - 본인의 별칭을 작성하고 소개 하는 시간 및 코디네이터로 신청하게 된 이유 및 다짐에 대해 공유
 - 모듬 명, 모듬 팻말, 모듬 구호, 사진 공유
 - 풍선 활동
 - 아이스멜팅
- 아동권리 워크숍
 - 한 발 앞으로(Power Walk)
 - 아동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 소개
- 아동보호정책가이드
 - 의미 있고 안전한 아동 참여 환경 조성을 위한 지침에 대한 기본 이해
- 코디네이터의 역할
 - 캠프와 지역별 모듬 활동 일정 중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모듬별 논의 후 공유
- 활동주제 탐구
 - 2019 아동인권 모니터링단의 주제인 '교육현장에서의 차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차별' 및 '교육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차별'과 관련한 활동 진행
 - 공통주제 체크리스트에 점검 및 진행 방향 안내

③ 활동 사진



(3) 발대식 및 캠프

① 개요

| | | | | |
|--------|--------------------------------|--------------------|---------------------------------|--------------------|
| 일시 | 7월 29일(월) 12:30 - 31일(수) 13:00 | | | |
| 장소 | 서울여성가족재단 2층 회의실. 4층 시청각실 일대 | | | |
| 참여자 | ·아동 71명 / ·코디네이터 16명 | | | |
| 세부 일정 | 시간 | 1일차 | 2일차 | 3일차 |
| | 08:00-09:00 | 안전하게 이동해요☺ | 기상 및 아침식사 | 기상 및 아침식사 |
| | 09:00-10:00 | | 1일차 떠올리기 | 2일차 떠올리기 |
| | 10:00-11:00 | | 우리를 지키는 유엔아동권리협약 (60분) | 서로를 존중하는 세상 (60분) |
| | 11:00-12:00 | | 차별이 뭐예요?(90분) | 함께 다짐하고 약속해요 (90분) |
| | 12:00-13:00 | 접수 및 입장(12:30~) | 점심식사 | 점심식사 |
| | 13:00-14:00 | 점심식사 | 우리가 그리는 세상 (1시간) | 안전하게 이동해요☺ |
| | 14:00-15:00 | 캠프를 소개합니다(30분) | 교육현장에서의 차별 (1시간) | |
| | | 우리가 모인 이유(30분) | | |
| | 15:00-16:00 | 팀빌딩: 함께하는 우리 (2시간) | 모니터링이란: 사회를 바꾸기 위한 우리의 시작 (3시간) | |
| | 16:00-17:00 | | | |
| | 17:00-18:00 | 짐 이동 및 저녁식사 | | |
| | 18:00-19:00 | 우리를 소개합니다 (1시간) | 저녁식사 | |
| | 19:00-20:00 | | 우리의 계획(1시간) | |
| | | 공지 안내 | 공지 안내 | |
| 20:00~ | 편안한 휴식 및 꿀잠 | 편안한 휴식 및 꿀잠 | | |

② 주요 진행 내용

[활동 주제 : 교육현장에서의 차별]

- 오리엔테이션
 - 국제아동인권센터 김인숙 소장님의 격려사
- 팀 빌딩
 - 풍선을 지켜라
 - 아이스멜팅
 - 모듬명, 모듬 구호, 모듬팻말 만들기
 - 모듬별 사진 촬영, 공유
- 아동권리 워크숍
 - 한 발 앞으로(Power Walk)
 - ‘아동 권리’ 정의에 대한 의견 작성
 - 아동권리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소개
 - 유엔아동권리협약 조항카드 분류 활동
- 활동주제 탐구
 - ‘차별’ 및 ‘교육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차별’ 관련 활동을 진행
 - 공통주제 체크리스트를 모니터링단과 점검 및 향후 진행 방안 안내
- 모듬활동 계획
 - 지역별 모듬활동 세부 주제와 활동 계획 수립
 - 활동계획 논의

③ 활동 사진



(4) 지역별 모니터링 활동

- 진행 일정 : 8월 - 11월
- 모둠별 활동 주제

| 지역 | 활동주제 | 모둠명 | 참여자 수 | |
|------------|---|------------------------|-------|----|
| | | | 멘토 | 아동 |
| 전체(16개 모둠) | | | 16 | 71 |
| 서울 /경기 | 학업 성적 차별 | 프리즘 키퍼 | 1 | 3 |
| | | 칠칠E | 1 | 4 |
| | | 아이 can do it! | 1 | 6 |
| | 학생학업 성적 임원 여부에 따른 참여권 차별 교훈/교가/교명에서의 차별 | 개똥벌레 | 1 | 6 |
| |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나이에 의한 차별/위계질서 | 아이언맨 | 1 | 5 |
| | 미등록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 ○○(이응이응) | 1 | 5 |
| 인천 | 아동인권을 침해하는 교칙 | 또치와 아이들 | 1 | 3 |
| | 교복에 의한 차별 | 에버랜드 | 1 | 4 |
| 경상 | 교육현장에서의 장애아동 차별 | 도담도담 | 1 | 4 |
| | 학업 성적 차별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 | 우리 결정했어요 | 1 | 5 |
| | 장애아동 차별과 통합교육 (교육환경 결정에 대한 자유) | 경상도 | 1 | 3 |
| 강원 | 성차별 | 아말1(아동의 말도 1리가 있어요) | 1 | 4 |
| 전라 | 성차별 | 플러스 커뮤니티 | 1 | 5 |
| 충청 | 학업 성적 차별 | 동백꽃 | 1 | 4 |
| | 학교 밖 청소년 차별 인식 개선 | 백조 | 1 | 5 |
| 제주 | 성적 지향성 차별 | 마피아 | 1 | 5 |

2

‘교육 현장에서의 차별’ 실태 설문조사 결과

2. '교육 현장에서의 차별' 실태 설문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 (1) 설문 목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아동이 경험하는 교육현장의 차별 실태 파악
- (2) 조사 기간: 2019.7.31. - 2019.9.6.
- (3) 조사 대상: 만7세 - 만18세 / 총 1,890부
※ 총 2,053부 수집 후, 성인 및 불성실한 응답 150부 제외 후
응답 분석에 활용
- (4) 조사 지역: 전국 17개 시·도(강원도, 광주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시, 울
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
남도, 충청북도)
- (5) 조사 방법: 전국에 거주하는 모니터링단 총 87명(코디네이터 포함)이 거주 지
역에서 직접 종이 설문 진행 후 사무국으로 우편 발송 및 취합

(6) 조사 도구 및 세부 문항 구성(총 40문항)

| 세부 영역 | 구분 | 내용 |
|--|--|---|
| 차별 유형별 경험 영역 (총 7문항) | 〈차별유형〉 | |
| | 1)나이 2)성별 3)학업성적 4)외모 5)문화(종교) 6)경제여건 7)성적지향 | |
| 차별 유형별 경험 영역 (총 7문항) | 〈질문 구성〉 | |
| | 1) 경험 빈도 ①거의 매일 ②주 1회 이상 ③월 1회 이상 ④연 1~2회 ⑤해당경험 없음 ⑥목적한 경험 있음 2) 가장 많이 경험한 장소 ① 학교 ② 학원 ③ 가정 ④ 기타() 3) 가장 주된 가해자 ①교사 ②교사 외 학교 근무자(보건선생님, 경찰 등) ③또래친구 ④선후배 ⑤보호자 ⑥주변 성인 ⑦기타() | |
| 교육현장에서의 차별 (총 10문항) | 문항 구성 | 연령으로 인한 참여권 제한 또는 괴롭힘, 성적으로 인한 교육기회 차등 제공, 성별에 따라 다른 처벌, 불시 소지품 검사 등 |
| | 응답 유형 | ①그렇다 ②아니다 ③해당없음 |
| 체계/규정으로 인한 차별 (총 9문항) | 문항 구성 | 급식 관련 설문조사, 보충수업 제공, 학업 성적 공개, 성별에 따른 구분, 휴식 장소 제공, 아동 의견 반영, 차별 구제(상담 등) 등 |
| | 응답 유형 | ①그렇다 ②아니다 ③모름 |
| 차별에 대한 인식 (총 14문항) | 문항 구성 | 차별의 부당함, 성별/재학여부/외모/경제여건/장애 등 아동의 특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 |
| | 응답 유형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아니다 ④매우 아니다 ⑤모름 |
| ※ 40번 문항: 다양한 아동 특성에 대해 학교나 학원 등에서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 예상 - 특성 유형: 장애/다문화/탈북/난민/성적지향/외모/경제 여건/복장/학업성적 - 응답 유형: ①매우 자주 경험할 것이다 ②자주 경험할 것이다 ③종종 경험할 것이다 ④거의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⑤전혀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 | |

2) 설문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 지역별 응답 현황

- 지역별 응답 현황 분석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357명(19.0%), 경기도 290명(15.4%), 서울특별시 268명(14.3%), 경상북도 232명(12.4%), 인천광역시 187명(10.0%), 충청남도 130명(6.9%), 충청북도, 강원도가 각각 87명(4.6%), 대전광역시 72명(3.8%), 전라남도 58명(3.1%), 부산광역시 43명(2.3%), 광주광역시 24명(1.3%), 대구광역시 19명(1.0%), 경상남도 15명(0.8%), 전라북도 5명(0.3%), 세종특별시, 울산광역시가 각각 2명(0.1%) 순으로 나타났다.

| 구분 | 세부 구분 | 응답자 수 | % |
|------|-----------|-------|--------|
| 거주지역 | ① 강원도 | 87 | 4.6% |
| | ② 광주광역시 | 24 | 1.3% |
| | ③ 경기도 | 290 | 15.4% |
| | ④ 경상남도 | 15 | 0.8% |
| | ⑤ 경상북도 | 232 | 12.4% |
| | ⑥ 대구광역시 | 19 | 1.0% |
| | ⑦ 대전광역시 | 72 | 3.8% |
| | ⑧ 부산광역시 | 43 | 2.3% |
| | ⑨ 서울특별시 | 268 | 14.3% |
| | ⑩ 세종특별시 | 2 | 0.1% |
| | ⑪ 울산광역시 | 2 | 0.1% |
| | ⑫ 인천광역시 | 187 | 10.0% |
| | ⑬ 전라남도 | 58 | 3.1% |
| | ⑭ 전라북도 | 5 | 0.3% |
| | ⑮ 제주특별자치도 | 357 | 19.0% |
| | ⑯ 충청남도 | 130 | 6.9% |
| | ⑰ 충청북도 | 87 | 4.6% |
| | 총 | 1,878 | 100.0% |

(2) 조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조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아래 표와 같다.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 여성이 1,362명(72.2%), 남성이 513명(27.2%), 그 외 11명(0.6%)로 나타났다.
- 교급에 따른 분석 결과는 고등학교가 1,107명(58.6%), 중학교가 599명(31.7%), 초등학교가 174명(9.2%), 그 외(대안학교, 무소속) 10명(0.5%) 순으로 나타났다.
- 학교 특성은 남녀공학(혼성학교) 971명(52.6%), 여학교 743명(40.2%), 남학교 133명(7.2%) 순으로 나타났다.

| 구분 | 세부 구분 | 응답자 수 | % |
|----------|--------------|---|--------------|
| 성별 | ① 여성 | 1,362 | 72.2% |
| | ② 남성 | 513 | 27.2% |
| | ③ 그 외 | 11 | 0.6% |
| | 총 | 1,886 | 100.0% |
| 학교급 + 학년 | ① 초등학교 | ① 1학년: 00명(00%) ② 2학년: 06명(3.4%) ③ 3학년: 24명(13.8%) ④ 4학년: 33명(19.0%) ⑤ 5학년: 53명(30.5%) ⑥ 6학년: 58명(33.3%) | 174(9.2%) |
| | ② 중학교 | ① 1학년: 181명(30.2%) ② 2학년: 205명(34.2%) ③ 3학년: 213명(35.6%) | 599(31.7%) |
| | ③ 고등학교 | ① 1학년: 617명(55.7%) ② 2학년: 349명(31.6%) ③ 3학년: 141명(12.7%) | 1,107(58.6%) |
| | ④ 그 외 | ① 대안학교: 9명(90.0%) ② 무소속: 1명(10.0%) | 10(0.5%) |
| | 총 | 1,890 (100%) | |
| 남녀공학 여부 | ① 남녀공학(혼성학교) | 971 | 52.6% |
| | ② 남학교 | 133 | 7.2% |
| | ③ 여학교 | 743 | 40.2% |
| | 총 | 1,847 | 100.0% |

3) 조사 결과 분석

(1) 차별 유형별 경험영역

① 차별 유형에 따른 빈도

- 아동이 경험하는 차별 유형은 '학업성적(50.6%)', '나이(48.5%)', '성별(45.0%)', '외모(30.5%)', '경제여건(12.6%)', '문화(종교)(10.5%)', '성적지향(9.6%)'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 모든 차별 유형에서 연 1~2회의 경험 빈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특히 '나이'와 '학업성적'의 경우 100명 중 3명 이상의 아동이 매일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때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의 경우, 차별을 직접 경험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목격한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응답되었다는 점에서(8.7%) 소수의 아동이 비교적 빈번하게 차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구분 | 거의 매일 | 주 1회 이상 | 월 1회 이상 | 연 1~2회 | 목격 경험은 있음 | 해당 경험 없음 | 총 |
|------------|-------------|-----------|------------|------------|---------------|-----------------|------------------|
| 경제 여건 | 11(0.6%) | 33(1.8%) | 76(4.0%) | 116(6.2%) | 102 (5.4%) | 1540 (82.0%) | 1878 (100.0%) |
| | 236 (12.6%) | | | | | | |
| 나이 | 67(3.6%) | 142(7.5%) | 296(15.7%) | 407(21.7%) | 124 (6.6%) | 845 (44.9%) | 1881 (100.0%) |
| | 912 (48.5%) | | | | | | |
| 문화 (종교) | 3(0.2%) | 23(1.2%) | 64(3.4%) | 107(5.7%) | 121 (6.5%) | 1555 (83.0%) | 1873 (100.0%) |
| | 197 (10.5%) | | | | | | |
| 성별 | 50(2.7%) | 141(7.5%) | 276(14.7%) | 376(20.1%) | 137 (7.3%) | 894 (47.7%) | 1874 (100.0%) |
| | 843 (45.0%) | | | | | | |
| 성적 지향 | 12(0.6%) | 36(1.9%) | 47(2.5%) | 86(4.6%) | 164 (8.7%) | 1536 (81.7%) | 1881 (100.0%) |
| | 181 (9.6%) | | | | | | |
| 외모 | 47(2.5%) | 87(4.6%) | 175(9.3%) | 266(14.1%) | 150 (8.0%) | 1159 (61.5%) | 1884 (100.0%) |
| | 575 (30.5%) | | | | | | |
| 학업 성적 | 65(3.5%) | 181(9.6%) | 318(17.0%) | 384(20.5%) | 116 (6.2%) | 811 (43.2%) | 1875 (100.0%) |
| | 948 (50.6%) | | | | | | |

② 차별 유형에 따른 장소

- 모든 차별 유형에서 학교가 아동이 차별을 가장 빈번히 경험하는 장소(45.6%~65.1%)로 나타났다. 특히, 외모(65.1%)와 성적지향(64.4%) 그리고 경제여건(61.5%)으로 인한 차별이 학교에서 빈번히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편, 학원에서는 주로 학업성적(21.8%)과 경제여건(20.8%)으로 인한 차별이 비교적 많이 나타나고, 가정에서는 주로 나이(27.8%), 성별(26.4%), 학업성적(25.2%)으로 인한 차별이 비교적 자주 나타난다.
- 이때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의 경우, 다른 차별 유형에 비해 거의 대부분 학교, 학원, 가정에서 발생한다(99.6%). 많은 경우 아동의 일상적인 생활 장소가 학교와 학원, 가정에 그친다는 점에서, 아동이 학업 성적에 의한 차별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구분 | 학교 | 학원 | 가정 | 기타 | 총 |
|--------|-------|-------|-------|-------|----------|
| 경제여건 | 198 | 67 | 37 | 20 | 322 |
| | 61.5% | 20.8% | 11.5% | 6.2% | (100.0%) |
| 나이 | 456 | 122 | 274 | 133 | 985 |
| | 46.3% | 12.4% | 27.8% | 13.5% | (100.0%) |
| 문화(종교) | 159 | 41 | 35 | 47 | 282 |
| | 56.4% | 14.5% | 12.4% | 16.7% | (100.0%) |
| 성별 | 394 | 146 | 228 | 96 | 864 |
| | 45.6% | 16.9% | 26.4% | 11.1% | (100.0%) |
| 성적지향 | 210 | 46 | 34 | 36 | 326 |
| | 64.4% | 14.1% | 10.5% | 11.0% | (100.0%) |
| 외모 | 434 | 95 | 90 | 48 | 667 |
| | 65.1% | 14.2% | 13.5% | 7.2% | (100.0%) |
| 학업성적 | 566 | 235 | 271 | 4 | 1076 |
| | 52.6% | 21.8% | 25.2% | 0.4% | (100.0%) |

③ 차별 유형에 따른 가해자

- 또래친구는 외모(61.2%), 성적지향(48.6%), 경제여건(45.9%), 문화(종교)(38.3%) 등 여러 유형에 걸쳐 가해자로서 제일 빈번하게 나타났다. 또한, 나이(36.7%), 성별(35.8%)에서 있어서는 주변 성인이 주된 가해자로 꼽혔다.
- 교사는 주로 학업성적(46.4%) 및 성별(26.4%)에 따라, 보호자는 학업성적(23.3%) 및 나이(14.4%)에 따라 차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외 학교근무자는 모든 영역에서 비교적 적은 비율로 나타났으며(2.0%~6.4%), 선후배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해 나이에 따른 차별(21.4%)이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특히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의 경우, 교사(46.4%)와 보호자(23.3%)가 주된 가해자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아동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성인이라 볼 수 있는 교사와 보호자가 오히려 아동의 학업스트레스를 더한다고 볼 수 있다.

| 구분 | 교사 | 교사 외 학교근무자 | 또래친구 | 선후배 | 보호자 | 주변성인 | 기타 | 총 |
|--------|-------|------------|-------|-------|-------|-------|------|------------------|
| 경제여건 | 46 | 18 | 157 | 12 | 21 | 82 | 6 | 342 (100.0%) |
| | 13.5% | 5.2% | 45.9% | 3.5% | 6.2% | 23.9% | 1.8% | |
| 나이 | 171 | 42 | 37 | 226 | 152 | 388 | 40 | 1056 (100.0%) |
| | 16.2% | 4.0% | 3.5% | 21.4% | 14.4% | 36.7% | 3.8% | |
| 문화(종교) | 35 | 21 | 126 | 15 | 15 | 106 | 11 | 329 (100.0%) |
| | 10.6% | 6.4% | 38.3% | 4.6% | 4.6% | 32.2% | 3.3% | |
| 성별 | 250 | 50 | 118 | 31 | 111 | 339 | 47 | 946 (100.0%) |
| | 26.4% | 5.3% | 12.5% | 3.3% | 11.7% | 35.8% | 5.0% | |
| 성적지향 | 44 | 12 | 170 | 18 | 29 | 67 | 10 | 350 (100.0%) |
| | 12.6% | 3.4% | 48.6% | 5.1% | 8.3% | 19.1% | 2.9% | |
| 외모 | 50 | 15 | 445 | 33 | 47 | 123 | 15 | 728 (100.0%) |
| | 6.9% | 2.0% | 61.2% | 4.5% | 6.4% | 16.9% | 2.1% | |
| 학업성적 | 485 | 57 | 128 | 14 | 244 | 104 | 14 | 1046 (100.0%) |
| | 46.4% | 5.4% | 12.3% | 1.3% | 23.3% | 10.0% | 1.3% | |

(2) 교육현장에서의 차별

① 학생회 참여나 투표자격에서의 연령 제한

08. 우리 학교는 학생회 참여나 투표자격을 연령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예. 전교 회장선거 투표권 5, 6학년만 부여/급식메뉴 선택권 학년별로 제한 등)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없음

- 학생회 참여 또는 투표자격이 연령으로 제한되는 경우에 대해 19.7%의 아동이 '그렇다'고 보고하였다.

| 전체응답 | | 그렇다 | 아니다 | 해당없음 | 총 |
|------|-------|-------|-------|-------|--------|
| 총 | 응답자 수 | 371 | 1269 | 248 | 1888 |
| | % | 19.7% | 67.2% | 13.1% | 100.0% |

- '그렇다'고 응답한 아동은 고등학교(9.7%), 중학교(21.0%), 초등학교(78.6%) 순으로 증가하여, 학교에서의 참여권이 학교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초등학교 연령의 아동이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린 아동은 미숙하다'라는 사회적 편견이 아동의 참여권 실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소속 | | 그렇다 | 아니다 | 해당없음 | 총 |
|------|-------|-------|-------|-------|--------|
| 초등학교 | 응답자 수 | 136 | 26 | 11 | 173 |
| | % | 78.6% | 15.0% | 6.4% | 100.0% |
| 중학교 | 응답자 수 | 126 | 375 | 98 | 599 |
| | % | 21.0% | 62.6% | 16.4% | 100.0% |
| 고등학교 | 응답자 수 | 107 | 861 | 138 | 1106 |
| | % | 9.7% | 77.8% | 12.5% | 100.0% |
| 그 외 | 응답자 수 | 2 | 7 | 1 | 10 |
| | % | 20.0% | 70.0% | 10.0% | 100.0% |

| 구분 | | N | M(SD) | Welch |
|----|-------|-----|-----------|-----------------------------|
| 소속 | 초등학교a | 162 | 1.16(0.4) | 286.740*** a<b, c b<c |
| | 중학교b | 501 | 1.75(0.4) | |
| | 고등학교c | 968 | 1.89(0.3) | |

***p<0.001; **p<0.01; *p<0.05

note. '그 외' 집단은 너무 적어 분석에서 제외됨(정규성 가정 충족x)

(‘해당없음’ 제외)

② 연령으로 인한 괴롭힘

09. 나는 최근 1년 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없음

- 최근 1년 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한 아동은 전체의 5.3%로, 여전히 연령으로 인한 폭력 및 따돌림이 근절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전체응답 | | 그렇다 | 아니다 | 해당없음 | 총 |
|------|-------|------|-------|-------|--------|
| 총 | 응답자 수 | 99 | 1470 | 316 | 1885 |
| | % | 5.3% | 77.9% | 16.8% | 100.0% |

- 연령을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는 비율은 고등학교 연령(3.6%)에 비해 초등학교(5.8%)와 중학교(7.9%) 연령에서 높게 나타났다.

| 소속 | | 그렇다 | 아니다 | 해당없음 | 총 |
|------|-------|-------|-------|-------|--------|
| 초등학교 | 응답자 수 | 10 | 110 | 52 | 172 |
| | % | 5.8% | 64.0% | 30.2% | 100.0% |
| 중학교 | 응답자 수 | 47 | 458 | 93 | 598 |
| | % | 7.9% | 76.5% | 15.6% | 100.0% |
| 고등학교 | 응답자 수 | 40 | 895 | 170 | 1105 |
| | % | 3.6% | 81.0% | 15.4% | 100.0% |
| 그 외 | 응답자 수 | 2 | 7 | 1 | 10 |
| | % | 20.0% | 70.0% | 10.0% | 100.0% |

| 구분 | | N | M(SD) | Welch |
|----|-------|-----|-----------|----------------|
| 소속 | 초등학교a | 120 | 1.92(0.3) | 6.639** b<c |
| | 중학교b | 505 | 1.91(0.3) | |
| | 고등학교c | 935 | 1.96(0.2) | |

***p<0.001; **p<0.01; *p<0.05

note. '그 외' 집단은 너무 적어 분석에서 제외됨(정규성 가정 충족x)

('해당없음' 제외)

③ 성적에 따른 학습환경 및 기숙사/독서실의 차별적 제공 및 배정

10. 우리 학교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만 우수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거나 기숙사/독서실을 차별적으로 제공(배정)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없음

- 전체 아동 중 16.3%는 교내 학습 환경이나 기숙사/독서실 배정에서 성적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 전체응답 | | 그렇다 | 아니다 | 해당없음 | 총 |
|------|-------|-------|-------|-------|--------|
| 총 | 응답자 수 | 306 | 1278 | 297 | 1881 |
| | % | 16.3% | 67.9% | 15.8% | 100.0% |

- ‘그렇다’고 응답한 아동은 초등학교(1.7%), 중학교(6.4%), 고등학교(24.1%) 순으로 증가하여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학습 환경이나 기숙사/독서실 배정에 있어서 성적에 따른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속 | | 그렇다 | 아니다 | 해당없음 | 총 |
|------|-------|-------|-------|-------|--------|
| 초등학교 | 응답자 수 | 3 | 115 | 55 | 173 |
| | % | 1.7% | 66.5% | 31.8% | 100.0% |
| 중학교 | 응답자 수 | 38 | 447 | 112 | 597 |
| | % | 6.4% | 74.8% | 18.8% | 100.0% |
| 고등학교 | 응답자 수 | 265 | 708 | 128 | 1101 |
| | % | 24.1% | 64.3% | 11.6% | 100.0% |
| 그 외 | 응답자 수 | - | 8 | 2 | 10 |
| | % | - | 80.0% | 20.0% | 100.0% |

| 구분 | | N | M(SD) | Welch |
|----|-------|-----|-----------|----------------------------|
| 소속 | 초등학교a | 118 | 1.98(0.2) | 83.725*** a>b, c b>c |
| | 중학교b | 485 | 1.92(0.3) | |
| | 고등학교c | 973 | 1.73(0.4) | |

***p<0.001; **p<0.01; *p<0.05

note. ‘그 외’ 집단은 너무 적어 분석에서 제외됨(정규성 가정 충족x)

(‘해당없음’ 제외)

④ 성적에 따른 교내 대회 참가 및 학급 회장 자격에 대한 차별

11. 우리 학교는 교내 대회참가 가능 여부, 학급반장 자격 가능 여부 등을 성적순으로 결정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없음

- 교내 대회 참가 가능 여부나 학급반장 자격 가능 여부를 성적순으로 정한다고 응답한 아동은 7.3%로, 여전히 성적에 따라 아동의 참여 기회가 제한됨을 볼 수 있다.

| 전체응답 | | 그렇다 | 아니다 | 해당없음 | 총 |
|------|-------|------|-------|-------|--------|
| 총 | 응답자 수 | 137 | 1493 | 252 | 1882 |
| | % | 7.3% | 79.3% | 13.4% | 100.0% |

- 성적순으로 교내 대회 참가 가능 여부나 학급반장 자격 가능 여부를 정한다고 응답한 아동은 초등학교(1.7%)에 비해 중학교(9.3%)와 고등학교(7.1%)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소속 | | 그렇다 | 아니다 | 해당없음 | 총 |
|------|-------|------|-------|-------|--------|
| 초등학교 | 응답자 수 | 3 | 134 | 36 | 173 |
| | % | 1.7% | 77.5% | 20.8% | 100.0% |
| 중학교 | 응답자 수 | 56 | 454 | 86 | 596 |
| | % | 9.4% | 76.2% | 14.4% | 100.0% |
| 고등학교 | 응답자 수 | 78 | 896 | 129 | 1103 |
| | % | 7.1% | 81.2% | 11.7% | 100.0% |
| 그 외 | 응답자 수 | - | 9 | 1 | 10 |
| | % | - | 90.0% | 10.0% | 100.0% |

| 구분 | | N | M(SD) | Welch |
|----|-------|-----|-----------|---------------------|
| 소속 | 초등학교a | 137 | 1.98(0.1) | 12.101*** a>b, c |
| | 중학교b | 510 | 1.89(0.3) | |
| | 고등학교c | 974 | 1.92(0.3) | |

***p<0.001; **p<0.01; *p<0.05

note. '그 외' 집단은 너무 적어 분석에서 제외됨(정규성 가정 충족x)

(‘해당없음’ 제외)

⑤ 성적에 따른 교육의 질 및 수준의 차별적 제공

12. 우리 학교는 성적에 따라 교육의 질과 수준이 다르게 제공되고 있다.
 (예. 차등수업, 성적별 배정교실에 따라 교사의 자격 및 수준차이 등)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없음

- 10명 중 2명 가량의 아동들(20.2%)은 여전히 성적에 따라 차등적인 교육의 질과 수준을 경험한다고 답했다.

| 전체응답 | | 그렇다 | 아니다 | 해당없음 | 총 |
|------|-------|-------|-------|-------|--------|
| 총 | 응답자 수 | 381 | 1257 | 248 | 1886 |
| | % | 20.2% | 66.7% | 13.1% | 100.0% |

- ‘그렇다’고 응답한 아동은 초등학교(2.9%), 중학교(11.5%), 고등학교(27.8%) 순으로 증가하여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성적에 따라 다른 교육의 질과 수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속 | | 그렇다 | 아니다 | 해당없음 | 총 |
|------|-------|-------|-------|-------|--------|
| 초등학교 | 응답자 수 | 5 | 126 | 42 | 173 |
| | % | 2.9% | 72.8% | 24.3% | 100.0% |
| 중학교 | 응답자 수 | 69 | 445 | 85 | 599 |
| | % | 11.5% | 74.3% | 14.2% | 100.0% |
| 고등학교 | 응답자 수 | 307 | 677 | 120 | 1104 |
| | % | 27.8% | 61.3% | 10.9% | 100.0% |
| 그 외 | 응답자 수 | - | 9 | 1 | 10 |
| | % | - | 90.0% | 10.0% | 100.0% |

| 구분 | | N | M(SD) | Welch |
|----|-------|-----|-----------|----------------------------|
| 소속 | 초등학교a | 131 | 1.96(0.2) | 79.630*** a>b, c b>c |
| | 중학교b | 514 | 1.87(0.3) | |
| | 고등학교c | 984 | 1.69(0.5) | |

***p<0.001; **p<0.01; *p<0.05

note. ‘그 외’ 집단은 너무 적어 분석에서 제외됨(정규성 가정 충족x)

(‘해당없음’ 제외)

⑥ 성적에 따른 학생자치조직 및 대표 선출 자격 제한

13. 우리 학교는 학생자치조직(학생회 등)의 대표(전교어린이회장, 학생회장 등) 선출 자격이 학교장이나 교사 추천, 또는 성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없음

- 학생자치조직의 대표 선출 자격에서 학교장 및 교사의 추천이나 성적으로 제한되는 경우에 대해 9.9%의 아동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 전체응답 | | 그렇다 | 아니다 | 해당없음 | 총 |
|------|-------|------|-------|-------|--------|
| 총 | 응답자 수 | 186 | 1435 | 264 | 1885 |
| | % | 9.9% | 76.1% | 14.0% | 100.0% |

- ‘그렇다’고 보고한 아동은 초등학교(4.6%)나 고등학교(8.0%)에 비해 중학교(15.1%)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타 소속 아동에 비해 중학생들이 학생자치조직의 대표 선출 자격에서 차별을 더 많이 겪는 것을 알 수 있다.

| 소속 | | 그렇다 | 아니다 | 해당없음 | 총 |
|------|-------|-------|-------|-------|--------|
| 초등학교 | 응답자 수 | 8 | 125 | 40 | 173 |
| | % | 4.6% | 72.3% | 23.1% | 100.0% |
| 중학교 | 응답자 수 | 90 | 425 | 83 | 598 |
| | % | 15.1% | 71.1% | 13.9% | 100.0% |
| 고등학교 | 응답자 수 | 88 | 876 | 140 | 1104 |
| | % | 8.0% | 79.3% | 12.7% | 100.0% |
| 그 외 | 응답자 수 | - | 9 | 1 | 10 |
| | % | - | 90.0% | 10.0% | 100.0% |

| 구분 | | N | M(SD) | Welch |
|----|-------------------|-----|-----------|----------------------|
| 소속 | 초등학교 ^a | 133 | 1.94(0.2) | 12.084*** b(a, c) |
| | 중학교 ^b | 515 | 1.83(0.4) | |
| | 고등학교 ^c | 964 | 1.91(0.3) | |

***p<0.001; **p<0.01; *p<0.05

note. ‘그 외’ 집단은 너무 적어 분석에서 제외됨(정규성 가정 충족x)

(‘해당없음’ 제외)

⑦ 성별에 따른 스포츠 활동 기회 및 체육시간 참여

14. 우리 학교는 성별에 따라 스포츠 활동 기회나 체육시간 참여 정도가 달라진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없음

- 전체 아동 중 12.5%에 해당하는 아동들은 여전히 성별에 따라 스포츠 활동 기회나 체육시간 참여 정도에서 차별이 발생한다고 답하였다.

| 전체응답 | | 그렇다 | 아니다 | 해당없음 | 총 |
|------|-------|-------|-------|-------|--------|
| 총 | 응답자 수 | 236 | 1208 | 442 | 1886 |
| | % | 12.5% | 64.1% | 23.4% | 100.0% |

- ‘그렇다’고 응답한 아동은 초등학교(13.9%), 고등학교(7.1%)에 비해 중학교(22.4%)가 비교적 더 많이 나타나 중학생들이 타 소속 아동보다 스포츠 활동 기회나 체육시간 참여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소속 | | 그렇다 | 아니다 | 해당없음 | 총 |
|------|-------|-------|-------|-------|--------|
| 초등학교 | 응답자 수 | 24 | 117 | 32 | 173 |
| | % | 13.9% | 67.6% | 18.5% | 100.0% |
| 중학교 | 응답자 수 | 134 | 376 | 87 | 597 |
| | % | 22.4% | 63.0% | 14.6% | 100.0% |
| 고등학교 | 응답자 수 | 78 | 707 | 321 | 1106 |
| | % | 7.1% | 63.9% | 29.0% | 100.0% |
| 그 외 | 응답자 수 | - | 8 | 2 | 10 |
| | % | - | 80.0% | 20.0% | 100.0% |

| 구분 | | N | M(SD) | Welch |
|----|-------|-----|-----------|----------------------|
| 소속 | 초등학교a | 141 | 1.83(0.4) | 27.429*** b(a, c) |
| | 중학교b | 510 | 1.74(0.4) | |
| | 고등학교c | 785 | 1.90(0.3) | |

***p<0.001; **p<0.01; *p<0.05

note. ‘그 외’ 집단은 너무 적은 분석에서 제외됨(정규성 가정 충족x)

(‘해당없음’ 제외)

⑧ 교내 연애 시, 성별에 따른 다른 처벌

15. 우리 학교는 연애를 한 경우 여학생과 남학생이 서로 다르게 처벌받는다.
 (예. 여학생 자퇴강요, 남학생 근신 또는 징계없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없음

- 연애를 한 경우, 성별에 따라 다르게 처벌받는 경우에 대해 3.0%의 아동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 전체응답 | | 그렇다 | 아니다 | 해당없음 | 총 |
|------|-------|------|-------|-------|--------|
| 총 | 응답자 수 | 56 | 1232 | 598 | 1886 |
| | % | 3.0% | 65.3% | 31.7% | 100.0% |

- ‘그렇다’고 응답한 아동은 초등학교(2.3%)와 고등학교(1.7%)에 비해 중학교(5.5%)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 중학생들이 타 소속 아동들에 비해 교내 연애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다른 처벌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소속 | | 그렇다 | 아니다 | 해당없음 | 총 |
|------|-------|------|-------|-------|--------|
| 초등학교 | 응답자 수 | 4 | 115 | 53 | 172 |
| | % | 2.3% | 66.9% | 30.8% | 100.0% |
| 중학교 | 응답자 수 | 33 | 434 | 131 | 598 |
| | % | 5.5% | 72.6% | 21.9% | 100.0% |
| 고등학교 | 응답자 수 | 19 | 674 | 413 | 1106 |
| | % | 1.7% | 61.0% | 37.3% | 100.0% |
| 그 외 | 응답자 수 | - | 9 | 1 | 10 |
| | % | - | 90.0% | 10.0% | 100.0% |

| 구분 | | N | M(SD) | Welch |
|----|-------|-----|-----------|----------------|
| 소속 | 초등학교a | 119 | 1.97(0.2) | 5.216** b<c |
| | 중학교b | 467 | 1.93(0.3) | |
| | 고등학교c | 693 | 1.97(0.2) | |

***p<0.001; **p<0.01; *p<0.05

note. ‘그 외’ 집단은 너무 적어 분석에서 제외됨(정규성 가정 충족x)

(‘해당없음’ 제외)

⑨ 외모 및 규정 준수에 따른 통제 정도의 차이

16. 우리 학교는 지정된 복장, 두발 등의 규정을 어기거나 화장을 하면 ‘학생의 본분에 맞지 않는 행동’, ‘불량스럽다’고 생각하고 더 엄하게 통제하는 편이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없음

- 교내 지정된 복장, 두발 등의 규정을 어기거나 화장을 하면 ‘학생의 본분에 맞지 않는 행동’, ‘불량스럽다’고 생각하고 더 엄하게 통제하는지에 대해 41.9%의 아동이 ‘그렇다’고 보고하여 여전히 교내 지정된 복장, 두발 등의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 전체응답 | | 그렇다 | 아니다 | 해당없음 | 총 |
|------|-------|-------|-------|-------|--------|
| 총 | 응답자 수 | 788 | 897 | 199 | 1884 |
| | % | 41.8% | 47.6% | 10.6% | 100.0% |

- ‘그렇다’고 응답한 아동은 초등학교(11.6%)에 비해 중학교(47.7%) 및 고등학교(43.7%)에서 꽤 많이 나타나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이 복장, 두발, 화장 등에 있어서 더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소속 | | 그렇다 | 아니다 | 해당없음 | 총 |
|------|-------|-------|-------|-------|--------|
| 초등학교 | 응답자 수 | 20 | 107 | 45 | 172 |
| | % | 11.6% | 62.2% | 26.2% | 100.0% |
| 중학교 | 응답자 수 | 286 | 251 | 62 | 599 |
| | % | 47.7% | 41.9% | 10.4% | 100.0% |
| 고등학교 | 응답자 수 | 482 | 530 | 91 | 1103 |
| | % | 43.7% | 48.0% | 8.3% | 100.0% |
| 그 외 | 응답자 수 | - | 9 | 1 | 10 |
| | % | - | 90.0% | 10.0% | 100.0% |

| 구분 | | N | M(SD) | Welch |
|----|-------|------|-----------|---------------------|
| 소속 | 초등학교a | 127 | 1.84(0.4) | 49.283*** a>b, c |
| | 중학교b | 537 | 1.47(0.5) | |
| | 고등학교c | 1012 | 1.52(0.5) | |

***p<0.001; **p<0.01; *p<0.05

note. ‘그 외’ 집단은 너무 적어 분석에서 제외됨(정규성 가정 충족x)

(‘해당없음’ 제외)

⑩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지품 검사

17. 나는 최근 1년 간 교사가 특정 학생만을 대상으로 예고없이 소지품 검사 등을 하는 것을 보거나 경험한 적이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해당없음

- 최근 1년 간 교사가 특정 학생만을 대상으로 예고 없이 소지품 검사 등을 하는 것을 보거나 경험한 아동은 전체의 11.9%로, 여전히 교사가 특정 학생의 소지품을 불시에 검사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 전체응답 | | 그렇다 | 아니다 | 해당없음 | 총 |
|------|-------|-------|-------|-------|--------|
| 총 | 응답자 수 | 225 | 1393 | 270 | 1888 |
| | % | 11.9% | 73.8% | 14.3% | 100.0% |

- ‘그렇다’고 응답한 아동은 초등학교(5.9%)와 고등학교(10.2%)에 비해 중학교(17.1%)에서 비교적 많이 나타났다.

| 소속 | | 그렇다 | 아니다 | 해당없음 | 총 |
|------|-------|-------|-------|-------|--------|
| 초등학교 | 응답자 수 | 9 | 118 | 46 | 173 |
| | % | 5.2% | 68.2% | 26.6% | 100.0% |
| 중학교 | 응답자 수 | 103 | 416 | 80 | 599 |
| | % | 17.2% | 69.4% | 13.4% | 100.0% |
| 고등학교 | 응답자 수 | 113 | 850 | 143 | 1106 |
| | % | 10.2% | 76.9% | 12.9% | 100.0% |
| 그 외 | 응답자 수 | - | 9 | 1 | 10 |
| | % | - | 90.0% | 10.0% | 100.0% |

| 구분 | | N | M(SD) | Welch |
|----|-------------------|-----|-----------|----------------------|
| 소속 | 초등학교 ^a | 127 | 1.93(0.3) | 11.697*** b(a, c) |
| | 중학교 ^b | 519 | 1.80(0.4) | |
| | 고등학교 ^c | 963 | 1.88(0.3) | |

***p<0.001; **p<0.01; *p<0.05

note. ‘그 외’ 집단은 너무 적어 분석에서 제외됨(정규성 가정 충족x)

(‘해당없음’ 제외)

(3) 체계/규정으로 인한 차별

① 급식 관련 설문조사

18. 우리 학교는 급식 관련 설문조사에서 다음 사항을 물어보고 조사한다.

- ① 알리지 유무 및 원인 ② 그 외 건강상의 이유 ③ 종교 및 문화 ④ 기타
 ⑤ 아니다 ⑥ 모름

- 해당 문항은 중복응답으로 진행되었으며, 응답 중 약 24%가 학교에서 급식 관련 설문조사에서 ‘알리지 유무 및 원인’, ‘그 외 건강상의 이유’, ‘종교 및 문화’, ‘기타’ 의 사항을 물어보지 않거나 모른다고 답하였다.
- 급식 관련 설문조사에서 제일 많이 언급된 사항은 ‘알리지 유무 및 원인 (51.5%)’, ‘그 외 건강상의 이유(18.4%)’, ‘종교 및 문화(2.7%)’, ‘기타(3.4%)’ 순이었다.

| 전체응답 | | 그렇다 | | | | 아니다 | 모름 | 총 |
|------|-------|-------------|-------------|---------|------|------|-------|--------|
| | | 알리지 유무 및 원인 | 그 외 건강상의 이유 | 종교 및 문화 | 기타 | | | |
| 총 | 응답자 수 | 1188 | 424 | 62 | 80 | 95 | 458 | 2307 |
| | % | 51.5% | 18.4% | 2.7% | 3.4% | 4.1% | 19.9% | 100.0% |

| 소속 | | 그렇다 | | | | 아니다 | 모름 | 총 |
|------|-------|-------------|-------------|---------|------|------|-------|--------|
| | | 알리지 유무 및 원인 | 그 외 건강상의 이유 | 종교 및 문화 | 기타 | | | |
| 초등학교 | 응답자 수 | 85 | 37 | 5 | 13 | 9 | 60 | 209 |
| | % | 40.7% | 17.7% | 2.4% | 6.2% | 4.3% | 28.7% | 100.0% |
| 중학교 | 응답자 수 | 371 | 106 | 18 | 26 | 31 | 141 | 693 |
| | % | 53.5% | 15.3% | 2.6% | 3.8% | 4.5% | 20.3% | 100.0% |
| 고등학교 | 응답자 수 | 725 | 280 | 37 | 41 | 54 | 255 | 1392 |
| | % | 52.1% | 20.1% | 2.7% | 2.9% | 3.9% | 18.3% | 100.0% |
| 그 외 | 응답자 수 | 7 | 1 | 2 | - | 1 | 2 | 13 |
| | % | 53.8% | 7.7% | 15.4% | - | 7.7% | 15.4% | 100.0% |

② 학생 선수에 대한 보충 수업 제공

19. 우리 학교는 학생 선수가 대회나 훈련으로 인해 수업을 빠질 경우, 보충수업을 제공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름

- 약 절반 정도의 아동들(50.5%)이 학교에서 대회나 훈련으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 보충수업을 제공하는지의 여부를 모른다고 보고했으며, ‘아니다’라고 대답한 학생은 43.0%로 나타나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대회나 훈련으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 보충수업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응답 | | 그렇다 | 아니다 | 모름 | 총 |
|------|-------|------|-------|-------|--------|
| 총 | 응답자 수 | 123 | 810 | 950 | 1883 |
| | % | 6.5% | 43.0% | 50.5% | 100.0% |

| 소속 | | 그렇다 | 아니다 | 모름 | 총 |
|------|-------|------|-------|-------|--------|
| 초등학교 | 응답자 수 | 8 | 91 | 73 | 172 |
| | % | 4.7% | 52.9% | 42.4% | 100.0% |
| 중학교 | 응답자 수 | 55 | 243 | 300 | 598 |
| | % | 9.2% | 40.6% | 50.2% | 100.0% |
| 고등학교 | 응답자 수 | 60 | 472 | 571 | 1103 |
| | % | 5.4% | 42.8% | 51.8% | 100.0% |
| 그 외 | 응답자 수 | - | 4 | 6 | 10 |
| | % | - | 40.0% | 60.0% | 100.0% |

| 구분 | | N | M(SD) | Welch |
|----|-------------------|-----|-----------|--------------------|
| 소속 | 초등학교 ^a | 99 | 1.92(0.3) | 5.171** b(a, c) |
| | 중학교 ^b | 298 | 1.82(0.4) | |
| | 고등학교 ^c | 532 | 1.89(0.3) | |

***p<0.001; **p<0.01; *p<0.05

note. ‘그 외’ 집단은 너무 적어 분석에서 제외됨(정규성 가정 충족x)

(‘모름’ 제외)

③ 시험 성적 공개

20. 우리 학교에서는 다른 사람도 내 시험성적을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알려주거나 게시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름

- 학교에서 시험 성적 공개에 대해 15.2%의 아동은 ‘그렇다’고 응답하여 여전히 학교에서 성적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응답 | | 그렇다 | 아니다 | 모름 | 총 |
|------|-------|-------|-------|-------|--------|
| 총 | 응답자 수 | 286 | 1354 | 245 | 1885 |
| | % | 15.2% | 71.8% | 13.0% | 100.0% |

- 초등학교(2.3%)에 비해 중학교(18.5%)와 고등학교(15.4%)에서 성적 공개가 더 만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소속 | | 그렇다 | 아니다 | 모름 | 총 |
|------|-------|-------|-------|-------|--------|
| 초등학교 | 응답자 수 | 4 | 142 | 26 | 172 |
| | % | 2.3% | 82.6% | 15.1% | 100.0% |
| 중학교 | 응답자 수 | 111 | 385 | 103 | 599 |
| | % | 18.5% | 64.3% | 17.2% | 100.0% |
| 고등학교 | 응답자 수 | 170 | 820 | 114 | 1104 |
| | % | 15.4% | 74.3% | 10.3% | 100.0% |
| 그 외 | 응답자 수 | 1 | 7 | 2 | 10 |
| | % | 10.0% | 70.0% | 20.0% | 100.0% |

| 구분 | | N | M(SD) | Welch |
|----|-------------------|-----|-----------|---------------------|
| 소속 | 초등학교 ^a | 146 | 1.97(0.2) | 47.174*** a)b, c |
| | 중학교 ^b | 496 | 1.78(0.4) | |
| | 고등학교 ^c | 990 | 1.83(0.4) | |

***p<0.001; **p<0.01; *p<0.05

note. ‘그 외’ 집단은 너무 적어 분석에서 제외됨(정규성 가정 충족x)

(‘모름’ 제외)

④ 성별에 따른 복장 규정

21. 우리 학교는 성별에 따라 정해진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예: 여학생은 반드시 치마교복을 입어야 한다 등)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름

- 성별에 따른 복장 착용에 대해 13.3%의 아동들은 ‘그렇다’고 보고하였으며,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욱 그렇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응답 | | 그렇다 | 아니다 | 모름 | 총 |
|------|-------|-------|-------|-------|--------|
| 총 | 응답자 수 | 250 | 1415 | 221 | 1886 |
| | % | 13.3% | 75.0% | 11.7% | 100.0% |

- 초등학교(2.4%)에 비해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13.2%)와 중학교(16.9%)에서 성별에 따라 복장 착용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속 | | 그렇다 | 아니다 | 모름 | 총 |
|------|-------|-------|-------|-------|--------|
| 초등학교 | 응답자 수 | 3 | 159 | 11 | 173 |
| | % | 1.7% | 91.9% | 6.4 | 100.0% |
| 중학교 | 응답자 수 | 101 | 404 | 92 | 597 |
| | % | 16.9% | 67.7% | 15.4% | 100.0% |
| 고등학교 | 응답자 수 | 146 | 843 | 117 | 1106 |
| | % | 13.2% | 76.2% | 10.6% | 100.0% |
| 그 외 | 응답자 수 | - | 9 | 1 | 10 |
| | % | - | 90.0% | 10.0% | 100.0% |

| 구분 | | N | M(SD) | Welch |
|----|-------------------|-----|-----------|----------------------------|
| 소속 | 초등학교 ^a | 162 | 1.98(0.1) | 53.983*** a>b, c b<c |
| | 중학교 ^b | 505 | 1.80(0.4) | |
| | 고등학교 ^c | 989 | 1.85(0.4) | |

***p<0.001; **p<0.01; *p<0.05

note. ‘그 외’ 집단은 너무 적어 분석에서 제외됨(정규성 가정 충족x) (‘모름’ 제외)

| 구분 | | N | M(SD) | t |
|----|----|------|-----------|----------|
| 성별 | 여성 | 1241 | 1.87(0.3) | 4.072*** |
| | 남성 | 411 | 1.78(0.4) | |

***p<0.001; **p<0.01; *p<0.05

(‘모름’ 제외)

⑤ 성별에 따른 출석 번호 부여

22.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출석 번호를 정할 때 성별에 따라 구분을 두고 있다.
 (예: 남학생 1번부터 시작, 여학생 21번부터 시작 등)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름

- 성별에 따른 출석번호 구분에 대해 17.4%의 아동들은 여전히 ‘그렇다’고 보고했으며,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욱 그러하다고 응답했다.

| 전체응답 | | 그렇다 | 아니다 | 모름 | 총 |
|------|-------|-------|-------|-------|--------|
| 총 | 응답자 수 | 328 | 1282 | 273 | 1883 |
| | % | 17.4% | 68.1% | 14.5% | 100.0% |

- ‘그렇다’고 응답한 아동은 고등학교(8.5%), 중학교(23.7%), 초등학교(53.5%) 순으로 증가하여 연령이 어릴수록 성별에 따른 출석 번호 구분이 더 빈번한 것을 알 수 있다.

| 소속 | | 그렇다 | 아니다 | 모름 | 총 |
|------|-------|-------|-------|-------|--------|
| 초등학교 | 응답자 수 | 92 | 68 | 12 | 172 |
| | % | 53.5% | 39.5% | 7.0% | 100.0% |
| 중학교 | 응답자 수 | 142 | 379 | 77 | 598 |
| | % | 23.7% | 63.4% | 12.9% | 100.0% |
| 고등학교 | 응답자 수 | 94 | 828 | 181 | 1103 |
| | % | 8.5% | 75.1% | 16.4% | 100.0% |
| 그 외 | 응답자 수 | - | 7 | 3 | 10 |
| | % | - | 70.0% | 30.0% | 100.0% |

| 구분 | | N | M(SD) | Welch |
|----|-------------------|-----|-----------|--------------------|
| 소속 | 초등학교 ^a | 160 | 1.43(0.5) | 89.419*** a<b<c |
| | 중학교 ^b | 521 | 1.73(0.4) | |
| | 고등학교 ^c | 922 | 1.90(0.3) | |

***p<0.001; **p<0.01; *p<0.05

note. ‘그 외’ 집단은 너무 적어 분석에서 제외됨(정규성 가정 충족x)

(‘모름’ 제외)

| 구분 | | N | M(SD) | t |
|----|----|------|-----------|----------|
| 성별 | 여성 | 1173 | 1.82(0.4) | 3.876*** |
| | 남성 | 424 | 1.73(0.4) | |

***p<0.001; **p<0.01; *p<0.05

(‘모름’ 제외)

⑥ 생리 결석 관련 조치

23.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 또는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학업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는 조치가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름

- 꽤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생리로 인한 학업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는 조치가 없거나(34.4%) 그 여부를 모른다고 답했으며(43.4%), 여성 당사자보다 남성이 그러한 조치가 없다고 답하였다.

| 전체응답 | | 그렇다 | 아니다 | 모름 | 총 |
|------|-------|-------|-------|-------|--------|
| 총 | 응답자 수 | 418 | 644 | 820 | 1882 |
| | % | 22.2% | 34.2% | 43.6% | 100.0% |

- 초등학생의 대부분은 생리로 인해 학업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는 조치가 없거나(21.5%) 그 여부를 모른다(71.5%)고 답하였다. 한편, 초등학교(7.0%)에 비해 중학교(20.1%)와 고등학교(25.7%)에선 생리로 인한 학업 불이익 발생 시 돕는 조치가 있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지만, 여전히 많은 아동들이 이러한 조치가 없거나 그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나타났다.

| 소속 | | 그렇다 | 아니다 | 모름 | 총 |
|------|-------|-------|-------|-------|--------|
| 초등학교 | 응답자 수 | 12 | 37 | 123 | 172 |
| | % | 7.0% | 21.5% | 71.5% | 100.0% |
| 중학교 | 응답자 수 | 120 | 181 | 296 | 597 |
| | % | 20.1% | 30.3% | 49.6% | 100.0% |
| 고등학교 | 응답자 수 | 284 | 423 | 396 | 1103 |
| | % | 25.7% | 38.4% | 35.9% | 100.0% |
| 그 외 | 응답자 수 | 2 | 3 | 5 | 10 |
| | % | 20.0% | 30.0% | 50.0% | 100.0% |

| 구분 | | N | M(SD) | t |
|----|----|-----|-----------|----------|
| 성별 | 여성 | 869 | 1.59(0.5) | -2.640** |
| | 남성 | 186 | 1.69(0.5) | |

***p<0.001; **p<0.01; *p<0.05 (‘모름’ 제외)

| 구분 | | N | M(SD) | Welch |
|----|-------|-----|-----------|-------|
| 소속 | 초등학교a | 49 | 1.76(0.4) | 2.959 |
| | 중학교b | 301 | 1.60(0.5) | |
| | 고등학교c | 707 | 1.60(0.5) | |

***p<0.001; **p<0.01; *p<0.05

note. ‘그 외’ 집단은 너무 적어 분석에서 제외됨(정규성 가정 충족x) (‘모름’ 제외)

⑦ 적절한 휴식 공간 마련

24. 우리 학교는 학생이 생리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휴식이 필요할 때 쉴 수 있는 적절한 장소가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름

- 생리나 건강상의 이유로 휴식이 필요할 때 쉴 수 있는 적절한 장소가 있는지에 대해 17.6%의 아동들은 ‘아니다’, 24.9%의 아동들은 ‘모름’이라고 답하였다. 또한, 남성이 여성에 비해 교내 적절한 휴식 장소가 없다고 답하였다.

| 전체응답 | | 그렇다 | 아니다 | 모름 | 총 |
|------|-------|-------|-------|-------|--------|
| 총 | 응답자 수 | 1084 | 332 | 469 | 1885 |
| | % | 57.5% | 17.6% | 24.9% | 100.0% |

- 생리나 건강상의 이유로 휴식이 필요할 때 쉴 수 있는 적절한 장소의 여부에 있어서 ‘아니다’와 ‘모름’으로 답한 비율은 고등학교(38.6%), 중학교(45.1%), 초등학교(56.1%) 순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비교적 연령이 적을수록 생리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휴식이 필요할 때 교내에 쉴 수 있는 적절한 장소를 보장받지 못함을 보여준다.

| 소속 | | 그렇다 | 아니다 | 모름 | 총 |
|------|-------|-------|-------|-------|--------|
| 초등학교 | 응답자 수 | 75 | 32 | 64 | 171 |
| | % | 43.9% | 18.7% | 37.4% | 100.0% |
| 중학교 | 응답자 수 | 329 | 96 | 174 | 599 |
| | % | 54.9% | 16.1% | 29.0% | 100.0% |
| 고등학교 | 응답자 수 | 678 | 203 | 224 | 1105 |
| | % | 61.4% | 18.3% | 20.3% | 100.0% |
| 그 외 | 응답자 수 | 2 | 1 | 7 | 10 |
| | % | 20.0% | 10.0% | 70.0% | 100.0% |

| 구분 | | N | M(SD) | Welch |
|----|-------|-----|-----------|-------|
| 소속 | 초등학교a | 107 | 1.30(0.5) | 1.178 |
| | 중학교b | 425 | 1.23(0.4) | |
| | 고등학교c | 881 | 1.23(0.4) | |

***p<0.001; **p<0.01; *p<0.05

note. '그 외' 집단은 너무 적어 분석에서 제외됨(정규성 가정 충족x)

(‘모름’ 제외)

| 구분 | | N | M(SD) | t |
|----|----|------|-----------|-----------|
| 성별 | 여성 | 1101 | 1.21(0.4) | -3.904*** |
| | 남성 | 303 | 1.32(0.5) | |

***p<0.001; **p<0.01; *p<0.05

(‘모름’ 제외)

⑧ 학교 내 학생 의견 반영

25. 우리 학교 내에 중요사항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결정되고 운영된다.
(예: 학예회, 예술제, 축제 등의 학교주요행사, 시험시기, 학칙 제개정 등)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름

- 교내 중요사항이 결정되고 운영될 때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지에 대해 절반 가량의 아동들이 '아니다(25.7%)'나 '모름(27.9%)'이라고 답하였다.

| 전체응답 | | 그렇다 | 아니다 | 모름 | 총 |
|------|-------|-------|-------|-------|--------|
| 총 | 응답자 수 | 873 | 482 | 525 | 1880 |
| | % | 46.4% | 25.7% | 27.9% | 100.0% |

-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고등학교(47.6%), 중학교(45.1%), 초등학교(41.9%) 순으로 감소하여 연령이 어릴수록 교내 중요사항에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속 | | 그렇다 | 아니다 | 모름 | 총 |
|------|-------|-------|-------|-------|--------|
| 초등학교 | 응답자 수 | 72 | 33 | 67 | 172 |
| | % | 41.9% | 19.1% | 39.0% | 100.0% |
| 중학교 | 응답자 수 | 268 | 144 | 182 | 594 |
| | % | 45.1% | 24.3% | 30.6% | 100.0% |
| 고등학교 | 응답자 수 | 526 | 305 | 273 | 1104 |
| | % | 47.6% | 27.7% | 24.7% | 100.0% |
| 그 외 | 응답자 수 | 7 | - | 3 | 10 |
| | % | 70.0% | - | 30.0% | 100.0% |

| 구분 | | N | M(SD) | Welch |
|----|-------------------|-----|-----------|-------|
| 소속 | 초등학교 ^a | 105 | 1.31(0.5) | 0.669 |
| | 중학교 ^b | 412 | 1.35(0.5) | |
| | 고등학교 ^c | 831 | 1.37(0.5) | |

***p<0.001; **p<0.01; *p<0.05

note. '그 외' 집단은 너무 적어 분석에서 제외됨(정규성 가정 충족x)

('모름' 제외)

⑨ 차별 경험 시 구체 요청(상담 등)

26. 우리 학교에는 차별을 경험한 경우 이 문제를 상담하거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름

- 절반가량의 아동들은 여전히 차별을 경험한 경우 학교에서 이에 대해 상담하거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17.2%) 그 여부를 알지 못한다(32.3%)고 답했다.

| 전체응답 | | 그렇다 | 아니다 | 모름 | 총 |
|------|-------|-------|-------|-------|--------|
| 총 | 응답자 수 | 952 | 324 | 610 | 1886 |
| | % | 50.5% | 17.2% | 32.3% | 100.0% |

- ‘그렇다’고 응답한 아동들은 초등학교(64.5%), 중학교(51.3%), 고등학교(47.6%) 순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차별을 경험한 경우 학교에서 이에 대해 상담하거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 소속 | | 그렇다 | 아니다 | 모름 | 총 |
|------|-------|-------|-------|-------|--------|
| 초등학교 | 응답자 수 | 111 | 21 | 40 | 172 |
| | % | 64.5% | 12.2% | 23.3% | 100.0% |
| 중학교 | 응답자 수 | 307 | 87 | 204 | 598 |
| | % | 51.3% | 14.6% | 34.1% | 100.0% |
| 고등학교 | 응답자 수 | 526 | 215 | 365 | 1106 |
| | % | 47.6% | 19.4% | 33.0% | 100.0% |
| 그 외 | 응답자 수 | 8 | 1 | 1 | 10 |
| | % | 80.0% | 10.0% | 10.0% | 100.0% |

| 구분 | | N | M(SD) | Welch |
|----|-------|-----|-----------|--------------------|
| 소속 | 초등학교a | 132 | 1.16(0.4) | 7.892*** a, b<c |
| | 중학교b | 394 | 1.22(0.4) | |
| | 고등학교c | 741 | 1.29(0.5) | |

***p<0.001; **p<0.01; *p<0.05

note. ‘그 외’ 집단은 너무 적어 분석에서 제외됨(정규성 가정 충족x)

(‘모름’ 제외)

⑨ 차별 경험 시 구체 요청(상담 등) - 추가 문항

26.1. 상담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 ① 교사 ② 학교 안/밖 관계자(학교상담사, 사회복지사, 학원 선생님 등) ③ 선/후배
④ 또래친구 ⑤ 부모 등 보호자 ⑥ 기타()

- 해당 문항은 중복응답으로 구성되었으며, ‘기타’에는 이전 26번 문항에 ‘모름’으로 선택하고 해당 문항에서 ‘모름’으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 상담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는 교사(30.4%)와 학교 안/밖 관계자(27.5%)가 제일 많이 거론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 등 보호자(18.2%), 또래친구(16.4%), 기타(4.3%), 선/후배(3.2%) 순으로 나타났다.

| 전체 응답 | | 교사 | 학교 안/밖 관계자 | 선/후배 | 또래친구 | 부모 등 보호자 | 기타 | 총 |
|-------|-------|-------|---------------|------|-------|-------------|------|--------|
| 총 | 응답자 수 | 604 | 545 | 64 | 326 | 360 | 86 | 1985 |
| | % | 30.4% | 27.5% | 3.2% | 16.4% | 18.2% | 4.3% | 100.0% |

| 소속 | | 교사 | 학교 안/밖 관계자 | 선/후배 | 또래친구 | 부모 등 보호자 | 기타 | 총 |
|------|-------|-------|---------------|-------|-------|-------------|------|--------|
| 초등학교 | 응답자 수 | 56 | 59 | 1 | 20 | 41 | 18 | 195 |
| | % | 28.7% | 30.3% | 0.5% | 10.3% | 21.0% | 9.2% | 100.0% |
| 중학교 | 응답자 수 | 179 | 190 | 23 | 90 | 114 | 36 | 632 |
| | % | 28.3% | 30.1% | 3.6% | 14.3% | 18.0% | 5.7% | 100.0% |
| 고등학교 | 응답자 수 | 364 | 291 | 38 | 214 | 203 | 32 | 1142 |
| | % | 31.9% | 25.5% | 3.3% | 18.7% | 17.8% | 2.8% | 100.0% |
| 그 외 | 응답자 수 | 5 | 5 | 2 | 2 | 2 | - | 16 |
| | % | 31.3% | 31.2% | 12.5% | 12.5% | 12.5% | - | 100.0% |

(4) 차별에 대한 인식

① 문항별 응답 현황

- 대부분의 아동들이 교내 차별이 정당하지 않다(93.4%)고 응답하였다.

| 문항 | 응답 | | | | | |
|---|-----------------|----------------|----------------|-----------------|----------------|------------------|
|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아니다 | 매우 아니다 | 모름 | 총 |
| 27. 나는 교내에서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 또는 누군가가 차별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1279 (68.0%) | 479 (25.4%) | 33 (1.8%) | 23 (1.2%) | 67 (3.6%) | 1881 (100.0%) |
| 28. 나는 후배가 선배를 무조건 존경하고 선배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50 (2.7%) | 202 (10.7%) | 899 (47.8%) | 622 (33.1%) | 107 (5.7%) | 1880 (100.0%) |
| 29. 나는 남자가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 46 (2.4%) | 117 (6.3%) | 632 (33.5%) | 1015 (54.0%) | 72 (3.8%) | 1882 (100.0%) |
| 30. 나는 다문화라는 용어가 차별적이라고 생각한다. | 103 (5.5%) | 298 (15.8%) | 834 (44.4%) | 295 (15.7%) | 350 (18.6%) | 1880 (100.0%) |
| 31. 나는 어떤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 203 (10.8%) | 711 (37.9%) | 522 (27.8%) | 313 (16.6%) | 129 (6.9%) | 1878 (100.0%) |
| 32. 나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 자체가 차별적이라고 생각한다. | 209 (11.1%) | 567 (30.2%) | 543 (28.8%) | 157 (8.4%) | 404 (21.5%) | 1880 (100.0%) |
| 33. 나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하면 왠지 문제가 있거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 63 (3.4%) | 344 (18.2%) | 729 (38.8%) | 617 (32.8%) | 127 (6.8%) | 1880 (100.0%) |
| 34. 나는 친구들이나 교사 및 주변 사람들이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말하는 것은 관심과 애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 47 (2.5%) | 179 (9.5%) | 728 (38.8%) | 711 (37.8%) | 214 (11.4%) | 1879 (100.0%) |
| 35. 나는 키나 몸무게로 그 사람의 성격 등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 몸무게나 많이 나가면 둔하고 게으르다. 등) | 32 (1.7%) | 101 (5.4%) | 586 (31.1%) | 1052 (55.9%) | 111 (5.9%) | 1882 (100.0%) |
| 36. 나는 가정형편으로 인해 수학여행 등 문화/교육 활동에 참여가 어려운 학생은 국가나 학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792 (42.2%) | 790 (42.0%) | 106 (5.6%) | 43 (2.3%) | 149 (7.9%) | 1880 (100.0%) |

| 문항 | 응답 | | | | | |
|---|----------------|----------------|----------------|----------------|----------------|------------------|
|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아니다 | 매우 아니다 | 모름 | 총 |
| 37. 나는 단체 활동 중에 장애 아동이 참여할 수 없는 체험학습이나 갈 수 없는 장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558 (29.7%) | 837 (44.6%) | 203 (10.8%) | 69 (3.7%) | 210 (11.2%) | 1877 (100.0%) |
| 38. 나는 교내에 남성, 여성뿐 아니라 성소수자들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성중립적인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307 (16.3%) | 553 (29.4%) | 399 (21.3%) | 200 (10.6%) | 421 (22.4%) | 1880 (100.0%) |
| 39. 나는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같은 학교, 같은 교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통합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429 (22.8%) | 718 (38.3%) | 329 (17.5%) | 82 (4.4%) | 318 (17.0%) | 1876 (100.0%) |

② 문항별 학교급에 따른 평균 비교

- 초등학생은 ‘교내 차별의 정당성’ 및 ‘외모로 성격 유추’에 대해 제일 높은 차별 반대 인식을 보였으며, 중학생 및 고등학생은 ‘교내 차별의 정당성’에 대해 제일 높은 차별 반대 인식을 보였다.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다문화 용어의 차별성’에 제일 낮은 점수를 기록하며, ‘다문화’라는 용어가 그다지 차별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항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그 외 | | F/Welch |
|---|------|-------|------|-------|------|-------|------|-------|---------------------|
| | 평균 | 표준 편차 | |
| 27. 나는 교내에서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 또는 누군가가 차별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3.60 | 0.8 | 3.58 | 0.6 | 3.71 | 0.5 | 3.60 | 0.5 | 9.671*** b<c |
| 28. 나는 후배가 선배를 무조건 존경하고 선배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3.17 | 0.8 | 3.00 | 0.8 | 3.27 | 0.7 | 3.50 | 0.5 | 24.050*** b<a, c |
| 29. 나는 남자가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 3.43 | 0.6 | 3.34 | 0.8 | 3.50 | 0.7 | 3.56 | 0.5 | 8.964*** b<c |
| 30. 나는 다문화라는 용어가 차별적이라고 생각한다. | 1.80 | 0.8 | 2.16 | 0.8 | 2.17 | 0.8 | 2.38 | 0.7 | 13.825*** a<b, c |
| 31. 나는 어떤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 3.00 | 0.9 | 2.66 | 0.9 | 2.42 | 0.9 | 2.00 | 0.8 | 32.123*** c<b<a |
| 32. 나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 자체가 차별적이라고 생각한다. | 2.18 | 0.9 | 2.53 | 0.9 | 2.62 | 0.8 | 2.90 | 1.0 | 12.686*** a<b, c |
| 33. 나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하면 왠지 문제가 있거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 3.23 | 0.8 | 2.99 | 0.8 | 3.11 | 0.8 | 3.57 | 0.5 | 6.548** b<a, c |
| 34. 나는 친구들이나 교사 및 주변 사람들이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말하는 것은 관심과 애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 3.36 | 0.8 | 3.11 | 0.8 | 3.32 | 0.7 | 3.50 | 0.5 | 14.296*** b<a, c |
| 35. 나는 키나 몸무게로 그 사람의 성격 등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 몸무게나 많이 나가면 둔하고 게으르다. 등) | 3.60 | 0.6 | 3.36 | 0.8 | 3.56 | 0.6 | 3.75 | 0.5 | 13.992*** b<a, c |

| 문항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그 외 | | F/Welch |
|---|------|-------|------|-------|------|-------|------|-------|-------------------|
| | 평균 | 표준 편차 | |
| 36. 나는 가정형편으로 인해 수학여행 등 문화/교육 활동에 참여가 어려운 학생은 국가나 학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3.20 | 0.8 | 3.29 | 0.7 | 3.40 | 0.7 | 3.22 | 0.7 | 7.203** a, b<c |
| 37. 나는 단체 활동 중에 장애 아동이 참여할 수 없는 체험학습이나 갈 수 없는 장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3.01 | 0.9 | 3.03 | 0.8 | 3.20 | 0.7 | 3.11 | 0.8 | 8.887*** b<c |
| 38. 나는 교내에 남성, 여성분 아니라 성소수자들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성중립적인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2.86 | 1.0 | 2.59 | 0.9 | 2.67 | 1.0 | 2.75 | 1.0 | 3.679* a>b |
| 39. 나는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같은 학교, 같은 교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통합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3.20 | 0.8 | 2.93 | 0.8 | 2.94 | 0.8 | 3.25 | 1.0 | 6.256** a>b, c |

※ 4점 만점

***p<0.001; **p<0.01; *p<0.05

note. 차이 검정 시 '그 외' 집단은 분석에서 제외됨(정규성 가정 충족x)

③ 문항별 성별에 따른 평균 비교

- 교내 차별의 정당성 여부, 선후배 간 차별, 성역할, 다문화 및 ‘학교 밖 청소년’ 용어의 차별성, 학교에 다니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인식, 외모에 관한 영역, 장애 아동의 참여 등 비교적 많은 영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차별에 반대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에 따른 차별적인 인식, 어려운 가정형편에 대한 지원, 성중립적 화장실과 통합교육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남녀 모두 비슷한 수준의 차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남녀 모두 교내 차별의 정당성에 대해 제일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다문화 용어의 차별성에 대해선 제일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즉, 교내 차별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비교적 강하게 반대하는 반면, 다문화 용어에 대해서는 그다지 차별적이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문항 | 여성 | | 남성 | | 그 외 | | t |
|--|------|-------|------|-------|------|-------|----------|
| | 평균 | 표준 편차 | 평균 | 표준 편차 | 평균 | 표준 편차 | |
| 27. 나는 교내에서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 또는 누군가가 차별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3.70 | 0.5 | 3.56 | 0.6 | 3.27 | 1.0 | 4.442*** |
| 28. 나는 후배가 선배를 무조건 존경하고 선배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3.22 | 0.7 | 3.08 | 0.8 | 3.36 | 0.7 | 3.504*** |
| 29. 나는 남자가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 3.53 | 0.7 | 3.20 | 0.8 | 3.40 | 0.7 | 8.815*** |
| 30. 나는 다문화라는 용어가 차별적이라고 생각한다. | 2.18 | 0.8 | 2.03 | 0.8 | 2.09 | 0.5 | 3.197** |
| 31. 나는 어떤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 2.54 | 0.9 | 2.54 | 1.0 | 2.64 | 0.9 | 0.080 |
| 32. 나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 자체가 차별적이라고 생각한다. | 2.64 | 0.8 | 2.37 | 0.9 | 2.27 | 0.8 | 5.303*** |
| 33. 나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하면 왠지 문제가 있거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 3.13 | 0.8 | 2.97 | 0.8 | 3.00 | 0.8 | 3.505*** |
| 34. 나는 친구들이나 교사 및 주변 사람들이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말하는 것은 관심과 애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 3.34 | 0.7 | 3.03 | 0.8 | 3.36 | 0.5 | 7.106*** |

| 문항 | 여성 | | 남성 | | 그 외 | | t |
|---|------|-------|------|-------|------|-------|----------|
| | 평균 | 표준 편차 | 평균 | 표준 편차 | 평균 | 표준 편차 | |
| 35. 나는 키나 몸무게로 그 사람의 성격 등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 몸무게나 많이 나가면 둔하고 게으르다. 등) | 3.56 | 0.7 | 3.35 | 0.7 | 3.27 | 0.8 | 5.400*** |
| 36. 나는 가정형편으로 인해 수학여행 등 문화/교육 활동에 참여가 어려운 학생은 국가나 학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3.36 | 0.7 | 3.32 | 0.7 | 2.82 | 0.8 | 1.078 |
| 37. 나는 단체 활동 중에 장애 아동이 참여할 수 없는 체험학습이나 갈 수 없는 장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3.19 | 0.7 | 2.99 | 0.8 | 2.64 | 1.1 | 4.584*** |
| 38. 나는 교내에 남성, 여성뿐 아니라 성소수자들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성중립적인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2.69 | 0.9 | 2.59 | 1.0 | 2.50 | 1.1 | 1.726 |
| 39. 나는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같은 학교, 같은 교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통합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2.98 | 0.8 | 2.91 | 0.9 | 2.70 | 0.9 | 1.306 |

※ 4점 만점

***p<0.001; **p<0.01; *p<0.05

note. 차이 검정 시 '그 외' 집단은 분석에서 제외됨(정규성 가정 충족x)

(5) 특성에 따른 차별 가능성 인식

① 문항별 응답 현황

40. 다음에 제시된 특성을 지닌 경우, 학교나 학원 등에서 여러 형태의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장애를 가진 아동이 다른 특성을 가진 아동에 비해 매우 자주 차별을 경험할 것(29.0%)이라고 나타났으며, 반면에 공부를 못하는 아동은 다른 특성을 가진 아동에 비해 차별을 거의 경험하지 않을 것(15.0%)이라고 나타났다.

| | 응답 | | | | | 총 |
|---|----------------|----------------|----------------|----------------|----------------|------------------|
| | 전혀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 거의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 종종 경험할 것이다 | 자주 경험할 것이다 | 매우 자주 경험할 것이다 | |
| 장애가 있는 친구 | 46 (2.5%) | 102 (5.4%) | 503 (26.8%) | 681 (36.3%) | 544 (29.0%) | 1876 (100.0%) |
| 다문화가정 친구 | 77 (4.1%) | 255 (13.6%) | 724 (38.7%) | 551 (29.5%) | 264 (14.1%) | 1871 (100.0%) |
| 탈북가정 친구 | 90 (4.8%) | 245 (13.1%) | 660 (35.3%) | 525 (28.1%) | 350 (18.7%) | 1870 (100.0%) |
| 난민가정 친구 | 98 (5.3%) | 272 (14.5%) | 623 (33.4%) | 521 (27.9%) | 352 (18.9%) | 1866 (100.0%) |
| 성적지향이 다른 친구 (특정 성별의 상대에게 관심을 나타내는 것) | 96 (5.1%) | 256 (13.7%) | 592 (31.7%) | 500 (26.8%) | 424 (22.7%) | 1868 (100.0%) |
| 외모가 뚱뚱하거나 못생긴 친구 | 99 (5.3%) | 311 (16.6%) | 695 (37.2%) | 505 (27.0%) | 260 (13.9%) | 1870 (100.0%) |
|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친구 | 164 (8.8%) | 469 (25.2%) | 710 (38.1%) | 334 (17.9%) | 187 (10.0%) | 1864 (100.0%) |
| 웃을 못 입는 친구 | 257 (13.7%) | 569 (30.4%) | 628 (33.5%) | 261 (14.0%) | 158 (8.4%) | 1873 (100.0%) |
| 공부를 못하는 친구 | 280 (15.0%) | 514 (27.5%) | 609 (32.5%) | 272 (14.5%) | 197 (10.5%) | 1872 (100.0%) |

② 문항별 학교급에 따른 평균 비교

40. 다음에 제시된 특성을 지닌 경우, 학교나 학원 등에서 여러 형태의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전반적으로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 및 고등학생들이 각 특성을 가진 아동들이 보다 더 자주 차별을 경험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 중학생은 타 소속 아동에 비해 ‘외모가 뚱뚱하거나 못생긴 친구’,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친구’, ‘웃을 못 입는 친구’가 더 자주 차별을 경험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 | 초등학교a | | 중학교b | | 고등학교c | | 그 외 | | F/Welch |
|---|-------|-------|------|-------|-------|-------|------|-------|----------------------------|
| | 평균 | 표준 편차 | 평균 | 표준 편차 | 평균 | 표준 편차 | 평균 | 표준 편차 | |
| 장애가 있는 친구 | 3.28 | 1.1 | 3.82 | 1.0 | 3.94 | 0.9 | 3.60 | 0.8 | 27.487*** a<b, c b<c |
| 다문화가정 친구 | 2.90 | 1.2 | 3.36 | 1.0 | 3.44 | 1.0 | 2.70 | 0.8 | 16.699*** a<b, c |
| 탈북가정 친구 | 2.84 | 1.3 | 3.46 | 1.1 | 3.50 | 1.0 | 3.00 | 0.9 | 20.723*** a<b, c |
| 난민가정 친구 | 2.76 | 1.3 | 3.39 | 1.1 | 3.52 | 1.0 | 3.00 | 0.9 | 27.909*** a<b, c |
| 성적지향이 다른 친구 (특정 성별의 상대에게 관심을 나타내는 것) | 2.74 | 1.2 | 3.51 | 1.1 | 3.59 | 1.1 | 3.10 | 1.3 | 42.964*** a<b, c |
| 외모가 뚱뚱하거나 못생긴 친구 | 3.18 | 1.2 | 3.41 | 1.1 | 3.22 | 1.0 | 2.90 | 1.3 | 6.620** b)c |
|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친구 | 2.73 | 1.2 | 3.07 | 1.1 | 2.92 | 1.0 | 3.10 | 1.4 | 6.839** b)a, c |
| 웃을 못 입는 친구 | 2.58 | 1.2 | 2.91 | 1.2 | 2.66 | 1.1 | 2.90 | 1.5 | 10.403*** b)a, c |
| 공부를 못하는 친구 | 2.73 | 1.3 | 2.87 | 1.2 | 2.74 | 1.1 | 3.40 | 1.6 | 2.377 |

※ 5점 만점

***p<0.001; **p<0.01; *p<0.05

note. 차이 검정 시 ‘그 외’ 집단은 분석에서 제외됨(정규성 가정 충족x)

③ 문항별 성별에 따른 평균 비교

40. 다음에 제시된 특성을 지닌 경우, 학교나 학원 등에서 여러 형태의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장애가 있는 친구’, ‘다문화가정 친구’, ‘탈북가정 친구’, ‘난민가정 친구’가 더 자주 차별을 경험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한편, ‘성적지향이 다른 친구’, ‘외모가 뚱뚱하거나 못생긴 친구’,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친구’, ‘웃을 못 입는 친구’, ‘공부를 못하는 친구’에 있어서는 남녀 모두 비슷하게 응답하였다.
- 남녀 모두 ‘장애가 있는 친구’가 제일 잦게 차별을 경험할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웃을 못 입는 친구’가 차별을 거의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 | 여성 | | 남성 | | 그 외 | | t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 장애가 있는 친구 | 3.91 | 1.0 | 3.67 | 1.0 | 3.27 | 0.9 | 4.475*** |
| 다문화가정 친구 | 3.42 | 1.0 | 3.19 | 1.0 | 3.09 | 1.1 | 4.546*** |
| 탈북가정 친구 | 3.50 | 1.1 | 3.23 | 1.1 | 3.27 | 1.2 | 4.917*** |
| 난민가정 친구 | 3.48 | 1.1 | 3.22 | 1.2 | 3.27 | 1.3 | 4.387*** |
| 성적지향이 다른 친구 (특정 성별의 상대에게 관심을 나타내는 것) | 3.49 | 1.1 | 3.48 | 1.2 | 3.27 | 1.0 | 0.159 |
| 외모가 뚱뚱하거나 못생긴 친구 | 3.26 | 1.0 | 3.31 | 1.1 | 3.00 | 1.1 | -0.876 |
|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친구 | 2.98 | 1.1 | 2.88 | 1.1 | 2.73 | 1.0 | 1.694 |
| 웃을 못 입는 친구 | 2.73 | 1.1 | 2.72 | 1.2 | 2.55 | 1.0 | 0.208 |
| 공부를 못하는 친구 | 2.79 | 1.2 | 2.77 | 1.2 | 2.36 | 0.9 | 0.202 |

※ 5점 만점

***p<0.001; **p<0.01; *p<0.05

note. 차이 검정 시 ‘그 외’ 집단은 너무 적어 분석에서 제외됨(정규성 가정 충족x)

4) 조사 결과 분석 요약

(1) 차별 경험 실태

- 아동은 다양한 일상 공간 중에서도, 학교에서 차별을 가장 빈번하게 경험(모든 차별 유형 45~65% 경험)하고 있음
- 또한, 다양한 차별 중 학업 성적으로 인한 차별을 가장 많이 경험하며, 학업 성적으로 인한 차별은 99.6%의 차별이 학교, 학원, 가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매우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 학업성적, 성별, 나이로 인한 차별의 주 가해자는 성인이지만, 외모, 성적 지향,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차별은 아동,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래친구가 주 가해자인 것으로 나타남
- 이 때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의 경우, 소수의 아동들이 비교적 빈번하게 경험하는 차별유형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타겟으로 하는 학교폭력 가능성 암시
-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교육 환경의 여건 및 기회가 성적을 기준으로 차별적으로 제공되고 있음
- 성적을 중시하는 학교 분위기 속 '학생다움'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이 강요되고, 그 과정에서 참여권 제한,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권리가 침해됨
- 더욱 중요한 것은, 성적만을 좇는 학교 환경 속에서 결과적으로 상당수의 차별 피해가 고발 또는 해결로 이어지지 않고 감내/묵인/무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한편 학교는 성별에 따라 행동 및 용모 등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규제함으로써 성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있음
- 또한 문화, 신체, 진로 등 다양한 아동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교육환경이 제공되고 있음

(2) 차별 인식

- 대부분의 아동이 '차별'이 부당하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며 특히 외모, 성 관련 고정관념에 대해 차별로 인식하고 반대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차별을 인지하고 반대하는 인식이 높음
- 중학생 연령 아동은 초등·고등학생 연령 아동에 비해 차별을 인지하고 반대하는 인식 정도가 낮음, 이때 중학생 연령 아동은 외모/경제적 여건 등의 차별에 보다 민감하며, 고등학생 연령 아동은 장애/다문화/탈북/난민/성소수자 등 소수집단 차별에 보다 민감한 경향을 보임
- 아동은 실제 생활에서 학업성적으로 인해 차별을 굉장히 빈번하게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인한 차별을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거나, 차별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임
- 마찬가지로, 아동은 외모/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차별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한편으로, 그러한 특성으로 인한 차별은 '별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외모/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차별이 주로 아동(또래 친구)으로부터 경험된다는 실태조사 결과와는 상이함
- 즉 아동은 '차별'을 개념적으로만 알 뿐 차별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차별 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음
- 특히 차별 피해 경험뿐 아니라 실제로 내가 타인을 차별하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이 잘못된 행동임을 알지 못하기에 '장난/유머'로 가볍게 치부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됨

3

주제별 모니터링 활동보고서

1) 성적으로 인한 차별(5모듬)



- 동백꽃
- 아이캔두잇
- 우리결정했어요
- 찰찰E
- 프리즘키퍼

2019 아동인권당사자 모니터링 최종활동보고서

| | | | | | |
|-------|--------------------|---|---|---|--|
| 주 제 | 성적으로 인한 차별 | | | | |
| 모 둠 명 | 동백꽃 | | | | |
| 모니터링단 | 김영현, 이가영, 박승현, 전유정 | 총 | 4 | 명 | |
| 코디네이터 | 유지혜 | | | | |

■ 우리들의 목소리(핵심 메시지)

많은 아동들이 학교에서 성적으로 차별받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모든 아동들은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어떤 이유에서라도 차별 받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동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동들이 교육현장에서 받는 차별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차별을 조금이나마 없애고 싶습니다. 그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 캠페인 활동을 하며 차별 없는 그날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아동의 권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모니터링해요!
(CHILDREN CAN DO EVERYTHING)



1. 주제 선택 이유(문제 제기)

“ 성적으로 인한 차별을 없애고 청소년들의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자”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 그 중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무엇일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다. 다들 공통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부분이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였다. 그래서 주제를 성적 차별로 잡았다. 성적으로 등수를 나누고, 참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싶어서 주제로 선정하였다.

2. 목적

“ 아동들에게 일어나는 차별에 대해 알아보고, 차별을 인지”

청소년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고 있는 부분인 성적으로 인한 차별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성적에 의한 차별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아동들도 뭐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지시키기 위해 ‘children can do everything’이라는 문구로 전자파 차단 스티커를 제작하여 주변인들에게 나누어주고 SNS를 통해 해시태그 캠페인을 진행했다. 그리고 교내 성적에 의한 차별 관련해 직접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감님께 정책을 제안하는 편지를 썼다. 현존하는 교내 차별을 알아보기 위해 교칙 및 교과서에서 차별을 찾아보았고 전국적으로 차별을 찾기 위해 뉴스 기사를 스크랩하는 활동을 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성적으로 인한 차별에 대해 이해하고 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본다.

3. 활동 내용(모니터링 방법)

“꾸준한 활동으로 일어난 작은 변화들”

1. 아동 성적차별 설문조사를 위한 질문 정하고 설문조사 실시.
 - 실제 주위 친구들이 성적으로 인한 차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동 코디네이터 주변 친구들 100명을 대상으로 네이버 폼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
2. 전자파 차단 스티커 제작 문구를 정하고 교내 성적 차별에 대한 학생들의 인터뷰 준비를 위해 인터뷰 질문을 만들.
 - 생생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성적으로 인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학교 교칙에서 차별 내용 찾아보기

학교에서 있는 교칙들을 읽어보고 그 교칙들에서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을 찾아 수정을 해보고 의견을 첨가하였다.
4. 교육감님께 편지쓰기

우리가 느끼는 성적차별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변화할 점을 편지를 통해 작성하면서 아동의 목소리를 대변하였다.

4. 활동 소감(아동 및 코디네이터)

저희 '동백꽃' 조는 지난 8월부터 11월에 이르기까지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비교적 긴 시간동안 즐거웠을 뿐만 아니라 뜻 깊었고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월, 아동보고서를 UN에 제출했고, 그 후속 활동으로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을 진행했었는데 아동보고서의 이행 여부를 아직까지는 느끼지는 못했지만, 지난 시간들이랑 비교를 하며 개선된 부분도 많았지만 아직까지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조는 '성적으로 인한 차별'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아동을 위한 정책, 방안, 대우 등이 미비하게 존재를 하지만 아동들에게 요구하는 성적은 너무나도 과도하고, 심하고 그리고 성적이라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 아동들이 행하는 방법들이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성적으로 인한 차별이 당연시 된 곳도 있고, 당연시가 되었기에 익숙하며 일상 속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사람들도 매우 많아 더욱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저희 세대만 겪으면 상관없지만 후배들에게, 동생들에게 이어진다는 것이 더욱 무겁고,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적으로 인한 차별... 과연 옳은 것일까요? 성적으로 인한 차별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며 성적으로 인한 차별의 원인이 되는 어른들의 생각도 들어보았는데, 그들은 이런 차별이 도리어 학생들의 성적을 올려주고 자극을 심어주어 더욱 좋은 시너지를 발생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나 사고방식을 고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아동들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노력을 하고 다양한 방안을 내세우는 등의 활동을 해야 한다고 마음에 심는 계기와 발판이 되었던 것 같아 좋았습니다.

이 활동들은 우리 일상 속에 차별에 대한 경각심과 문제를 심어주는 하나의 사건이 되었기에 저희 조원들은 더더욱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드릴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조원들은 더욱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이 커져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인한 차별'은 앞서 말했듯 계속해서 이어지면 안되는 사회적 문제 중 하나입니다. 사회적 문제는 다른 문제들과 다르게 다수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에 더욱 빨리, 우선시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성적으로 인한 차별'로 고통 받는 아동이 없을 때까지, 아동들이 성적으로 고통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그날까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감사했고 모두들 수고하셨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5. 첨부자료

교육감님께 보내는 편지

OOO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OO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3학년 OOO입니다. 저는 올해 여름 국제야동인권센터에서 운영하는 캠프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겪는 여러 가지 차별을 알아보고 그 심각성도 알게 되었습니다. 캠프가 끝난 후 주변 지역 친구들과 만나 여러 가지 차별중 한 가지 다뤄볼 주제를 정하고 그 차별에 대해 더 알아보았는데요, 저희가 알아본 차별은 성적차별입니다. 학생들이 주위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고 자주 느끼고 있는 성적차별에 대해 알아보고 그 해결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먼저 저희는 실제로 학생들이 성적차별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해보았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본결과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성적차별을 당해 본적이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절반에 달하는 학생들이 성적으로 인해 놀림을 당하여 힘들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이야기한 성적차별의 종류에는 성적 강제 공개, 성적순으로 인한 반배정, 성적으로 인한 친구들의 놀림, 성적으로 인한 특혜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적차별의 원인중 하나가 성적이 강제적으로 다른 아이들에게 공개가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의 성적을 반 전체가 알게 하지 않고 학생 개인에게만 알려주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한 사람의 성적을 자신만 알고 싶은 학생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런 아이들의 성적을 반에다 공개를 해서 성적 종이를 돌리게 하다 보니 원하지 않았는데 성적이 공개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적이 공개되어 다른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거나 학원 선생님들이 미리 다른 아이들을 통해 점수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성적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전교 석차, 반 석차 등을 학생들이 물어보아도 알려주지 않는 것을 더욱 강화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성적에 따라 반을 나누거나 잘하는 아이들만 따로 빼서 관리하는 제도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보는 반배정 시험은 성적에 따라 학생들을 반에 고르게 배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험인가요? 아마 반배정 시험의 숨겨진 목적은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을 찾아 좋은 대우를 해주기 위한 시험이라고들 합니다. 또한 학기 초에 그 시험 성적으로 아이들을 판단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성적으로만 분류하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 행동일까요? 또 반을 성적순으로 나눈다면 성적이 낮은 아이들의 자존감은 더욱 더 내려갈 것이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사기도 사라질 것입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성적이 높은 반만 더욱 더 신경을 써서 가르칠 것입니다.

학생들을 성적으로 나누어서 성적에 따라 다르게 관리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제도가 없어져야 한다고 진심으로 생각하며 교육감님께 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 OO중학교 2학년 OOO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연히 국제아동인권센터를 알게 된 후 아동 인권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동인권에 대한 많은 활동을 하게 된 후 제가 생각 했던 것보다 아동이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몇몇 있었습니다. 성적에 따라 반을 나누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서 하는 캠프나 활동들도 성적에 따라 제한이 있었습니다. 또 시험 점수나 수행평가 점수를 학생모두에게 공개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성적이 좋지 못한 친구들은 같이 수업 받지 못하고 캠프나 활동에 지원하지 못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성적우등생만 우대 하는것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차별없는학교를 원합니다.저희는 성적에 따라 반을 나누는 것보다는 같이 수업을 받는 것을 원하고 저희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합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저희 의견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의견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교육감 OOO님께...

OOO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대전 OO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OOO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여름 방학에 국제아동인권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주최 하는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캠프에 다녀오게 되면서 저희 조는 학교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전광역시의 학교 내부의 교육 환경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문제 중 '성적으로 인한 차별'이 가장 손에 꼽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적으로 인한 차별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일상생활 속에 스며들었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학생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성적으로 인한 차별이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성적으로 인한 차별으로는 선생님들의 사고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방식이라고 하니 선생님들의 권위를 폄하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들의 사고 방식이 매우 문제가 되고 또는 보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로 인해 아직도 학생들의 성적을 기준으로 하여 학생들을 차별 대우하게 됩니다. 개인의 보수적인 사고방식이나 생각을 고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의 사고 방식을 고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초임 선생님께 먼저 교육을 시키고 주기적으로 선생님들이 연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선택 사항이 아닌 의무 사항으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그나마 사고방식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방식과 생각을 한 번에 바꾸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주기적으

로 그리고 꾸준히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개인의 생활 방식이나 주변 환경에 문제가 있었던 것 입니다. 그러기에 한 번에 많은 기대를 해서는 안됩니다. 성적 차별이 선생님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보통 일어나는 문제이지만,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 역시 노력을 해야 하지만 선생님들과 그들이 속해있다고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집합인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도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찾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적으로 인한 차별’ 너무나도 당연시 되고 있고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너무 당연시 되고 있기에 익숙해져서 차별에 관한 말을 들어도 기분이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다른 후배들은 이런 심각한 문제가 일상화 되지 않고 큰 문제로 다가온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OOO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저는 OO중학교 3학년 OOO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의 더 나은 교육 환경과 무지의 깨달음을 위해 교육감님께 제안드릴 것이 있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여름방학에 아동인권의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주최한 캠프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캠프 활동의 주제를 성적에 의한 차별로 정하고 저희 팀과 함께 성적 차별을 당한 학생들의 인터뷰를 하고 뉴스 기사를 찾아보는 활동을 했는데 생각보다 교내 차별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짧은 말이나 행동으로 인한 차별로 감정이 상하는 일부터 성적이 좋은 아이들에게만 해외 연수 등의 기회가 주어지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경험들에도 차별이 일어납니다. 인터뷰 활동으로 알게 된 차별을 하는 사람들은 교사, 부모님, 친구 등으로 대부분 오랜 기간, 오랜 시간 함께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과는 오래, 자주 봐야하기 때문에 차별을 당해 상처를 입는다고 해도 이 후의 관계 유지 문제 등으로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특히 학교가 교육 기관 이다보니 교사의 차별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 성적으로 차별하면 더욱 안되시는 분들 아닌가요? 사실 요즘은 성적만 좋다고 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성적이 좋다고 선생님들에게 더 잘하거나 그런 일은 많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직 심각한 성적 차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별에 의해 상처받는 학생들이 많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겠죠. 그래서 교사들에게 차별에 대해 인지시키고 상처 입는 학생들을 줄이기 위해 교사들의 차별 예방 교육을 실시하시면 어떨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론 교사 연수라는 것을 통해 교사들의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차별에 대한 교육을 하시는게 어떨까요? 그렇게 한다면 차별에 관한 교육을 받기 위해 따로 모임 필요도 없고 어차피 교육을 받기 위해 모인 자리이니 그게 가장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지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제안 드리는 것이고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도 차별을 하는 교사들은 명백한 잘못으로 징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선생님의 폭언이나 외모비하 발언 등으로

상처를 받았지만 학교에 말해도 사과조차 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기분을 학생들에게 푸는 선생님까지 계시지만 학생들은 그것을 받아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교사들에게 징계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을 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얼마 전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법이 개정되었다고 들었는데 과연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이 학생만 존재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교사들이 더 많지만 학생들은 그렇게 침해 받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만큼 아무말도 하지 못하고 교사들도 학생들을 그렇게 대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교권보호법이 있으면 당연히 학생권리보호법도 필요합니다. 잘못된 것을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처럼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잡아 피해자를 줄이고 무지를 깨닫게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인식개선용으로 제작한 전자파 스티커

〈성적으로 인한 차별에 대한 인터뷰 내용〉

1. 익명

- Q. 성적차별을 당한 적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 A. 역사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이가 예전에는 많이 못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잘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수학선생님은 수업에 이용하신다고 대놓고 평균 뒤편고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 너 생각보다 공부 잘하더라? 점수 많이 나왔다 " 라고 이야기하셨고요.
- Q. 차별을 당했을 때의 기분과 원하는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 A. 기분이 너무 나쁘고 친구들이 많은 곳에서 그러신 거라 수치심도 많이 느꼈어요. 당황스러웠고 이거에 대해 말씀을 드려야하나 그냥 넘겨야 하나 고민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차별에 관한 교육을 받아서 나처럼 기분 나쁜 사람이 줄었으면 좋겠어요.

2. 익명

- Q. 성적차별을 당한 적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 A. 학교에서 캠프 같은 걸로 몇 명 뽑아서 미국 보내준다고 신청하라고 하셔서 신청했는데 한참 지나도 뭐 탈락했다 당첨됐다 얘기가 없길래 담당쌤 찾아가서 물어보니깐 그거 개네 둘이 됐어 ~ 이렇게 말하셨어요. 근데 개네가 공부 잘하는 애들이었고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만 따로 불러서 고등학교 입시 설명회 알아봐주고 가라고 말해주는거요.
- Q. 차별을 당했을 때의 기분과 원하는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 A. 쌤들이 신청하라고 하셨을 때 애들이 안 될 거 뻔히 아는데 왜 신청하냐는 식으로 말하니까 신청해서 붙을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라고 말하시고 막상 안되면 담에 또 하면 되지 이런식으로 말하셔서 짜증났어요.

3. 익명

- Q. 성적차별을 당한 적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 A. 저는 오빠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전 못해요. 그래서 집에서 엄마가 차별하는데 예를 들면 옷도 안 사주고 운동화도 안 사주고 휴대폰도 좋은 거 안 사줘요. 그래놓고 화장도 못 하게하고 걸리면 화장품 다 버리고. 그리고 친구집에서 자는 것도 안되고 통금 때문에 학원 가기 전에 시간에 조금이라도 놀 수 있으니까 학원도 억지로 다녀요.

Q. 차별을 당했을 때의 기분과 원하는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A. 진짜 너무 화나서 많이 울기도 했어요. 제가 못하고 싶어서 못하나요. 해결방안?? 어떡해요. 엄마를 바꿀 수도 없고.

4. 익명

Q. 성적차별을 당한 적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A. 담임 쌤이랑 고등학교 진학 상담하는데 ~~예고 가고 싶다 그랬는데 너는 성적 낮아서 절대 못 간다고 그랬어요.

Q. 차별을 당했을 때의 기분과 원하는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A. 저도 용기 많이 내서 말한 거고 이번 시험 잘 보면 간당간당 갈 수 있는데 절대 못 간다고 하시니까 의욕도 순각 딱 식고 내 진로도 결정된 일인데 왜 본인이 날 포기하시는지 많이 화났었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한테 말 좀 예쁘게 하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생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5. 익명

Q. 성적차별을 당한 적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A. 전 제 친구랑 같은 영어 학원 다니는데 친구가 공부를 잘하거든요? 근데 저랑 개랑 같은 이유로 학원 빠진다고 하면 저한테만 뭐라하고 개는 그냥 허락해줘요. 그리고 둘이 장난치다가 걸리면 저만 혼나고 개한테는 아무 말도 안하고요. 진짜 다른 애들도 다 느낄 정도로 개만 특별대우해주는데 그래서 학원 끊고 싶다고 하니까 엄마가 그럼 저보고 공부를 잘하랬어요.

Q. 차별을 당했을 때의 기분과 원하는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A. 많이 화났죠. 어떻게 성적으로 사람을 가려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었는데. 아무튼 성적이 아니라 인격체로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다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해결방안..... 원장쌤한테 말해야할까요?

6. 익명

Q. 성적차별을 당한 적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A. 친구들이 뭐만하면 계속 성적가지고 니 몇 등했는데 저번에 아 ~~등 한 애랑은 못 놀겠는데? 이라고 니 ~~등 이라 안 돼 이래요. 친구들이 다 공부 잘해서 할 말도 없고, 중 1때는 성적 낮은 걸로 그냥 애들이 장난치거나 이런 것도 웃으면서 받아줬는데 지금은 장난치면 진짜로 느껴지고.. 우울해져요.

Q. 차별을 당했을 때의 기분과 원하는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A. 분명 성적 차별로 시작하는데 점점 그냥 날 싫어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자존감도 떨어진 거 같아요. 친구를 걸러야되나. 애들도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을 받던지.

7. 익명

Q. 성적차별을 당한 적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A. 저희 고등학교는 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 성적순으로 받아요. 전 집 가깝지도 멀지도 않아서 기숙사 들어가고 싶었는데 성적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따로 공부할 방을 줘요.

Q. 차별을 당했을 때의 기분과 원하는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A. 나도 집 꽤 먼 편이라 아침마다 많이 불편하죠. 공부 못 하는 애들은 멀리 살지도 말라는 소리인지. 한 해는 성적순으로 받고 한 해는 그냥 사유 써서 뽑았으면 좋겠어요.

8. 익명

Q. 성적차별을 당한 적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A. 엄마가 저는 잘 알지도 못 하는 엄마 친구 딸이랑 비교해요 자꾸. 걔는 이번에 전교 회장도 하고 성적도 10등 안으로 유지한다는데 나는 뭐하냐 엄마가 어떻게 학원 보내 주는 건데 열심히 좀 안 하나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맨날 그래요.

Q. 차별을 당했을 때의 기분과 원하는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A. 집 가면 그런 말만 들으니까 집 들어가기 싫어서 맨날 밖에서 애들이랑 놀다가 늦게 들어가거나 그래요. 어차피 놓고 들어가나 안 놓고 들어가나 잔소리는 똑같은데 놓고 들어가는게 낫잖아요. 친구집 가서 자는 일도 허다하고.. 그냥 포기했죠.

9. 익명

Q. 성적차별을 당한 적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A. 우리 영어 쌤이 성적 좋은 애들한테만 친절하고 성적 안 좋은 애들 엄청 무시해요.

Q. 차별을 당했을 때의 기분과 원하는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A. 이젠 너무 익숙해져서 웃겨요. 처음엔 짜증났는데 뭐 포기하면 편하잖아요. 그래도 선생님께 깨달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인생에 대한 지혜와 개념도 없는 거 같아서 불쌍해요.

10. 익명

Q. 성적차별을 당한 적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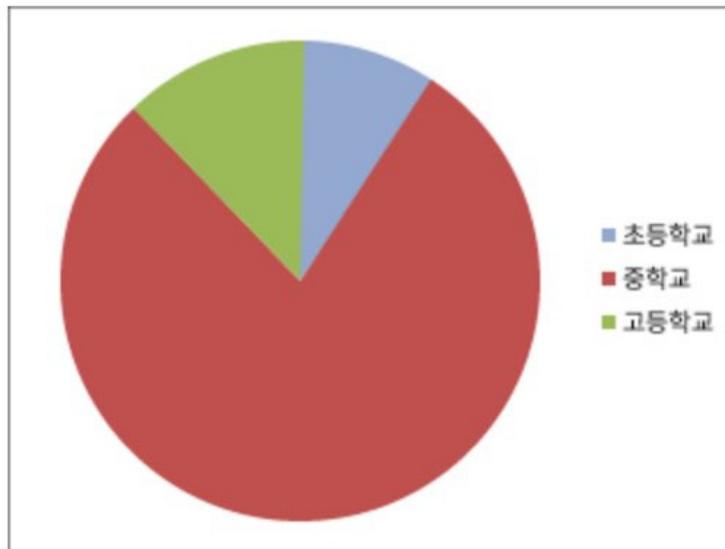
A. 성적 좋은 애들 말만 들어주고 잘하는 애는 필참인거 맨날 빠져도 빼주는데 아프다고 빠지려던 못하는 애는 성적 들먹이면서 넌 못하는데 왜 빠지냐고 했어요.

Q. 차별을 당했을 때의 기분과 원하는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A. 기분 더러워서 컴플레인 걸었는데 본인도 인정하셨어요. 열심히 하고 말고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차별할 거라고 하셨어요. 고소당해서 징계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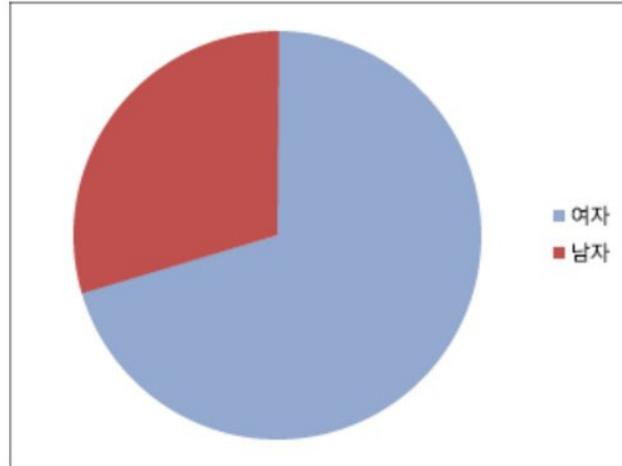
〈성적으로 인한 차별 설문조사 결과〉

1. 당신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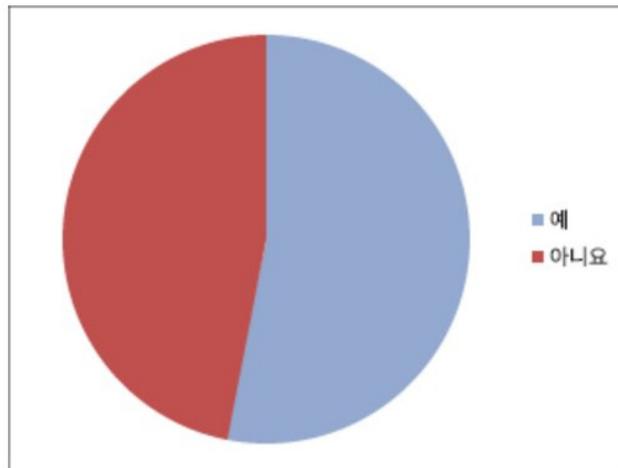
| | | |
|------|----|-------|
| 초등학교 | 10 | 9.9% |
| 중학교 | 79 | 78.2% |
| 고등학교 | 12 | 11.9% |

2. 당신의 성별은 어떻게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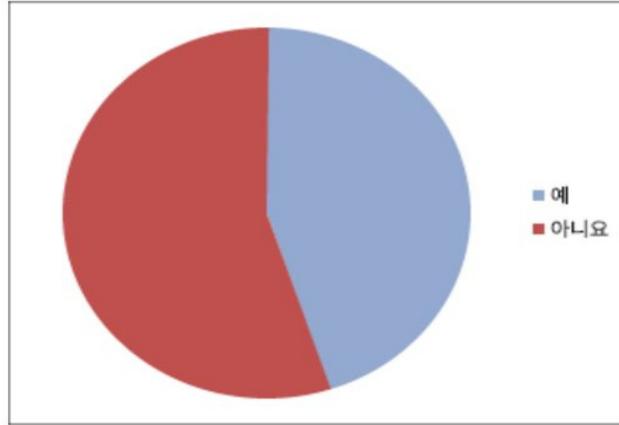
| | | |
|----|----|-------|
| 여자 | 72 | 71.3% |
| 남자 | 29 | 28.7% |

3. 성적 차별을 당한적이 있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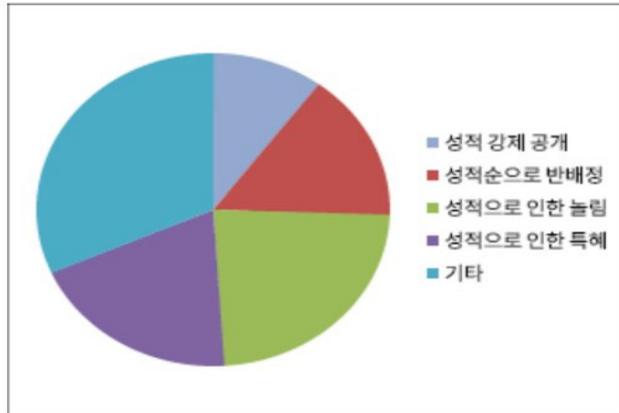
| | | |
|-----|----|-------|
| 예 | 54 | 53.5% |
| 아니요 | 47 | 46.5% |

4. 성적으로 인해 놀림을 받은적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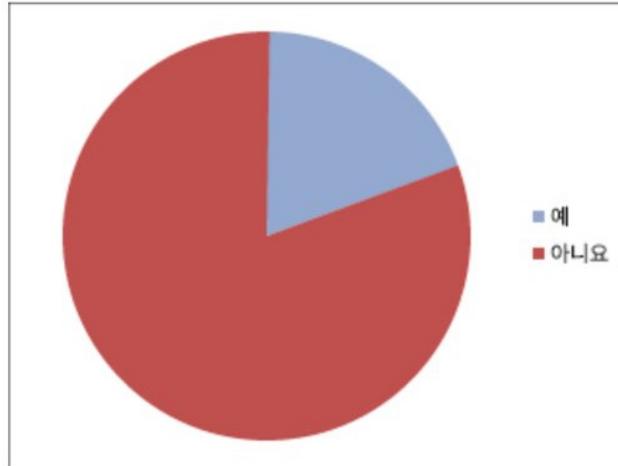
| | | |
|-----|----|-------|
| 예 | 46 | 45.5% |
| 아니요 | 55 | 54.5% |

5. 성적차별을 어떻게 당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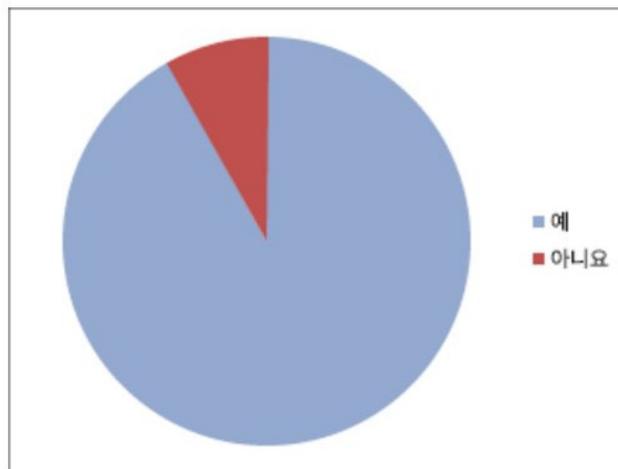
| | | |
|------------|----|-------|
| 성적 강제 공개 | 11 | 10.9% |
| 성적순으로 반배정 | 15 | 14.9% |
| 성적으로 인한 놀림 | 24 | 23.8% |
| 성적으로 인한 특혜 | 20 | 19.8% |
| 기타 | 31 | 30.7% |

6. 성적으로 차별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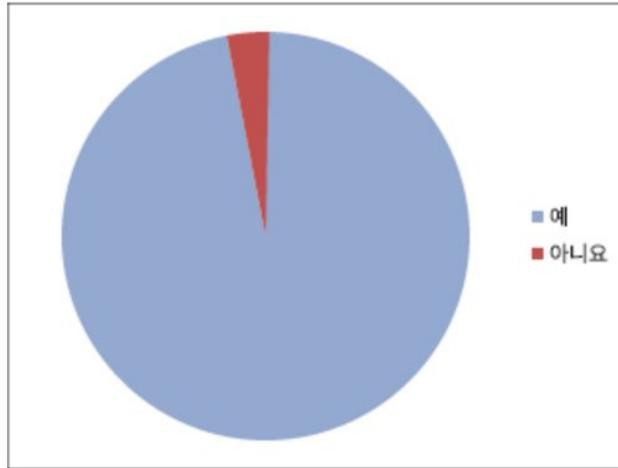
| | | |
|-----|----|-------|
| 예 | 19 | 18.8% |
| 아니요 | 82 | 81.2% |

7. 성적차별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 | |
|-----|----|-------|
| 예 | 92 | 91.1% |
| 아니요 | 9 | 8.9% |

8. 교내의 성적차별이 없어졌으면 좋겠나요?



| | | |
|-----|----|-------|
| 예 | 98 | 97.0% |
| 아니요 | 3 | 3.0% |

2019 아동인권당사자 모니터링 최종활동보고서

| | | | | | | |
|--------------|------------------------------|----------|----------|----------|--|--|
| 주 제 |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성적에 의한 차별 | | | | | |
| 모 둠 명 | 아이 CAN DO IT | | | | | |
| 모니터링단 | 김가윤, 간윤배, 김지후, 김지안, 유준식, 강리나 | 총 | 6 | 명 | | |
| 코디네이터 | 조가현 | | | | | |

■ 우리들의 목소리(핵심 메시지)

저희 조는 조 이름부터 “아이 CAN DO IT” 라고 정하는 동시에 이렇게 아이들이 모여 스스로의 인권을 지키고 위해 문제점을 찾고 해결방안을 찾아 최종적으로 성공적인 인권보호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다짐을 굳건하게 하였습니다. 아이들을 차별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저희 조는 ‘성적’을 주제로 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사회 속에서 학생들과 가장 밀접하고 예민한 관계에 있는 ‘성적’ 이 학생들의 주요 관심사이자 자존심, 자존감에 직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적은 그 사람이 어떠한 특정 분야에 대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아 부었느냐의 여부를 판단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하나의 도구이자 방법이지만 당연히 사람의 인생과 인격을 평가하고 단정 지어 생각하게 하는 자격이 없고 기준 또한 되지 못합니다. 결코 학생들 각자의 문제가 아니기에 본 조는 학생들에게 성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은 절대적으로 학생들 스스로의 탓이 아님을 알려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고 선생님, 부모님 등을 포함한 여러 어른들에게 모니터링 결과를 알려주며 인식 개선과 학생 존중의 중요성을 알리고 성적은 결코 학생들을 평가하는 수단이 아니며 학생 개개인마다 각자 다르게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 장점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여 앞으로는 성적에 의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본 조의 최종목표입니다.

대한민국 아동의 권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모니터링해요!



아동인권은 지킬수록 행복해지잖아요.

1. 주제 선택 이유(문제 제기)

끝없는 경쟁 안에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교육사회 속에서 성적으로 사람의 등급을 매겨 평가하고 차별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적은 그 사람이 어떠한 특정 분야에 대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아 부었느냐에 따라 나오며 그 결과에 따라 차별된 대우 혹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공평하다 판단될 수 있지만, 단지 성적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인생과 인격을 평가하고 단정을 지어 생각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이가 어리고 자신만의 가치관, 자존감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성적 하나만으로 차별받는다면 자신의 문제점, 부족한 점을 개선하려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대로 자신을 평가하고 단정 짓게 되어 자신감을 잃고 결과적으로 발전이 없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조는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성적에 의한 차별을 조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2. 목적

교육현장에서 일어나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여러 가지 차별들 중에 성적에 의한 차별에 중점을 두어 모니터링을 시작하였습니다. 직접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성적에 의한 차별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고 이를 토대로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해결방안 또한 질문하였습니다.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차별들(성차별, 외모에 의한 차별, 연령차별) 중에 성적에 의한 차별을 모니터링 주제로 결정하게 된 이유는 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학생들이 학교나 학원 등을 통해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붓는 항목이기에 즉 자존심과 자신감에 직결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모니터링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떠한 경우에 성적에 의한 차별을 느끼고 차별을 당했을 때 어떠한 기분이 들었으며 차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았고 학생들에게 직접 차별이 일어나는 이유, 차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물어보아 결과를 토대로 성적에 의한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찾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3. 활동 내용(모니터링 방법)

8/9월: 주제선택, 주제에 대한 탐구 (주제 관련하여 자료 검색)

1. 인천시교육청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학생의 68% 가 '성적'을 차별 요인으로 지적 (<http://www.incheontoday.com>)
2. 부산 수영구의 초등학교에서 성적순으로 급식 줄을 세우고 경남 진주의 한 대안학교에서는 교사가 성적의 이유로 학생의 뺨을 때리는 사건 (<http://www.knn.co.kr>)
3.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임원 출마 자격으로 성적제한을 두어 정해진 성적을 넘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 품성과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자격박탈 (<http://www.humanrights.go.kr>)
4.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학업성적이 가장 많이 꼽힌 학교 안 차별 사유 (<http://www.ohmynews.com>)
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학업성적을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는데, 초등학생의 경우 4.7%에 불과했으나 중, 고등학생의 경우 18.3%, 27.5% 로 증가

9/10월: 설문조사 제작, 결과 도출

각각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상대로 설문조사 실시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 설문조사를 독려하였고 조원들 개인적으로 친분을 이용하여 설문조사 실시

11월: 카드뉴스 제작

- 1) 카드뉴스 목적, 우리의 목표 등
- 2)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이 어떤 상황인지 성적에 의한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프, 퍼센트 등 수치를 이용하여 설명, 증명
- 3) 간단한 해결방안과 앞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행동- 팔로우, 좋아요, 설문조사 참여 등으로 독려

4. 활동 사진



5. 활동 소감(아동 및 코디네이터)

처음에 모니터링단 신청공고를 읽고 이러한 활동이 생소하게 느껴져 흥미로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당시에 모니터링단이 정확하게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지는 몰랐지만, 평소 인권에 관심이 있고 여러 인권에 관련하여 교육을 받거나 활동들을 해왔지만 아동인권에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어떠한 활동을 해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아동인권에 대해 더 알아보고 배우고,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설렘과 함께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모니터링단 사전교육이 있다고 공지를 듣고 단지 아동인권에 대한 교육만을 받고 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캠프장으로 향하였습니다. 전형적인 강의 형식의 교육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조를 나누어 활동해야하는 것을 보고 처음엔 다양한 연령대 아이들과 합을 맞춰가야 하는 과정이 귀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2박 3일이라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조원들과 친해져 함께 이야기하고 발표하는 것이 재밌게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연령대에 있는 청소년들의 시야에서 아동인권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아동인권이 어떠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고 가장 심각하며,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다 같이 생각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공유해보면서 나 자신이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한참 어린 초등학생들로부터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배우기도 했습니다. 인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늘 어른들과만 이야기를 나누어보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처음으로 청소년의 입장에서 아동인권을 다루어 보면서 다양한 연령대와 상황에 놓여진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 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적에 의한 차별’을 조의 주제로 정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평소에도 인식하고 있었지만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성적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인격적으로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모니터링단 활동과 관련하여 가장 좋았던 점은 물론 조원들과 함께 자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의논하고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활동을 하였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과 모여서 여러 의견을 나누어 보는 흔하지 않은 경험을 해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두 번의 조별 미팅에 참여하지는 못하였다는 점 같습니다.

6. 첨부자료

설문조사 결과

[학생]

초등학생 3명, 중학생 23명, 고등학생 4명 답변

1. 본인 성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만족 8명, 만족 8명, 보통 6명, 불만족 4명, 매우불만족 4명
2. 성적에 의한 차별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이 진행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나요?
예 18명, 아니요 3명, 모르겠음 9명
3. 본인이 교육현장에서 성적에 의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9명, 아니요 7명, 모르겠음 13명
4. 성적에 의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면 차별을 많이 한 사람은?
교사, 도래친구, 보호자 순서로 비율이 높다 (그 외 학원선생님, 주변성인 등)
5. 성적에 의한 차별을 받았을 때 본인의 기분은 어떠했습니까?
서러웠다, 당황스러웠다, 자존감이 낮아졌다, 화가 나고 매우 나쁘다
6. 성적에 의한 차별에 대해 고민을 나눌 사람이 있나요?
예 22명, 아니요 4명, 모르겠다 4명
7. 주로 고민을 나누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도래친구, 보호자, 교사, 선후배, 딱히 없다 순서로 비율이 높다
8. 성적에 의한 차별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질투심, 경쟁사회, 공부를 잘해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고정관념 등
9. 학생의 입장에서 성적에 의한 차별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요?
시험결과 비공개 전환, 교사들의 행동변화, 아이들의 장점을 살리는 활동, 비교보단 이해하기, 학생존중, 인식 바꾸기 등

[교사]

학생의 각각 역량에 집중해야한다. 학생들 사이의 성적 차별이 일어나는지 세심히 살펴야 한다. 차별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한다.

2019 아동인권당사자 모니터링 최종활동보고서

| | | | | | |
|-------|-------------------------|---|---|---|--|
| 주 제 | 학교 내 성적 차별(학업) | | | | |
| 모 둠 명 | 우리 결정했어요 | | | | |
| 모니터링단 | 김민주, 김윤아, 송현지, 이정현, 장효란 | 총 | 5 | 명 | |
| 코디네이터 | 윤지애 | | | | |

■ 우리들의 목소리(핵심 메시지)

- 교육 기관 내에서 성적(학업)으로 인한 차별을 막자.
- 경상북도 학생인권조례 정책을 추진하여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 교육 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게 하자.

1. 특정 학생의 혜택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2. 성적 지향성, 정치적 의견 등의 개인적 견해를 존중받고 강요받지 않을 권리
3. 야간자율학습, 보충 수업 등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권리
4. 벌점, 생활기록부(생기부) 등 교사의 개인적 의견으로 인해 통제받지 않을 권리

대한민국 아동의 권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모니터링해요!
(차별 없이, 특별한 우리 그대로)



1. 주제 선택 이유(문제 제기)

모니터링단 캠프 활동을 할 때에도 ‘차별’,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의 학업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차별에 관련된 내용과 인접한 주제들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주제와 사례들이 제시되었지만 현재, 우리 조원 중 대부분은 학업으로 인한 차별 경험을 가장 많이 겪었고 계속 거론되기도 했기에 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모두 같은 곳에서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는데, 왜 성적으로 인한 차별이 있어야 하는가?”라는 작은 의문이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2. 목적

교육 현장 내에서 학업 순위로 인해 일어나는 여러 차별들을 아예 없앨 수는 없지만 최소화 시키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학교 내에서 특별반(성적에 따라 반을 나누어 각각 다른 환경에서 자습을 시키는 경우), 우수한 학생들에게만 주어지는 여러 기회(ex. 스펙 몰아주기, 학급 반장&학교 회장 출마…….) 등의 차별이 생겨 소수의 학생은 혜택을 받아 대다수의 학생이 불만을 품는 것을 최소화하여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 기관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3. 활동 내용(모니터링 방법)

8월(8/15) - 1차 만남

- 학교 내 학업으로 인한 차별 사례 찾기, 주제 구체화.
 - 교육 기관 내 학업으로 인한 차별 사례 조사와 세부 주제 등을 구체화 하여 우리 조가 할 일을 정함.

8월(8/31) - 2차 만남

- SNS(페이스북) 페이지 창설, 경상북도 학생인권조례 제작 후 국민청원, 카드뉴스 제작
 - SNS 중 페이스북 페이지를 창설하여 우리 팀 소개를 하고 학생인권조례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알림.
 - <https://www.facebook.com/우리-결정했어요-110999310258047/>
 - 우리가 원하는 경상북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고 페이지에 게시 및 국민청원.

10월(10/26)- 3차 모임

- 캠페인 준비(판넬 제작, 전단지와 함께 줄 간식 봉합), 캠페인 구상 및 구체화

10월(10/27)- 4차 모임

- 캠페인 활동. +) '도담도담' 조와 합동 캠페인.
 - '교육 기관 내에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는가?'를 주제로 한 설문조사 실시.
 - '교육 현장에서의 차별; 성적 차별, 장애 아동 교육 환경 개선 캠페인' 전단지 배포 및 제작한 판넬로 사람들에게 아동 인권의 중요성을 알림

4. 활동 사진



5. 활동 소감(아동 및 코디네이터)

캠ป์에서 걱정했던 대로 한 시간 두 시간 거리의 지역에서 각자가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서로 약속을 잡기에 어려웠고 그러면서 감정이 상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종래에 우리들에게 남은 것은 서로에 대한 애정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의 다른 나이대의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이렇게 활동을 같이하고 관계를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즐겁고 좋은 경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인권에 있어서도 일상생활에서 생각하지 못하던 것들도 생각하며, 인권 감수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였다는 생각 또한 듭니다.

활동을 하며 이런 것이 차별이구나를 더욱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 더욱 조심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한 활동이 결코 크고 성대한 활동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우리 팀,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호수에 던지는 돌처럼 잔잔한 파문을 일으킬 수 있었지 않나합니다. 그런 파문이 종래엔 큰 파도가 되어 아동인권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지켜지는 세상이 왔으면 하고 바랍니다.

캠프를 통해 만난 국제 아동인권센터의 선생님, 코디네이터 선생님, 모든 아동들과 만나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활동할 수 있어서 즐거웠고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결정했어요 란?

2019 아동인권
모니터링 당사자 캠프에서
만들어진 팀으로,
아동인권을 옹호 하고 있습니다.

- ♥ 교육현장에서 성적으로 인한 차별 개선
 - ♥ 학생인권 조례의 필요성
 - ♥ 아동인권을 위한 캠페인 개최
 - ♥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카드뉴스 제작



아동 인권이 뭐예요?

아동 권리는 아동이 가진 인권이며, 아동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보호와 관리에 대한 배려입니다.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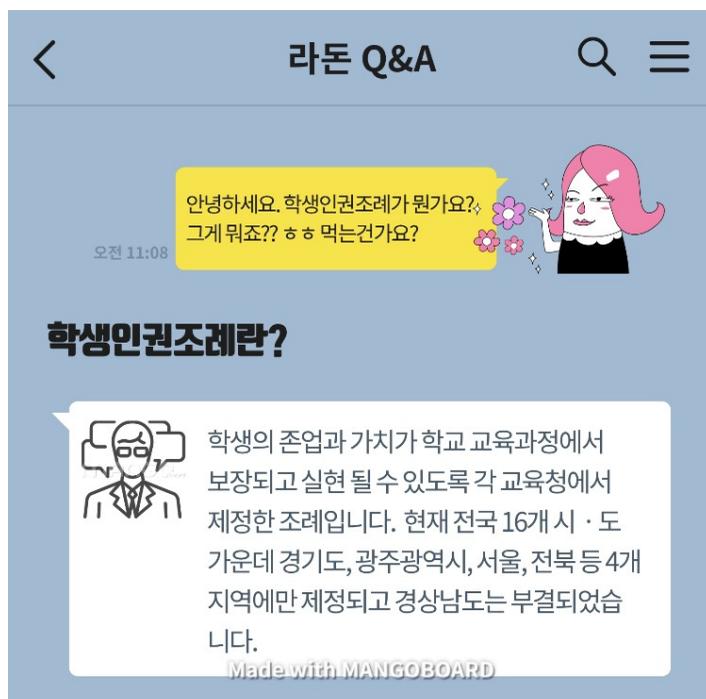
발달권 생존권 참여권 보호권

우리 결정했어요 팀은?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학업 차별을 최소화 하고자!

우리가 원하는 경상북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고
국민청원일!
(‘우리 결정했어요’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 홍보까지)

더욱 더 알릴 수 있도록
카드 뉴스 제작과 캠페인까지!!



오전 11:17

헉!! 4개 지역만 제정을?



오전 11:18

경상북도도 언젠가는 조례가 제정되겠죠?



경상북도에서는 아직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결정했어요' 팀이 경상북도 학생 인권 조례를 촉구하며 예비 조항 4가지를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조항들로 구성되어있으니 한번 볼까요?



Made with MANGOBOARD

우리들이 만든 학생인권 조례



1. 특정 학생들에 대한 혜택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2. 성적지향성, 정치적이견을 존중받고 강요받지 않을 권리
3. 야간 자율학습, 보충수업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권리
4. 벌점, 생기부 등 교사의 개인적이견으로 통제받지 않을 권리

Made with MANGOBOARD



어머!
바로 이거야!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법은
바로, 학생 인권 조례
학생들이 인권 침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2019 아동 모니터링단 '우리 결정했어요'

Made with MANGOBOARD

**경상북도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합니다**
국민청원 게시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owtVrG>

학생인권을 위해 동의 부탁드립니다



우리 결정했어요

“성적차별 없애 평등한 교육기회를”

| 2019-10-28 07:31:31



국민대학교
자동차산업대학원
국민대학교
자동차산업대학원 모집
원서 접수 : 2019.10.14.
(월)부터 11.08.(금)까지
gsaik.kookmin.ac.kr



국제아동인권센터 소속 학생들이 27일 대구 2·28기념 중앙공원에서 ‘교육현장 차별 개선 캠페인’을 벌이며 성적차별 경험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19 아동인권당사자 모니터링 최종활동보고서

| | | | | |
|-------|--------------------|---|---|---|
| 주 제 | 교육현장에서의 성적차별 | | | |
| 모 둠 명 | 칠칠이 | | | |
| 모니터링단 | 김명준, 맹소연, 이은지, 한현진 | 총 | 4 | 명 |
| 코디네이터 | 김예지 | | | |

■ 우리들의 목소리(핵심 메시지)

성적차별은 없어야합니다. 성적이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것은 맞지만 성적으로 학생들을 차별하는 것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알고 성적이 높고 낮음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학생들을 동등하게 대우해주어야 합니다. 성적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이 낮아도 자신의 기준에 따른 성공을 할 수 있고, 성적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비난과 차별이 아닌 용기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아동의 권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모니터링해요!
시험의 정답이 인생의 정답은 아니야!



1. 주제 선택 이유(문제 제기)

현재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주하고 있는 것은 배움이라기보다는 결과주의적인 입시제도다. 학교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수단이 됨에 따라 성적이라는 기준으로 차별을 일삼는 분위기 역시 만연해졌다. 계급, 인종, 성별, 인류 역사에 존재해 왔던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그에 대항하는 투쟁은 그것들이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알려주었으며, 그것들이 자행되지 말아야 할 마땅한 근거를 제시했다. 어느 이유로든, 어느 기준으로든 차별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교실을 지배하고 있는 성적에 대한 차별은 더욱 그렇다. 성적을 기준으로 아이들을 나누는 것이 불합리한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이는 우리 주위에서 심심찮게 보이는 차별이다. 가장 가까운 곳에 존재하기에, 누구나 한번쯤은 겪어봤을, 공감할만한 문제이기에 우리는 이를 관찰하고 해결해야 한다. 아이들은 그 존재자체만으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으며 평등과 정의가 우선되는 세상에서 꿈을 키워나갈 권리가 있다. 우리는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성적에 대한 차별을 모니터링의 주제로 삼고자 했다.

2. 목적

성적차별을 없애고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게끔 만드는 것! 그리고 행복은 성적순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또한 '더 이상 성적차별을 방관하지않은 말자, 차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3. 활동 내용(모니터링 방법)

[청원] 우리는 성적 차별로 인해 학생들이 겪은 피해 또는 상처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해본결과 청원이라는 해결법은 생각해냈다. 그리하여 그동안의 성적에 의한 스트레스로 일어난 청소년 자살 건수,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고통받는지에 대한 결과들을 정확한 수치로 통계 낸 그래프들에 관한 내용과 우리가 생각해 낸 해결방안들을 청원에 올리게 되었다. 비록 청원이 접수될 정도로 많은 동의가 얻어지지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게 된 것 같아 팀원 모두가 부딪힘을 느꼈다.

[설문조사] 성적 차별을 겪은 경험의 유무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만든 설문지를 통해 다양한 연령, 성별, 지역에 따라 어떠한 답변이 나올지 궁금하였고 결과들을 수치로 통계 내어 상황의 심각성을 직접적으로 느껴보고 싶었다. 진솔한 답변들 덕분에 초등학교생부터 고등학교생뿐만 아니라 대학생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을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굿즈제작] 캠페인 활동에서 멈추지 않고 사람들이 성적차별의 심각성을 쉽게 잊지 않게 하도록 위해 성적차별이 없어야한다는 의미의 문구를 담은 텀블러를 제작해 캠페인에 참가해준 시민분들께 나누어 드리게 되었다.

[캠페인] 직접 밖에 나가 시민 분들에게 성적차별을 직접 경험하거나 본 경험이 있는지 조사하고, 이러한 성적차별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뒤, 어떻게 하면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적차별을 직접 경험하거나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없다고 응답하신 분들의 2배 이상으로 집계되었으며, 원인은 학업성적 위주의 사회적 분위기가 가장 큰 원인이었으며, 교사의 잘못된 교육관과 결과중심적인 입시제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선생님들과 사회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사람마다 다른 잠재적 능력을 인정해주는 사회”,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입시주의 사회를 개선해야 한다.” 등의 방식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5. 활동 소감(아동 및 코디네이터)

000

: 이 활동을 하면서 아동인권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성적차별이라는 주제에 대해 활동을 하였는데 성적차별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동일한 인권침해 상황을 겪었다고 해도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설문조사 활동을 통해 성적차별을 겪은 사람들은 생각 이상으로 많다는 것을 느꼈으며 바뀌어야 할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인권이 성인들만의 것이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이라 활동하는 것이 서툴긴 했지만 처음이지만 잘하고 생각보다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000

: 엄마의 권유로 시작한 활동이었지만 팀원들끼리 모여 설문조사를 직접 쓰고 배포하는 과정도 유익한 활동이었고 직접 참여는 못 했지만 캠페인 준비도 정말 많이 재미있고 나 자신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활동이었던 것 같다!

000

: 처음에는 이러한 봉사활동이 처음이고 너무나도 큰 프로젝트인 것 같아 과연 내가 잘해낼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부담스러웠던 것 같다. 하지만 생각보다 즐겁게 해낼 수 있는 활동들도 많았고 시간을 채우기 위해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들보다 훨씬 느끼는 점도 많아졌고 점점 참여하다보니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커지게 되었다. 비록 처음 참여해보는 활동이라 서툴고 부족한 점도 많아서 아쉽지만 내년에도 아동인권모니터링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번 경험을 되새겨 부족하다고 느꼈던 점을 보완하며 더 완벽한 활동을 해내어 좋은 결과를 내고 싶다.

000

: 시간 진짜 빠르다. 코디네이터를 하면서 아마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아닐까 싶다. 아직도 처음 지원서를 쓰고 결과를 기다리던 게 엇그제인 것 같다. 처음 모니터링단을 만나기 전 긴장되던 순간도, 같이 먹고 자며 계획을 세우던 날들도 다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추억이 되어 있었다. 교육봉사, 멘토링을 많이 해왔던 나지만 '아동인권 모니터링'은 모든 것이 새로웠다. 항상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입장이었던 내게 아이들과 무언가를 '같이'

한다는 것, 앞이 아닌 옆에서 그들을 보조한다는 것은 쉽사리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다. 처음 앞으로 해야 할 활동들을 들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앞섰다. 하지만 최종마무리보고서를 쓰는 지금, 우리는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 모든 활동들을 잘 끝마쳤다. 지금에서야 알았지만 '내가' 아니라 '우리여서' 잘해낼 수 있었다.

아이들과 같이 하는 일이 마냥 쉬웠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약속을 잡는 게 어려워 고생하기도 했고 생각대로 결과물이 안 나와서 속상한 적도 있었다. 코디네이터로서 총책임자라는 입장이 부담스러웠던 적도 종종 있었다. 그러나 활동을 시작한 걸 후회해본 적은 없었다. 우리는 많은 일들을 했다. 아동의 인권을 위해 청원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굿즈도 만들고 캠페인도 진행했다. 모두 거창하고 어려워 보이는 일이지만 다 아이들의 손으로 직접 했다. 옆에서 이를 거들면서 힘들고 부담스러운 감정보다 앞섰던 것은 뿌듯함이었다. 나는 전달자보다는 조력자였고 모든 결과물들은 그 어느 것보다 자랑스러웠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지나가 아직도 최종보고서를 쓰는 게 실감이 잘 안난다. 하지만 내 인생에서 목표를 찾고 싶을 때 나는 이를 돌아볼 것이다. 나는 아동 및 가족법 전반을 다루는 인권변호사라는 꿈을 꾸고 있다. 훗날 방향성을 잃었을 때, 마음가짐을 다잡고 싶을 때 2019년에 했던 이 모니터링활동이 내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19 아동인권당사자 모니터링 최종활동보고서

| | | | | |
|-------|----------------------|---|---|---|
| 주 제 | 학업 성적에 의한 차별 | | | |
| 모 둠 명 | PrismKeeper (프리즘 키퍼) | | | |
| 모니터링단 | 조은경, 김나영, 백채은 | 총 | 4 | 명 |
| 코디네이터 | 정희영 | | | |

■ 우리들의 목소리(핵심 메시지)

우리는 아동인권의 당사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학교에 다니면서 겪었던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각자가 느꼈던 차별의 아픔을 나누며 많은 사람들이 학업성적에 대한 차별을 얼마나 겪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학생인권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인권 당사자들이 학업성적에 의한 차별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 차별이 부당하고 납득 되지 못하다는 목소리를 내는 아동은 많지 않음을 알았고 우리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아동인권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했습니다.

아동인권에 대한 홍보활동과 설문조사, 캠페인 활동 등의 여러 가지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목소리가 아동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인식이 바뀌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도출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이번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가장 큰 메시지는 학업성적 차별이 학교 안과 밖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아동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며,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동 인권을 스스로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른들의 노력 없이는 보호받을 수 없음을 알고 아동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아동의 권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모니터링해요!



**우리 힘으로 지키는 아동인권,
우리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1. 주제 선택 이유(문제 제기)

주제: 학업 성적에 의한 차별

PrismKeeper (프리즘 키퍼)에서는 우리 모둠원 모두가 학교에 다니는 만큼 아동들이 학교 생활을 통해 직접 겪거나 들을 수 있는 차별이 학업성적에 의한 차별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느끼는 차별은 학습지도에서뿐만 아니라 지원프로그램 선정과정, 표창장과 장학생 선발 과정, 대회 출전을 제안,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더 좋은 자습실을 제공하는 일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알게 모르게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결과와 성과만을 중시하는 현실에서 아동이 어떠한 차별 속에서 지내고 있는지 인지하고 지금 당장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고 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2. 목적

우리 PrismKeeper(프리즘키퍼)는 교육현장에서 만연하게 발생하는 학업 성적에 의한 차별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획했다. 먼저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우리의 활동 목적을 알리고자 노력했다. 그 다음으로는 카드뉴스를 제작했다. 카드뉴스에는 학생들과 현직 선생님에게 직접 인터뷰를 하여 그 내용을 기재하였다. 또한 캠페인 때 나누어 드릴 프리즘 키퍼 로고가 그려진 스티커를 제작하여 주문하고 캠페인 참여 해주신 모든 분 들게 나누어 드렸다. 캠페인에서는 학업성적차별에 유무와 일어나는 이유를 스티커 투표하였고, 해결방안을 직접 써보는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왜 학업 성적에 의한 차별을 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러한 차별이 사라지지 않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정도의 짧은 시간동안, 우리는 원인 파악에 더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원인 파악을 하기위해 우리는 인터넷 설문조사와 캠페인, 인터뷰를 하였다. 그 결과 학업성적을 당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75명 그러지 않은 사람이 37명으로 나왔다.

3. 활동 내용(모니터링 방법)

| | |
|-------------------|---|
| <p>8월</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문조사 문항 10개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페인에서 오프라인 설문지 배부 결정 2. 인터뷰 대상 선정 및 질문 내용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학생 3. 카드뉴스 제작 및 홍보 방법 논의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뱃지 제작 견적 문의 및 상담 (팀원 4명+설문조사 응답자 63명+오프라인 설문조사 40명 = 총 100개 배부 예상) (카드 문구: 아동들의 다양한 색깔을 지켜주는 프리즘키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주제에 대한 재탐구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적으로 인한 차별이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이유와 해결방안에 대해서 팀원들의 각각의 생각을 다시 정리) 3. 공동 캠페인 논의 (장소, 시간, 활동 계획 및 준비물 구비 방향 등) |
| <p>9월</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캠페인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날짜 및 장소 협의(10월27일 반포한강공원 1시) - 각 팀의 굿즈 제작 내용 공유 2. 캠페인 판넬 문구 내용 논의 및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아동인권 모니터링단 소개 및 각 모둠의 모토 제시 - 학생 자살률 도표(성적 차별 예시) 제시 및 의식개선 문구 선정 - 성적차별의 해결방안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는 포스트잇 판넬 제작 - 스티커 투표 판넬 제작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업성적의 차별 원인 2) 차별의 유무 확인 3. 772조와 역할 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넬 보관, 제작, 기관문의, 거치대 대여 문의 등 |
| <p>10월</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해진 예산 초과로 기존 뱃지를 대체할 스티커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200장의 스티커 - 포장: 4장씩 한 묶음을 개인에게 배부할 예정 1. 캠페인 활동 및 결과 분석 초등학교 5학년부터 학부모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스티커 설문조사 결과, 많은 사람들이 학업 성적에 의한 차별을 겪었음을 파악.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학업성적 위주의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가장 많았음. 실질적인 차별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 과정을 중시하고 학생들의 잠재력을 키워주는 자유가 주어진 환경 및 제도 필요성이 제기됨. |

4. 활동 사진



5. 활동 소감(아동 및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 000〉

반포 한강 공원의 늦은 점심시간, 학생 인권을 지키기 위해 캠페인 활동을 하는 아이들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많은 관심과 집중을 받았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학업 성적’으로 인한 차별을 막아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사실 캠페인 활동이 처음이라 낯설고 두려웠다. 하지만 팀원들과 같이 하다 보니 용기를 얻고 열심히 참여할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캠페인 내용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은 대부분 학생이었고 교육 현장 차별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래서일까, 우리의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는 듯 했다.

스티커 제작, 카드뉴스 제작, 홍보, 설문조사, 인터뷰 등등 다양한 캠페인 사전 준비를 통해 우리는 조금씩 더 성장했다. ‘교육현장에서의 차별’이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되짚어보고 협력하기 시작했다. 아동 모니터링단 팀원들과 뜻을 모아 함께 발전하는 시간이었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다. 또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차별’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가고 서로 공유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나이와 상관없이 각자 차별을 겪었던 아픔을 나누며 우리는 서로의 위안이 되었고, 학생 인권에 대해 고찰하는 유의미한 경험을 했다. 이러한 경험들은 앞으로도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모니터링단 000〉

우리가 학교에 다니는 만큼 아동들이 겪는 가장 흔한 차별이 학업성적차별이라 생각을 해서 학업성적차별을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다. 주제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하면서 팀원과 많은 토의를 나누었는데 결국 자본주의에 문제가 아닐까? 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던 주제였다. 이 홍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차별에 대한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차별이라고 인식할 수 있기를 바라며 캠페인 활동에 참여했다.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여러 학생, 사람들이 받았던 학업성적차별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다. 내 생각보다 사람들이 학업성적차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만이 많았지만 나서서 말하지 못하는 이 사회의 현실이 안타까웠다. 비록 우리의 활동이 작은 목소리일지는 몰라도 이로 인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그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 언젠가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한다.

(최종활동발표회에 우리가 한 활동에 대한 내용과 소감 직접 설명해주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다. 또한 날씨가 평일이어서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이번 주제를 마치고 다른 주제에 대해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제를 선택해 그 활동을 끝까지 이어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활동기간이 부족했던 것 같다.)

〈모니터링단 000〉

아동인권의 당사자로서 아동이 생활하는 도중 겪게 되는 인권침해의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평소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했던 아동들의 인권침해상황을 아동당사자인 우리 눈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의 눈높이에 맞는 해결방안을 제안할 수 있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의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서 아동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들을 수 있어서 매우 뜻 깊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2019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에서 우리모듬(프리즘키피) 언니들과 함께 참여해 봄으로써 평소에는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갔던 것들과 선생님이 하신 행동과 말투, 어른들이 옳지 않은 잣대로 아동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들을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수 있었고 그냥 인권이 아닌 아동인권이라는 분야에 좀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느낀 것과 생각하는 것 그리고 경험한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던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 좋았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허락된다면 좀 더 긴 시간동안 이 주제에 대해 논의해 보고 우리의 노력이 아동인권 의식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각자 다른 학교에서의 학교생활을 하다 보니 함께 하는 시간을 정하는 게 어려웠지만 언니들과 함께 하는 시간도 즐거운 경험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단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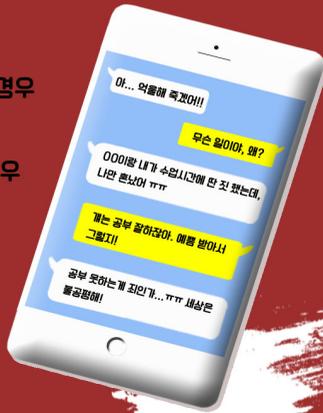
아동인권 모니터링단 활동을 하면서 아동인권 당사자로서 문제의식을 갖고 문제를 발견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겼던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깊은 부딪힘을 느낄 수 있었고, 보람찼던 같다. 하지만 활동 기간이 짧았던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6. 첨부자료

교육 현장에서는
수많은 성적에 의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적에 의한 차별'의 예시

- ▶ 대회 참가 및 입학 선서, 상장 수여 등을 성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 ▶ 성적별 배정 교실에 따른 교사의 자격 및 수준 차이가 있는 경우
- ▶ 성적에 따른 대우가 다른 경우 (교사의 눈빛, 칭찬 여부 등)
- ▶ 성적에 따라서 기숙사 및 자습실 우선 배정하는 경우 등



2019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 PRISM KEEPER

그렇다면 성적에 의한 차별, 인권에 부합할까?

단지 학업 성적 하나만으로
학생들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배제하여 판단하는 것,
이는 '아동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2019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 PRISM KEEPER



혹시

차별을 경험하거나 목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무심코 지나쳤던 학업 성적 차별,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2019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 PRISM KEEPER

현장의 목소리 #1



중학생 백채은 양의 인터뷰 사진

더 이상의 차별은 그만!

"학업 성적 차별은 악의 굴레 같아요"

2019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 PRISM KEEPER

현장의 목소리 #2



다시는 우리들이 겪었던 고통을 학생들이 겪지 않도록...

**"차별이 당연시 된 사회 속에서 성장한
교사들이 먼저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2019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 PRISM KEEPER

현장의 목소리 #3



교육현장 일선인 우리 인권을 위한

당연한 것이 아니다. '차별'이다.

**"학업 성적 차이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아동이 직접 나서서 아동 인권을 지켜야 합니다."**

2019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 PRISM KEEPER



활동

저희 프리즘 키퍼(PRISM KEEPER)는
 성적에 의한 차별에 대해
 더 많은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반포 한강공원 1시 세빛섬 부근
 캠페인과 설문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9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 PRISM KEEPER

교육현장에서의 불편한 진실

차별하는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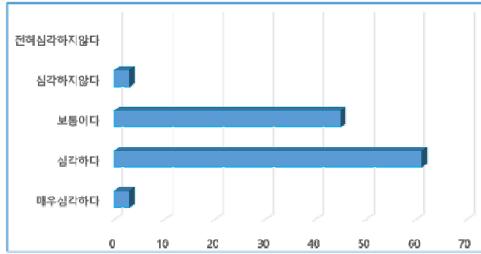




| 설문조사 통계자료 | | | | | | | | | |
|--|--|----|----|------|----|-----|----|-----------|-----|
| <p>1. 당신의 성별은 무엇인가요?</p> <p>① 여자 97명 ② 남자 32명 ③ 대답하고 싶지 않음 3명</p> | <table border="1"> <caption>성별 분포</caption> <thead> <tr> <th>성별</th> <th>인원</th> </tr> </thead> <tbody> <tr> <td>여자</td> <td>97</td> </tr> <tr> <td>남자</td> <td>32</td> </tr> <tr> <td>말하고 싶지 않다</td> <td>3</td> </tr> </tbody> </table> | 성별 | 인원 | 여자 | 97 | 남자 | 32 | 말하고 싶지 않다 | 3 |
| 성별 | 인원 | | | | | | | | |
| 여자 | 97 | | | | | | | | |
| 남자 | 32 | | | | | | | | |
| 말하고 싶지 않다 | 3 | | | | | | | | |
| <p>2. 당신의 소속은 어디인가요? *</p> <p>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7명 ③ 고등학교 105명</p> | <table border="1"> <caption>소속 분포</caption> <thead> <tr> <th>소속</th> <th>인원</th> </tr> </thead> <tbody> <tr> <td>초등학교</td> <td>7</td> </tr> <tr> <td>중학교</td> <td>7</td> </tr> <tr> <td>고등학교</td> <td>105</td> </tr> </tbody> </table> | 소속 | 인원 | 초등학교 | 7 | 중학교 | 7 | 고등학교 | 105 |
| 소속 | 인원 | | | | | | | | |
| 초등학교 | 7 | | | | | | | | |
| 중학교 | 7 | | | | | | | | |
| 고등학교 | 105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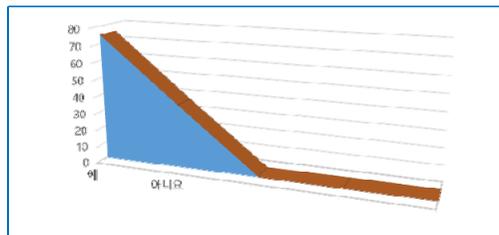
3. 우리나라의 학업성적 차별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① 매우 심각하다 3명
- ② 심각하다 61명
- ③ 보통이다 45명
- ④ 심각하지 않다 3명
- ⑤ 전혀 심각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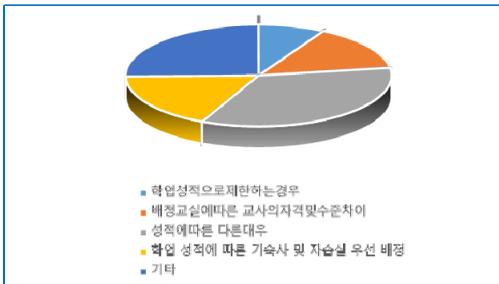
4. 학업성적 차별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으신가요?

- ① 예 75명
- ② 아니요 3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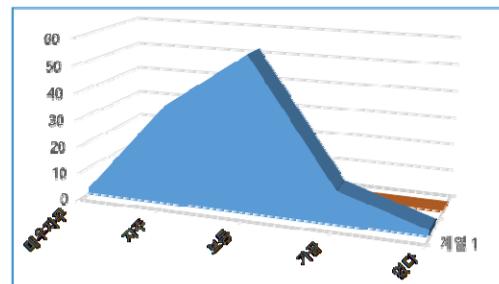
5. 자신이 경험하거나 목격한 학업성적 차별과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주시시오. (중복허용)

- ① 대회 참가 및 입학선서, 상장 수여 등을 학업성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18명
- ② 학업성적 별 배정교실에 따른 교사의 자격 및 수준 차이가 있는 경우 32명
- ③ 학업성적에 따른 대우가 다른 경우 (교사의 눈빛, 칭찬 여부) 76명
- ④ 학업성적에 따른 기숙사 및 자습실 우선 배정의 경우 39명
- ⑤ 기타 5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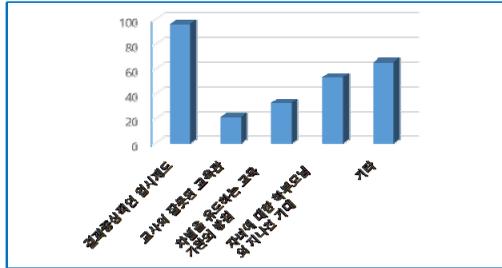
6. 얼마나 자주 학업성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나요?

- ① 매우 자주 1명
- ② 자주 36명
- ③ 보통 58명
- ④ 가끔(일주일에 한 번) 12명
- ⑤ 없다 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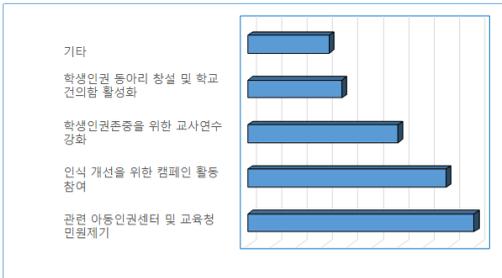
7. 학업성적 차별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중복허용) *

- ① 학업성적 우주의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 82명
- ② 결과중심적인 입시제도 96명
- ③ 교사의 잘못된 교육관 21명
- ④ 차별을 유도하는 교육기관의 방침 32명
- ④ 자녀에 대한 학부모님의 지나친 기대 53명
- ⑤ 기타 6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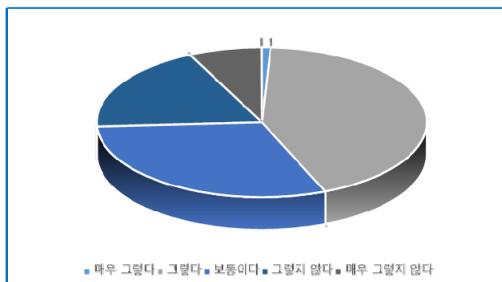
8. 자신이 경험한 학업성적 차별을 대응한 방법, 또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중복허용)

- ① 관련 아동인권센터 및 교육청 민원 제기 89명
- ② 인식(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 참여 78명
- ③ 학생 인권 존중을 위한 교사연수 강화 59명
- ④ 학생 인권 동아리 창설 및 학교 건의함 활성화 37명
- ⑤ 기타 32명



9. 아동인권과 학업성적 차별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① 매우 그렇다. 1명
- ② 그렇다. 48명
- ③ 보통이다. 34명
- ④ 그렇지 않다. 21명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8명



2) 학교 내에서의 차별(4모둠)



- 동학생회 여부에 따른 참여권 제한,
교훈/교가/교명 | 개똥벌레
- 연령 | 아이언맨
- 교칙 | 또치와 아이들
- 교복 | 에버랜드

2019 아동인권당사자 모니터링 최종활동보고서

| | | | | | | |
|-------|---|---|---|---|--|--|
| 주 제 | 아동 교육 속 차별 : ‘학교명, 교가, 교훈 속에 담긴 차별’과 ‘비학생회와 학생회의 차별’에 관하여 | | | | | |
| 모 둠 명 | 개똥벌레 | | | | | |
| 모니터링단 | 강연수, 서예은, 정다린, 이수빈, 이정우, 홍록기 | 총 | 6 | 명 | | |
| 코디네이터 | 유의정 | | | | | |

■ 우리들의 목소리(핵심 메시지)

우리 개똥벌레조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아동들의 주체성과 존엄성을 해치는 차별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문제를 찾아내고 싶었다. 이에 우리는 ‘당연하다고 넘어갔던 것’들을 찬찬히 살펴보고 확인해보았다. 해서 ‘학교명 교가, 교훈’에 성차별적 문구들이 있다는 것과 ‘비학생회와 학생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찾아냈다. 우리가 발견한 차별을 조사하고, 차별에 관한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보고자 설문조사를 하고, 학교명과 교가, 교훈의 성차별적 문제를 알리는 홍보포스터를 만들었다. 또 우리는 그 차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알리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핵심메세지에 우리의 주장이나 결과가 있다기 보다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해 나아가려는 과정들이 우리의 목소리인 것 같다.

대한민국 아동의 권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모니터링해요!

보이지 않는 학교 속 차별 -
학교명, 교가, 교훈과 학생회-비학생회의 차별



1. 주제 선택 이유(문제 제기)

1. 학교명, 교훈, 교가 속 차별

우리는 학교의 명칭, 교가, 교훈 속에 드러나는 차별에 대하여 모니터링단 활동을 하였다. 셋은 거시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하기에도 편리할 것이라 생각하였고, 이미 많은 학생들이 불합리함에 대해 생각해보았을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선택하였다. 또한 눈에 보이는 만큼 우리 사회에서 차별이 만연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게 다가왔다. 따라서 우리는 남학교에서는 성별을 드러내지 않고 여학교에서만 '여성'이라는 성별을 드러내는 점, 교훈과 교가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성역할 고정관념을 부여하고, 여자다움과 남자다움의 범위를 강요하게 만드는 점을 주목하였다.

2. 학생회와 비학생회의 차별

그동안 학생회가 가지는 권력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를 면밀히 살펴보니 잘못된 점들이 보였다. 우선 비학생회 아동도 교육의 주체로서 의견을 낼 수 있어야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더 조사해보고 싶었다. 또한, 전교회장과 전교부회장이 학생회 전원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이러한 점들을 더 탐구하고, 더 구체적 차별이유를 밝히고 싶었다. 또한, 나름의 해결방안을 마련해보고 싶었다.

2. 목적

저희는 뚜렷이 보이지는 않지만, 교육 과정 속 만연히 행해지는 차별을 찾고 싶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무심코 넘어간 차별들,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의 주체성과 존엄성을 해치는 차별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현장의 당사자로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차근차근 되짚어보았습니다.

우리는 ‘학교명, 교가, 교훈’과 ‘비학생회와 학생회 사이’의 차별을 조사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성성, 남성성을 강조하는 교가나 교훈부터 비학생회 학생들에게 은연하게 적용되는 차별들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전부 바꿀 수 없더라도, 교육을 받는 당사자, 아동 인권의 당사자인 저희가 직접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책을 내보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자율성, 소통을 원칙으로 세우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최대한 아동들의 목소리를 많이 담기 위해 설문조사의 방법을 사용했고, 문헌조사, 인터뷰 등을 동원해 문제를 찾으려 했습니다. 또한 포스터나 영상을 제작 후 공유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 상황을 인식할 수 있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세운 원칙하에 나름대로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3. 활동 내용(모니터링 방법)

9월 : 캠프 때 세운 주제를 더욱 구체화했다. 캠프 때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던 문제에 대해 더 생각해보자.'라는 추상적 주제만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오프라인 회의를 통해서 만나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했다. 그러다가 나온 것이 우리의 주제 '교명, 교가, 교훈에서의 차별'과 '학생회와 비학생회의 차별'이다.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갔던 것들인데, 팀원들과 말하다보니 다들 부당하다고 느낀 점들이 있었다. 우리는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서 팀을 두 팀으로 나눴다. 자료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고서를 쓰고, 나름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의 목표를 잡았다. 우선 9월은 자료 조사를 하기로 하고 마무리 지었다. 우리는 책과 논문, 법 조항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구체화했다.

10월 : 자료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더욱 구체적 조사와 해결방안을 마련하려 했다. 우리는 처음 생각했던 것 이상이나 주제에 관련해 많은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친구들의 목소리를 더 듣고 싶었다.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다. 설문조사 문항을 만들고,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알리고 싶어서 인식 개선 SNS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넣기로 했다. 설문조사 문항은 다 만든 후, 우리 팀원들에 의해서 온라인상으로 배포됐다. 우리는 설문조사 결과를 다시 취합, 분석했다. 설문조사 내용도 대부분 우리의 주장과 일치했다. 이 내용을 보고서에 넣고 이를 토대로 포스터를 만들어 인식 개선 캠페인을 펼쳤다.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상은 유튜브에 공유했다.

11월 : 그동안 만들어진 것을 바탕으로 마무리를 했다. 우선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논문 형식으로, 우리의 경험을 담되 문제를 지적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마지막으로 소감을 적고 우리의 경험을 구체화했다.

4. 활동 사진



5. 활동 소감(아동 및 코디네이터)

OOO : 아동인권모니터링. 그저 의미 있게 방학을 보내고 봉사시간도 주는 캠프였기에 망설임 없이 신청했다. 하지만 이 활동을 통해 얻은 것들은 내가 지원했던 목적 그 이상의 것들이었다. 사회에서 쉽게 보이지만 인식하기에는 어려운 차별적 표현들에 대해 알고 아동 인권 침해 사례와 다양한 아동 관련법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교육을 받는 것은 더 없이 좋은 기회였다.

우리 조에서 정한 주제는 학생회와 비학생회 사이의 차별이었다. 중고등학교를 합쳐 3년이라는 시간동안 학생회를 하면서 느낀 점이 많았기에 흥미가 생기는 주제였다. 내가 학생회 활동을 자부심을 갖고 즐기면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체육대회, 학교축제에 있어서 기획, 홍보, 진행까지 맡아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학생회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런 활동을 할, 아니 이런 활동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기에 설문조사나 영상 제작에 있어 비학생회 입장으로 임하기 위해 노력했고 남은 고등학교의 학생회 생활에 있어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정보 전달과 의견 반영에 힘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을 만나 친목을 다지고 주제 탐구를 하며 뿌듯한 2019년 하반기를 보낼 수 있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나라 법 중 아동을 차별하는 표현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정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고 싶다. 또한 대학생이 되어 코디네이터로서 유의정쌤처럼 아이들을 잘 이끌어 훌륭한 팀을 만들어 나가고픈 욕심도 생겼다. 깊이 있게 연구하고 조사해서 많은 사람들과 결과물을 공유하는 발표회 자리를 갖는 기회가 나에게 꼭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의 이러한 활동들이 '존중'이 당연하게 지켜지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잡아보았다.

OOO : 내가 직접 우리 학교 친구들 외에 여러 동생, 쌤과 인권 모니터링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참 흥미로웠고 색달랐다. 우리 조의 주제는 학생회와 비학생회의 차별과 학교명, 교훈, 교가 속 차별이었다. 학생회와 비학생회의 차별은 평소에 한번쯤은 다뤄봤으면 좋겠다 싶은 문제였는데 이번에 다루게 되어서 좋았고 몰랐던 점을 많이 알 수 있었다. 생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주제여서 깊이 파악하긴 어려웠지만 설문조사를 하며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학교명, 교가, 교훈에 관한 문제는 꽤나 학교 현장에서 많이 지적되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깊게 생각하지 않는 문제였다. 따라서 이번 활동을 하면서 포스터를 제작하여 여러 사람들이 이 차별 문제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학생인권조례를 직접 분석해보고 인권조례에 학교 현장에서 인권조례에 어긋나는 일은 없는지 조사해보고 싶다. 앞으로 아동인권모니터링단으로서

활동한 경험은 나에게 있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우리끼리 직접 활동을 기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우리 사회를 위해 학생으로서 조금이나마 기여한 것 같아 뿌듯하다. 대학생이 되면 시간을 많이 들여서 조금 더 깊이 있고, 구체적으로 주제를 정해서 모니터링 활동을 해보고 싶다.

비슷한 나이대의 학생들과 함께 해서 모니터링단 활동 외에도 서로 간의 고민거리나 이야기 거리가 잘 통해서 정말 좋았다. 또한 학교 외에서 나와 꿈이 비슷하고 관심분야가 비슷한 친구들을 만나서 참 든든했다. 모니터링단 활동이라는 것이 정해지고 분명한 것이 없어서 가끔 갈피를 잡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전문 분야를 전공중이신 코디네이터 쌤과 함께해서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다들 학생인지라 주로 주말에만 시간을 내서 만나야했는데 이마저도 시험기간이 각자 달라 자주 모이지 못했던 점이 아쉬웠다. 하지만 우리끼리 협의해서 시간을 조절하고 카페에서 맛있는 다과를 즐기며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어서 좋았다. 다음 모니터링단 활동에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으면 좋겠고, 발표회가 방학 때로 잡혔다면 많은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의 아동으로서 우리나라의 아동인권증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활동에 참여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다양한 상황에 있는 아동들이 이 활동에 참여하며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OOO : 처음에는 정말 가볍게 지나갔던 문제들이었다. 학생회와 비학생회와의 차별, 교훈 교과속 차별 등.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 우리의 일상에 많은 차별이 있다는 것은 몰랐을 것이다. 솔직히 잘 알지 못했다. 어떤 것이 차별이고, 그것이 왜 차별인지.

아동인권모니터링캠프에서 강의를 듣고 난 뒤,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현장속의 차별에 대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 한번은 학교축제가 열렸다. '학교축제'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의견 없이 학생회와 선생님들의 의견만으로 학교행사의 모든 기획과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에게는 학교의 어떤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지 알 기회조차 없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무엇이 나의 알권리와 자유를 가로막고 있었고, 그 무엇이 차별이라는 것을. 이제 나는 차별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나는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 '차별'이라는 것을 알려야 했다. 이에 우리 조는 학생회와 비학생회와의 차별에 관한 설문지를 만들었고, 배포했다. 또한, 우리는 학교명, 교가, 교훈에 대한 차별을 알리는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 홍보 했다.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못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것이 차별이라는 것을 알리려는건 매우 한정적이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해 얻은 것은 정말 컸다. 여러 모니터링단을 만나면서 배우고, 알게 된 것이 많았다. 이곳에서 얻은 많은것들은 내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앞으로 차별에 대한 활동이 있다면 다시 참여하고 싶다. 우리 조원들, 그리고 코디네이터 선생님까지 너무 고생

하고 수고해준 것 같다.

OOO : 이번 아동인권당사자 모니터링을 하면서 나는 많은 점을 느꼈다. 먼저, 이 활동을 하면서 만나게 된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하고 싶다. 우리 팀원 하나하나, 그리고 우리 선생님. 즐겁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준 모니터링 활동의 모든 인연들에게 고맙고 앞으로도 잘 지내고 싶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우리 조는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다른 조보다 화목하고 사이 좋았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연말까지 계속 유지해주고 갈등 한 번 일으킨 적 없는 우리 '개똥벌레' 팀이 너무 자랑스럽다.

· 그리고 우리가 활동해온 과정들을 되돌아보면서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난 회의들이 아니었을까. 온라인으로 오래전부터 많은 협의를 통해 오프라인 회의 약속을 잡고, 그 시간을 기다리며 많은 자료 조사를 했다. 자료조사를 하는 와중에 오프라인 회의를 하면서 어떤 의견을 말할지, 어떤 식으로 내 자료를 소개할 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아동인권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다.

· 앞으로도 나는 아동인권 관련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사실, 16년도부터 시작된 내 아동권리 관련 활동은 나를 바꾸었다. 내 진로가 어떤 것인지, 내 흥미가 어떤 것이고 나는 어떤 활동을 좋아하는 지에 대해 알려주었고, 리더로 행동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그 만큼 내가 하고 있는 아동인권당사자 모니터링 활동은 중요했고 이 활동을 통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OOO : 우리 조에서 선정한 주제 중 내가 담당한 주제는 <<교명, 교가, 교훈에서 찾을 수 있는 차별>> 이었다. 원래도 나는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학교들의 명칭, 교가, 교훈에 무수한 차별이 현존함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결론을 도출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절실히 깨달았고, 개선점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교명과 교가, 교훈에서 유독 눈에 띄게 찾아볼 수 있는 차별은 바로 성차별이었다. 성 고정관념을 없애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도 철폐하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형성되고 있는 와중에 교육 현장의 가르침에는 시대착오적인 성차별의 만연함을 확인했기에 성차별을 포함한 각종 차별이 없는 사회가 도래는 멀었음을 실감했다.

교명과 교가, 교훈은 학교의 정체성이자 상징이며, 또 학교의 교육 이념과 목표를 나타내는데 여기에 차별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은 학교가 성차별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 이상 어불성설이다.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몸담고 있는 곳이 바로 학교이고, 학교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받을 수 밖에 없다. 학생들에게 성차별적 인식을 대물림하여 차별의 근원지가

되는 것 대신에 학교의 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남아있는 이러한 차별 요소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제 선정에서부터 역할 분담, 자료 선정, 결과물 완성까지 모두가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활동”의 목적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우리의 활동 과정이 더욱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서로 연고는 없을지라도 아동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 내고 싶다는 공통분모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고, 그 공통분모를 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함께 행동할 수 있었던 것 자체로도 이 프로그램은 내게 충분히 가치있었다.

소중한 인연과 경험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동 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권리주체자로서 참여한 것은 앞으로도 유의미한 기억으로 남아 내게 많은 영향을 줄 것 같다. 이 모든 기회를 제공해주 분들께 감사드리며, 좋은 기억을 선물해준 조원들께도 짧은 기간이지만 무척이나 수고하였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OOO : 아동인권모니터링단을 통해서 우리조는 일상생활에 차별받고 있는 학생들에 대하여 어떤 부분에서 차별을 받고, 피해를 입는지 알아보고 해결책을 생각해보며, 설문조사를 통해 다른 학생들의 생각을 묻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평소에 학교 교가나 교훈 등에서도 성적인 차별을 느낄 수 있기하고, 학생회와 비학생회와의 차이에서 학교 행사나 회의 등 학교에 중요한 행사들의 참여율이나 기획하는 점에 대한 차별등도 생각해 보았다. 그렇게 직접 회의를 통해 정리하고, 설문조사를 하며, 보고서도 쓰고, 포스터와 영상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알리고, 이를 고칠 수 있게 건의하고, 국민청원을 통해 고칠 수 있게 하기위해 목적을두고 몇개월간 열심히 활동하였습니다!! 아동을 위해 여러 학상들을 위해 직접 활동하여 문제점을 고쳐나갔다는 점에서 부듯하고,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대외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참여를 원합니다. 이런 부분을 학생들끼리 직접 생각해보고 문제점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 감동을 받고,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OOO : 개똥벌레 아이들과 함께 교육 현장에서의 차별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개똥벌레 아동들이 너무 귀엽고 착해서 활동하는 내내 행복했다. 물론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많고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라 학기 중에 시간을 많이 내기 어려워서 힘들었던 점이 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자율적으로 재밌게 활동을 했던 것 같아서 만족스럽다. 멋진 아이들한테 배우는 점도 많았다.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바블 텐데도 시간을 내서 영상을 만들어준 OOO, 우리 팀 귀여운 담당 OOO, 카리스마 설문조사의 여왕 OOO, 모범사례를 알려준 귀여운 OOO,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준 OOO,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멋지게 팀을 잘 이끌어준 책임감 넘치고 섬세한 우리 조 팀장 OOO 모두 고맙다.

또한, 국제아동인권센터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이 활동은 꼭 엄청난 결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보다는 활동하는 과정이 즐겁고 인권이 지켜지는 과정이 되어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다른 인권 관련 기관에서 대외활동을 할 때, 그 안에서 일하는 대학생들을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는, 이른바 열정페이로 착취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 곳에서 일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활동하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 그 부분에 항상 노력해주신 관계자 분들께 감사하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인권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던 시간이었다. 인권변호사가 되는 것이 꿈이기에 아이들과 함께 인권을 살펴보는 일은 더욱 뜻 깊었다. 다만, 개강을 한 후 바빠져서 이 활동에 더 열심히 힘을 쏟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있다. 그렇지만 주어진 상황 안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좋은 기회를 갖게 해주신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말로 글을 마무리하겠다.

6. 첨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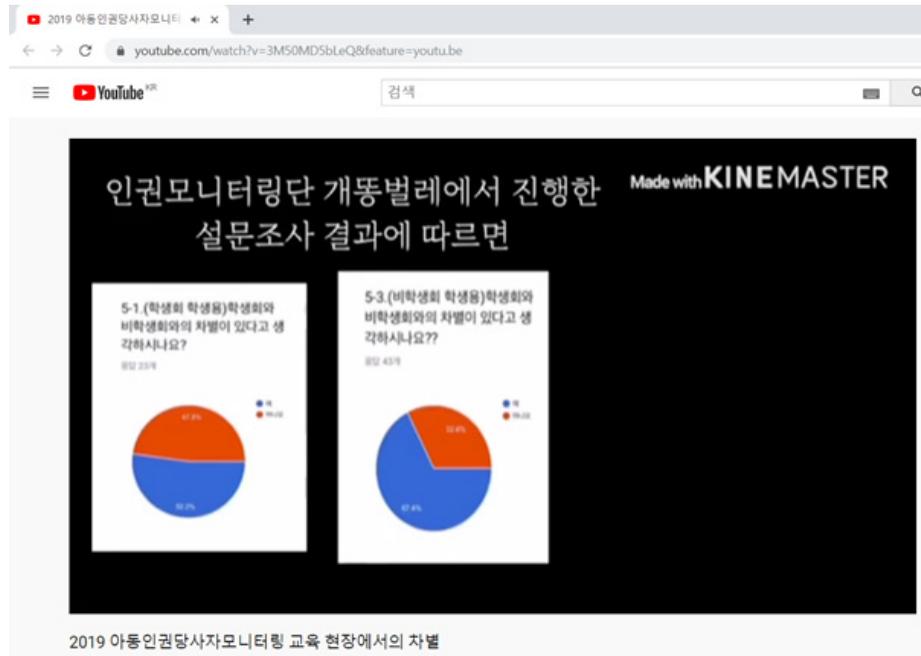
<활동내역>

1. 최종보고서
2. 청와대 국민청원



3.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3>



4. 인식 개선 포스터 및 SNS 인식 개선 캠페인



교육현장에서의 차별

학교명·교가·교훈 속 차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학교명에서 드러나는 차별

○○대학교 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 같은 학교 같은 재단... 그러나 남자 고등학교는 '그냥'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는 '여자' 고등학교?



학교명이 중립되는 경우, 남성의 성별을 동시에 드러내고 학교명에 '남/녀' 라는 단어가 명칭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교훈 속에서 드러나는 차별

| | | | |
|---|--|--|--|
| <p>'순결', '정숙', '예절', '배려'</p> <p>정적이고 과거지향적</p> |  <p>149개 공립여고 교훈 분석</p> |  <p>168개 공립남고 교훈 분석</p> | <p>'단결', '승기', '개척', '책임'</p> <p>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p> |
|---|--|--|--|

학교의 교훈은 특정한 단어들로 여성/ 남성이 각각 드러나 할 고유한 미덕과 가치를 제시하고, 학생들은 어피다음/ 남피다음의 범위를 자연스럽게 정립하게 됩니다.

교가 속에서 드러나는 차별

| | | |
|---|---|---|
| <p>여성, 향기, 딸, 꽃송이, 무궁화, 백합, 일꾼, 큰아기...</p> <p>교가에서 여학생들은 여성으로서 대상화 되는 것에 그칩니다. 학생이라기보다는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는 것이지요.</p> |  | <p>학도, 젊음, 건아, 젊은이, 향기, 일꾼, 아들, 인류, 인재...</p> <p>남학생은 성역할이 없는 학생(개인으로서 주로 대상화되어) 책임감을 강조하는 언어로 비유됩니다.</p> |
|---|---|---|

2019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교육현장에서의 차별, 개통빌레조

© darin

2019 아동인권당사자 모니터링 최종활동보고서

| | | | | | |
|-------|--------------------------------|---|---|---|--|
| 주 제 |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인식하지 못하는 차별을 인식시키기 | | | | |
| 모 둠 명 | 아이언맨 | | | | |
| 모니터링단 | 박지우, 박건우, 남다현, 신가현, 이다현 | 총 | 5 | 명 | |
| 코디네이터 | 오윤서 | | | | |

■ 우리들의 목소리(핵심 메시지)

아동은 소수이지만 아직 소수라는 인식이 부족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태입니다. 아동 권리 신장을 위해 그 권리의 주체자인 아동이 직접 나서 아동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시작한 활동이 바로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입니다. 저희 2조 아이언맨 조는 이러한 모니터링단의 취지와 목적에 핵심 가치를 둔, 즉 아이언맨이 세상을 보호하듯 세상의 모든 ‘아이’를 보호하겠다는 신념으로 발단된 조입니다. 이 중심 가치와 대주제인 교육현장에서의 차별을 융합하여 저희는 ‘학교에서 인식을 못한 채 은근하게 벌어지는 연령에 따른 차별’을 주제로 활동하였습니다. 권리가 존중되는 학교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저희는 공통적으로 교권과 모든 학생의 인권이 동등하게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고, 몰랐던 차별들을 드러내고 올바른 인권 의식 함양을 위해 캠페인과 설문조사, 인터뷰 진행 및 카드뉴스 게재 등을 통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나아가 정책적으로도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주기적이고 질 높은 인권 교육에 관한 정책제안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아이언맨조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이 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조원들로 이루어져 있기에, 최종활동보고서 작성이 끝난 이후에도 아동센터에 직접 가서 인권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며 바른 인권 의식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모든 새싹들이 그림자가 아닌 햇볕을 쬐 때까지 노력하는 저희는 아이언맨 조입니다!

대한민국 아동의 권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모니터링해요!
(모든 새싹들이 그림자가 아닌 햇볕을 쬐 때까지
노력하는 저희는 아이언맨 조입니다!)



1. 주제 선택 이유(문제 제기)

학생으로서 교육현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차별을 받고서도 대처하지 못하거나 차별인지조차 모르는 학생들을 보고 학생들에게 당신이 받은 것이 차별이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려주려고 이 주제로 선정하였다. 차별을 받은 학생은 아예 자신이 받은 차별이 차별인지 몰라서 대처를 못하거나 차별인지를 알아도 대처방법을 모르거나 대처함으로써 자신에게 패해가 올 것 이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다. 교육자는 학생들에게 성적(성별)차별을 하거나 성적을 놓고 성적이 좋은 학생과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을 다른 대우를 한다. 학생의 나이로 차별적인 대우를 하기도 한다. 교육자가 하는 차별뿐만 아니라 학생이 학생에게 하는 차별은 일상생활에서 고착화된 차별이기 때문에 차별인지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차별하곤 한다. 이렇게 학생들은 고착화된 고정관념 관료주의, 위계질서 등에 관련된 차별을 교육현장에서 받고 있다. 이런 차별로 인해 학생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 차별이 있어선 안 되는 교육현장에서 차별이 있는 것은 차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도 생각하였다.

2. 목적

제일 많은 시간동안 학생들이 있는 교육현장인 학교 내에서 흔히 일어나는 차별을 보다 많은 학생들이 부당성을 느끼고 차별인 점을 인식하여 더 나아가 권리의식이 생겨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많이 겪지만 제일 모르는 차별인 '학교 내 위계질서와 관료주의의 부당성'을 주제로 정했다. 인터뷰, 캠페인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다.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인권에 대해 알지 못하고 존중받는 방법에 대해 모른다. 마지막 활동인 정책제안서를 통해 인권교육이 의무적으로 교과 규정의 하나로 자리 잡혀 학생 스스로가 갖는 권리의식이 생겨나야 할 것이다.

차별 인식은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받고 스스로 차별임을 감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차별을 인식함으로써 학생이 학생에게 하는 고착화된 차별을 예방한다. 그리고 교육현장에 노출 되어 있는 교육자들까지 차별을 인식 시켜서 교육현장에서 자신이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차별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은 자신 스스로도 차별을 하지 않으려고 조심할 수 있다. 조심함으로써 차별을 하는 것을 예방하여 결과적으로 차별이 없는 모두가 같은 대우를 받는 교육현장이 되고 별이 있더라도 그것이 차별임을 당당하게 밝혀서 차별이 줄어들도록 한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차별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이 활동의 목적으로 한다.

3. 활동 내용(모니터링 방법)

8월,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차별을 각자 조사했다. 차별의 개념, 자신이 겪은 차별, 보거나 들은 차별을 정리했다. 또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캠페인을 정확히 구상했다. 엽서 디자인의 대략적 틀을 잡았다. 배경 이미지를 찾고 문구를 선정했다.

9월, 캠페인에서 활용할 엽서 디자인을 완성했다. 엽서는 인권에 대한 핵심을 담은 문구를 넣었다. 이후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 몇 시간 전 스터디카페에서 캠페인에서 활용할 피켓 제작과 정확한 계획을 세웠다. 장소는 혜화역 출구에서 10대~20대 이상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자신이 받은 차별 설문조사, 엽서 배포를 진행했다.

캠페인 이후에는 각자 선생님, 학생,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내용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차별의 인식, 해결방안 등이었다. 인터뷰는 PDF파일로 취합하기로 했다.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SNS에 업로드 할 카드뉴스를 만들기로 했다.

10월, 카드뉴스 제작 작업을 했다. 카드뉴스에 들어갈 인터뷰 내용을 정확히 정리하고 입력했다.

이후 모임에서 카드뉴스 제작을 완료했고 인터뷰집에 목차를 달고 페이지를 편집했다. 사전에 작성한 제안서를 취합하고 종료했다. 인터뷰집과 정책 제안서는 추후 코디님이 SNS와 교육청에 기재하기로 했다.

4. 활동 사진



5. 활동 소감(아동 및 코디네이터)

- 000 : ‘무슨 고등학교 2학년이 아동이니?’, ‘한창 공부해야 될 시기에 무슨 권리 옹호야?’라며 저희 부모님마저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이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제 나이가 학업에 열중하며 사회가 돌아가는 것에는 눈과 귀를 닫는 시기보단, 아동으로서 아동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시기라고 생각했기에, 이번 모니터링단 활동 또한 아동이라는 권리주체자의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고 뜻 깊었습니다. 실제로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를 제가 아는 모든 전국의 친구들에게 돌렸던 활동의 초반부터 지금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마지막 무렵까지 대한민국 아동을 대표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할 수 있어서 너무 뿌듯하고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도 이 활동에 참여하셨던 저희 선배를 보며 정말 아동인권옹호가로서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하였고, 후에 국제변호사가 되어 세계적으로 아동의 인권을 옹호하고 싶은 저로서도 내년에 다시 참가하고 싶을 만큼 조원과 활동한 활동 하나하나가 새로웠으면서 기뻐했습니다. 이 작은 캠페인과 소소한 활동들이 의미가 있을까, 싶으면서도 실제로 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시는 많은 시민 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아동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이 모니터링단은 최고의 활동이었던 것 같고, 많은 친구들과 코디네이터 선생님들도 알게 되면서 공감과 위안도 많이 되어, 2019년 하반기 동안 가장 기억에 남을 활동일 것 같습니다.

- 000 : 당사자 모니터링을 시작할 때 누나에게 듣고 함께 신청하게 되었는데 이런 인권 캠프가 처음이어서 인권에 대해서 잘 몰랐었다. 하지만 같은 조 조원들이 잘 알려줘서 활동하기 수월해지고 더욱 잘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캠프를 통해 인권에 대해 잘 알게 되고 관심도 가지게 되어 좋았다. 캠프 이후에 같은 조 조원들과 모임을 가지며 우리 청소년들의 인권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도 알게 되고 청소년 인권의 중요성과 지금 청소년 인권이 얼마나 침해되고 있으며 먼 이야기가 아니라 내 주변 나까지 해당되는 문제라는 것을 활동을 하며 몸소 느끼게 되었다. 활동을 해보니 내가 청소년 인권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았다. 청소년 인권에 관련된 캠페인을 하거나 정책제안 등을 할 수 있었다. 일상 생활에서는 교육환경에 노출되어있는 학생으로서 교육자가 학생의 인권을 차별을 통해 침해할 때 학생에게 대처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고 학생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때는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다. 확실히 이 인권 활동을 하며 인권에 관심이 생기면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다고 느꼈다. 이런 학생들 에게 인권에 대해 알려주고 싶고 그러기 위해 인권에 대한 활동을 더 해보고 싶다. 우리의 삶에 인권이 상당히 큰 부분이고 인권

이 없으면 힘들 정도로 삶과 밀접해 있다고 느꼈다. 조원들과 매달 2번씩 만나서 모임을 가지는데 모임을 할 때 항상 좋은 분위기로 활동을 해서 좋았다 의견도 잘 내고 의견 취합도 잘 되었다 그리고 다음 모임을 계획 할 때도 편하게 할 수 있었다. 조원들끼리 더욱 친해지고 좋은 결과로 활동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번 캠프, 활동을 통해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좋았고 앞으로도 인권과 관련된 활동이 있다면 신청하여 활동하고 싶다.

- 000 : 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은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검색하다가 알게 되었다. 작년, 모니터링단의 활동은 정말 의미 있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하고 싶었고 하게 되었다. 처음 모니터링단 캠프에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차별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다. 모니터링단에서 조원들과 처음 만났을 때와 룸메이트들과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어색하고 낯설었다. 하지만 함께 활동을 하며 모르는 사람과 의견을 나누고 이해하는 법 배울 수 있었다. 활동은 캠페인, 인터뷰, 설문조사 등의 활동을 했다. 캠페인을 준비하며 실제 사례를 많이 조사했다. 사례들을 보며 아동의 인권은 생각보다 많이 무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조금이라도 이를 변화시키고 싶었다.

캠페인에서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의 질문은 학교에서 받는 차별 경험이었다. 사람들은 자신이 당한 차별에 스티커를 붙였다. 10대부터 20대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티커를 붙였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차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진보하지 않는 사회와 그것을 방조하는 사람들에 놀랐다. 우리가 지금처럼 방조하고 나아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동인권은 나아지지 않는다. 인터뷰를 하면서 사람들은 생각보다 둔감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인터뷰를 하면서 지적하니 놀라며 앞으로 고치고 싶다고 말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나는 여기서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노력하며 차별을 찾는다면 세상은 분명 변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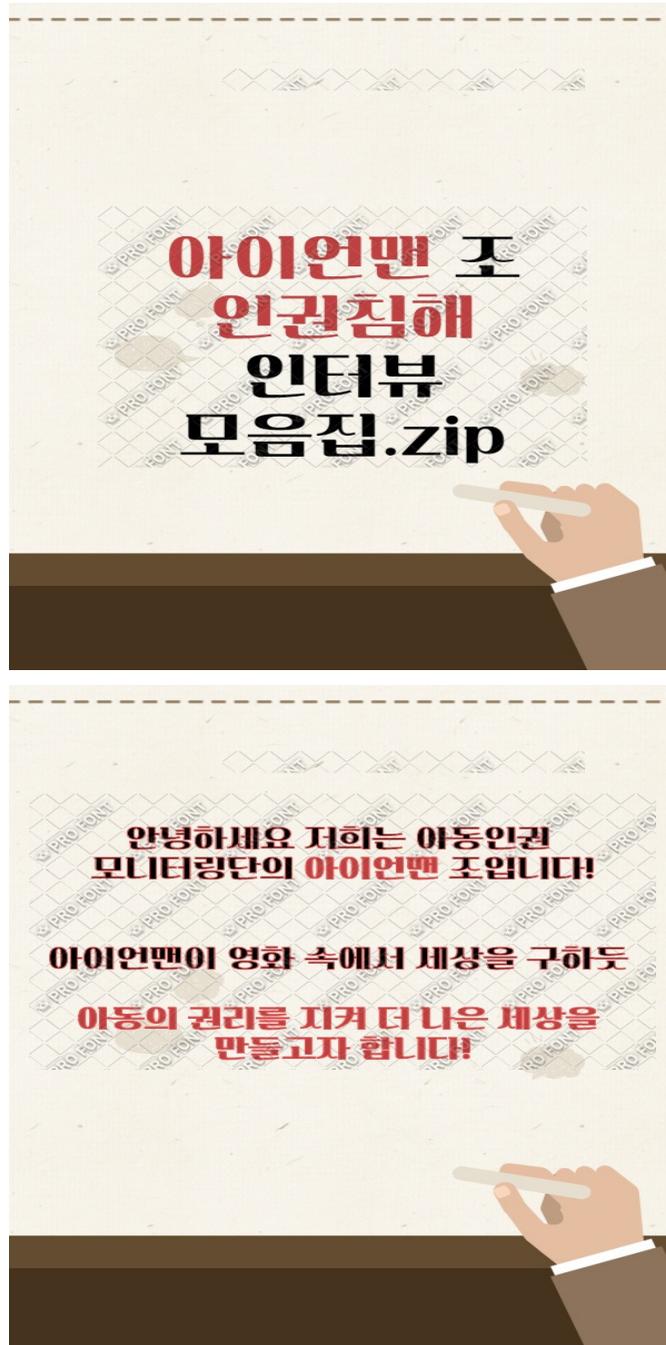
이 활동 모두는 나에게 진로를 다시 고민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전에는 단순히 '약자들은 차별받는다.'라고 알고 있었다면 '약자들은 차별받고 있고, 변화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많다.'라는 것이다. 나는 내가 꿈을 이뤄서 정확히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내년에도 기회가 된다면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

- 000 : 아동인권모니터링활동을 자그마치 3개월 동안 했는데 제일 큰 변화를 꼽자면 '인권'에 대해 더 날카로워졌다는 것이다. 학교나, 학교 밖에서 성차별이나 무시하는 듯 한 발언을 들을 때 마다 나서서 바른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려하면 1초 만에 '뭐하는 짓이야.' 하면서 자책하면서 더 나은 내가 되려고 한다. 30분~1시간 이동해서 만난 아이언맨팀은 너무 좋았다. 코디와 모니터링단의 합이 너무 좋았고 하나하나 해나갈 때마다 부듯했다. 사실 이렇게 지역별로 모여 정기적으로 무

엇을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관심 있는 인권차별 주제 한 가지를 정해 토의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의미 있고 매 활동이 즐거웠다. 우리 조는 학교 내 위계질서와 관료주의의 부당성을 주제로 활동했는데 문제점들이 흔히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더 큰 안타까움은 이러한 것들이 차별인지, 부당한건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런 것에 있어서 내가 한 활동이 지나가는 사람들, 친구들에게 멈추어서 조금이라도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역할 등 분명히 내가 한 활동은 의미가 있지만 정책이나 정부의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 000 : 국제아동인권 모니터링단 활동을 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인권에 대한 기본 인식이 올바르게 심어져 있지 않아서 놀랐다. 이 활동을 통하여 아동인권 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심어져 뿌듯했고 이런 인식들을 더 널리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훼손하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점에서 굉장히 뿌듯하게 느껴졌다. 우리 주변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도 많은 인권침해 관련 일들이 벌어지지만 우리들은 그 행위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 인간으로써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받는 사회가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다. 또한 우리 조의 많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6. 첨부자료



—선생님 인터뷰—

**권리를 존중하는 학교가 되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나요?**

권리를 존중하는 학교가 되려면 선생님
과 학생이 '서로' 이해하고 학생과 학생
들도 '서로'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용의복장만 해도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
는 것이 아닌 학생이 학교의 교복을 제
대로 입고 착용 지도하는 것이고 그림으로
써 학교의 질서를 만드는 것



—선생님 인터뷰—

**권리를 존중하는 학교가 되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나요?**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가 누군가의 권리
를 보장하면 내권리가 줄어든다는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권리는 총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
릴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가야 하고 내
권리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권리
를 존중할 수 있고 모두가 더불어 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특히 권리가 취약
한 이들을 위한 더 많은 노력과 관심
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생 인터뷰-

권리를 존중하는 학교가 되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나요?

학교 내 전체적인 분위기가 학생들이 의견이 선생님들에게 중요하고 최대한 수용 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선 최소한 학생들이 의견을 말하면 경청을 해주는 자세를 선생님들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존중하는 교육을 받아야한다.



-학생 인터뷰-

자신이 얼마나 권리의 주체가 되서 살고있다고 생각하나요?

차별이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제공받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명명을 하진 못하겠으나 이런일을 당하거나 들었을 때, 목격했을 때 억울함과 부당함, 불공평함을 느끼긴 했다.

'차별'이라고 생각하기 보단 의문을 갖게 만들었던 것 같다. 그러나 내년에 우리가 저 위치에 있고 권리를 누릴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참은 적이 ㅁ냥은 것 같고, 나서기도 무서워서 대처를 잘 못한 것 같다.



-학생 인터뷰-

자신이 얼마나 권리의 주체가 돼서 살고있다고 생각하나요?

평소에 차별적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거나 나와 가치관이 맞지 안다고 느끼면 자신있게 말을 하는 편이다. 하지만 아직은 대한민국에서는 소리를 내면 어른에게 말대꾸니, 대들다니 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회적 억압, 학교 내 억압, 나이에 따른 차별은 있는 것 같다.



인터뷰 전문은
밑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느낀 청소년 들은 언제든지
저희 **아이연**에게 연락해주세요!



<정책제안서>

문제 제기

국제적으로 인권교육은 교육권의 일부로서가 아닌 하나의 권리로 정립되어 가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의 교육현황에서 인권교육은 교육의 일부로서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실에서 인권침해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인권교육은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미진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의 인권교육수준은 개선 및 향상되어야 한다.

인권교육이 도입되었음에도 현존하는 문제점들은 매우 많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인권교육 필요성 인식은 높지만, 아직도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낮다. 학생 71.8%, 중학생 78.0%가 '자신들에게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인권교육 받은 경험은 초등학생 46.0%, 중학생의 53.0%에 불과 하다. 현재 학교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교육이 질적으로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인권존중의 가치와 태도를 형성하고 인권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인권교육을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교원의 인권교육에 대한 역량강화 기회 부족이다. '인권교육·연수에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한 교원은 89.9%이나, 교원임용 후 인권관련 교육이나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교원은 41.1%에 불과하다. 교원 87.5%가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강화하면,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인성교육이 잘 되면 별도의 인권교육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교원(52.2%) 또한 절반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충실하지 못한 인권교육으로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이 미흡하다. 교원들은 소속 학교의 인권친화성에 대해 80.4%가 '인권 친화적이지 않다.'고 부정적인 반응인데, 초등학교 교원 73.2%, 중학교 교원 83.5%, 고등학교 교원 83.4%, 전문계 고등학교 교원 92.3%로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심각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73.0%가 '학교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학교 인권교육이 자신의 인권보호와 타인의 인권존중이라는 인권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인권교육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인지도는 낮다. 97.7%에 이르는 절대 다수의 학생들이 평소에 인권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인권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23.5%에 불과 하다. 이는 많은 학생들이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과 내용은 충분히 습득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학교의 인권교육이 상당 부분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해숙 외, 2011, 253)

학교에서 또는 교육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학교가 많지 않아 학생들 또는 선생님들이 자신도 모르게 다른 누군가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하고, 자신 또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학생들의 경우, 타 친구의 말을 무시하거나 그 친구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선생님의 경우, 은근히 수업시간에 남녀 차별이나 성적 차별을 두어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할 때도 많다.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들과 인권교육을 받지 못했던 학생들의 차이점은 생각보다 크다. 인권을 보장받고 싶으면, 자신이 먼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데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인권에 정 조차 잘 알고 있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인권에 관한 교육을 많은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한다고 생각하였다.

우리나라 학교의 실태

우리는 학생들이 겪는 인권 침해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①입시만을 위한 학교 ②우울한 학생들을 학교의 문제로 보았다.

① 입시만을 위한 학교- 입시를 위해 권리침해 상황까지 용인하는 학교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차별피해 경험에서 가장 주요한 사유가 ‘학업성적’이었다. 최근 1년 동안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학생이 30.5%로 수치 자체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다른 유형의 차별에 비해 학생들 사이에 더 광범위하게 경험되고 있었다. (김경준·김희진·이민희·김윤나,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총괄보고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272p)
이러한 차별은 2014년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학교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차별이다.

오늘 학교에서 일어난 차별 3가지

사례1. 교사와 학생
선생님에 대한 복종, 수공 강요(수직적 관계). 권력이 학생이 아닌 선생님에게 있는 것(학생이 선생님에게 반발하는 경우 생활기록부에 학생에 대한 것을 좋지 않게 기록 가능). 선생님의 당연한 반말 사용.

사례2. 수업시간, 성적으로 자리를 배치하는 것.(성적수준이 조별로 비슷해야 한다는 이유로 자리 배치를 하고선 그 조에서 성적이 좋은 애를 불러주면, 그 조에서 이름이 불리지 않으면 성적이 좋지 않은게 은밀하게 들어난다.)

사례3. 학교에서 시험을 봤을 때(영어듣기평가), 그 시험 성적을 성적순으로 나열하여 적은뒤 칠판에 붙여놓는 것.(성적을 남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 성적공개로 반내에서 또래친구들간에 차별이 일어난다.)

다 미디어인 한국에만 경우 차별하게

국가인권위원회는 실제로, 학교에서 학업성적에 따라 학생들을 우등반과 열등반으로 구분·배치하여 다르게 대우하거나(국가인권위원회 2010. 1. 21. 09진차1194 참조), 성적우수자에게만 자율학습 전용실을 제공하거나(국가인권위원회 2009. 8. 25. 08진차158; 국가인권위원회 2008. 1. 28. 08진차13 참조.), 일정한 성적을 기준으로 학급회장 자격을 제한하는(국가인권위원회 2006. 11. 28. 06진차0449 참조.) 등의 학교 조치에 대해, 학업성적을 이유로 행해진 교육 시설 이용 관련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고 평등권 침해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교육의 목적은 아동의 개성, 재능,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잠재성을 최대한 개발하는 것이다. 교육은 교과과목만을 말하지 않는다. 자신의 권리를 찾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역시 학교에서 해야 할 교육이다. 위 연구들은 학업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이 교육의 목적에 반하고 있으며(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 교육의 목적”, 2001(국가인권위원회 역, 유엔인권조약감시기 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아동권리위원회, 2006, 한 학문화), 10문단.) , 학교가 실질적으로 교육의 목표를 실현하는 기관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학업성적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철폐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한 교육정책의 변화가 요청된다. (김지혜 (Jihye Kim), 학업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과 교육의 불평등,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53(0), 2016, 159-184)

②우울한 학생들

입시위주 학교의 특징은 수월성 중심의 과도한 경쟁이며 이로 인한 학생인권 침해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교육열’이라는 독특한 개념과 더불어, ‘높은 학업성취도 그러나 행복지수 꼴등’이라는 국제 평가로 이어졌다(Hyun et al., 2003; Lee, 2005; Blazer, 2012; The Korea Times, 2012; 한겨레, 2014).

< 청소년 사망원인 >



【 청소년 사망원인 】

(단위 : 인구 10만 명당 명)

| | 1위 | 2위 | 3위 |
|-------------|-------------------------|-------------------|-----------------------|
| 2000 | 운수사고 (14.3) | 고의적 자해(자살) (6.0) | 악성신생물(암) (4.5) |
| 2006 | 운수사고 (6.4) | 고의적 자해(자살) (6.0) | 악성신생물(암) (3.6) |
| 2007 | 고의적 자해(자살) (8.6) | 운수사고 (6.6) | 악성신생물(암) (3.8) |
| 2010 | 고의적 자해(자살) (8.8) | 운수사고 (6.0) | 악성신생물(암) (3.3) |
| 2015 | 고의적 자해(자살) (7.2) | 운수사고 (4.0) | 악성신생물(암) (2.9) |
| 2016 | 고의적 자해(자살) (7.8) | 운수사고 (3.8) | 악성신생물(암) (3.1) |
| 2017 | 고의적 자해(자살) (7.7) | 운수사고 (3.4) | 악성신생물(암) (2.7) |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9~24세 청소년 대상임

주 : () 안의 수치는 사망률, 사망률 = (사망자수/당해연도 연앙인구)*10만명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9~24세 청소년 10만명당 사망원인은 고의적 자해(자살)가 7.7명으로 가장 많았고 운수사고(3.4명)와 암(2.7명)이 뒤를 이었다. 자살은 2007년부터 11년간 청소년 사망원인 1위를 이어가고 있다.

청소년에서 우울증은 자살과 가장 관련 깊은 정신질환으로 보고되고 있다 (De Wilde EJ, Kienhorst IC, Diekstra RF, Wolters WH. The specificity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 suicide attempters.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1993;32:51-59). 이러한 자살 충동의 약 70%에서 우울증이 진단되고, 우울증이 있는 청소년의 약 30%에서 자살 시도 경험이 보고된다. (Andrews JA, Lewinsohn PM. Suicidal attempts among older adolescents: prevalence and co-occurrence with psychiatric disorders.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1992;31:655-662)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04~2008년 초·중·고교생 자살 현황’에서도 자살 원인은 가정불화(28.4%), 염세비관(19.6%), 학업 스트레스(10.1%), 이성문제(7.2%)의 순이었는데 원인별 증가 폭은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컸으며,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충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학생의 우울감은 학교폭력과 이어진다. 실제로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 여러 정 신질환, 약물남용, 분열된 인간관계, 패배감, 욕구 불만 등의 정신병리가 보고되고 있다(Park YS, Kim EC. Psychological, behavioral, and relational characteristics of school violence: Comparative analysis of victims, bullies, non-participants of aggression.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2001;7:63-89). 특히 우울

증(25.5%)과 불안 장애(10.3%)의 유병률이 높으며 우울증이 가해 행동의 결과일 뿐 아니라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Kaltiala-Heino R, Rimpelä M, Marttunen M, Rimpelä A, Rantanen P. *Bullying,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Finnish adolescents: school survey. BMJ 1999; 319:348-51*). (Kaltiala-Heino R, Rimpelä M, Rantanen P, Rimpelä A. *Bullying at school—an indicator of adolescents at risk for mental disorders. J Adolesc 2000;23:661-74*).

학교 폭력에 있어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서도 우울 증상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안인영, 이철순, 박철수, 김봉조, 차보석, 이소진, 서지영 (2013). 학교폭력 가해자에서 자살사고, 우울증상 그리고 고 중독적 휴대폰 사용과의 관계. *생물치료정신의학*, 19(1), 39-46)와 우울 증상으로 인하여 가해자들의 자살사고가 심해질 수 있음이 연구 결과(Michstrøm L. *Predictors of adolescent suicide attempts: a nationally representative longitudinal study of Norwegian adolescents.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2000;39:603-10*) 등을 바탕으로 학교 폭력 가해자들의 우울 증상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적절한 치료는 향후 발생 가능한 자살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개선방안

학생 스스로가 갖는 권리의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부당하다고 생각 되는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세를 길러야 한다. 인권이 무엇인지, 자신의 인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는 교육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려고 한다.

인권교육이 의무적으로 교과 규정의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 인권교육이라고 해봤자 동영상 시청, 외부강사 수업으로 일 년에 한~두 번 받는데 집중력이 떨어지고 학생 들한테는 여전히 어려운 주제이다. 그래서 학교현장 안에서 어떻게 활용 할 수 있는지 여러 면에서 직접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인권교육을 지원하고자 수업 자료, 학생인권상담사례모음집 등을 각 학교에 배부하고 있다. 보는 것, 듣는 것을 넘어 '인권'이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에 있는지를 느끼고 학생들이 개인이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하는 형태의 교육이어야 한다. 동아리나 학생자치활동 등으로 학생들이 직접 캠페인을 해보거나 주제를 정해 관련 인권에 대해 찾아본다면 활동적인 것이 그 하나일 수 있겠다. 이러한 교육이 학교 정규 과정으로 들어가야 주기적인 관심을 끌 수 있다. 일회용의 교육이 아닌 정기적인 인권교육으로 학생들에게 권리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대효과

→ 학생들의 주체적인 인권 의식 함양

현재 학생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인권은 나아지지 않는다. 또, 자신이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대처하는 법을 아는 학생은 얼마나 있을까? 이러한 문제들은 주기적인 인권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일 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하는 단기적이고 짧은 교육이 아닌 주기적인 교육이다. 주기적인 교육은 학생들에게

자세하게 인권에 관해 자세히 알려줄 수 있다. 자세한 교육은 자신이 받은 차별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 인식은 차별을 없애는 것의 첫 단계이다. 교육으로 학생들은 자신이 차별을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익숙해지며, 학생들이 받는 차별은 점점 사라질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교육은 학생들 스스로가 인권을 지키고 끌어올리는 효과를 내는 것이다.

2019 아동인권당사자 모니터링 최종활동보고서

| | | | | | |
|-------|-----------------|---|---|---|--|
| 주 제 | 아동의 권리를 제한하는 교칙 | | | | |
| 모 둠 명 | 또치와 아이들 | | | | |
| 모니터링단 | 차수지, 한혜원, 황지원 | 총 | 3 | 명 | |
| 코디네이터 | 김경민 | | | | |

■ 우리들의 목소리(핵심 메시지)

현재 어른들은 어른들이 각자마다 생각하는 학생다움을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그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복장과 두발, 용의를 제한하는 교칙이 아닐까 싶다.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공동체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 공동체를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모둠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많은 학생들이 교칙에 의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칙인데 오히려 교칙이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셈이다.

사전에서는 학생을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어디에도 두발이나 복장이나 용의로 학생을 정의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아동청소년들에게 ‘학생다움’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염색을 하면 더 이상 학생이 아닌 것 인가? 교복을 단정히 입지 못하면 더 이상 학생이 아닌 것 인가? 과연 교칙이 학생들의 권리보다 더 위에 있는가? 물론 교칙도 중요한 학교 내의 규정이지만 학생의 권리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두발, 복장, 용의를 제한하는 교칙에 의해 억압받는 학생들에게 학생다움이라는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표현들을 사용하여 ‘학생다움’을 강요하는 것을 멈추길 바라며 학생들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교칙이 개선되어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대한민국 아동의 권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모니터링해요!
(교칙에서 찾는 아동인권)



1. 주제 선택 이유(문제 제기)

2019 아동인권당사자 모니터링단의 공통주제가 ‘교육현장에서의 차별’인 만큼 아동들이 교육현장에서 받고 있는 권리침해를 찾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단이므로 아동 청소년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곳이 ‘학교’라고 생각되어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권리침해를 받는 것들이 무엇일까 생각하다 학교안의 ‘교칙’을 우리 모듬의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다.

2. 목적

‘교칙’이란 학생이 지켜야할 학교의 규칙으로 현재 각 학교에서 적용되고 있는 교칙이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모듬원들이 얘기해본 결과 학년을 이유로 교칙을 차별적으로 적용시키거나 복장, 두발과 같은 외적인 제한을 뒤 신체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교칙들이 많았다. 때문에 이렇게 교칙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는 사례들을 더 수집해 알아보고 이러한 교칙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

3. 활동 내용(모니터링 방법)

[1차모임]

▶ 논의내용

- ① 아동인권, 교칙 관련 자료조사 공유 및 분석
 - 아동인권 관련 자료: 유엔아동권리협약,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헌법, 2019청소년통계, 아동청소년 인권조례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동해시, 부천시), 이외 현재 인천 내의 학교 별 교칙 사례
- ② 아동권리&교칙 조사설문지 논의
 - (1) '아동인권과 관련된 교칙 인식조사', '아동인권과 관련된 교칙 실태조사' 제작
 - (2) SNS(페이스북) 등으로 홍보

[2차모임]

▶ 논의내용

- ① 설문조사 내용 통계정리 및 분석
 - (1) 인식조사 분석: 교칙에 학생다운, 학생 신분에 맞는 등의 표현사용 52.2%, 설문자들이 생각하는 학생다운(자유로운 배움을 받는 청소년, 그 자체로 학생다운 것, 매일 학교가고, 공부하고, 시험보는 사람, 학생다운이란 없다, 어른들이 만든 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각 규정이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모두 60% 이상
 - (2) 실태조사 분석: 두발, 복장, 용의제한 교칙 존재 모두 70% 이상, 교칙위반시 받는 지도 사례, 교칙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느낀 적 있다 54.5%, 개정이 필요한 교칙 이 있다 75.8%, 교칙개정 요청 후 개정되지 않았다 79.3%, 설문자들이 생각하는 교칙 (학생들이 내는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한다, 학교, 선생, 학생에게 모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교칙만이 필요하고 인권침해와 제한적이고 불편한 교칙은 필요하지 않다)
- ② '교육감님께 보내는 편지' 내용 구상
 - (1) 교칙이 학년/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 삽입
 - (2) 교칙이 학생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 삽입
 - (3) '학생다운'이란 표현사용에 관한 내용 삽입

[3차모임]

▶ 논의내용

- ① '교육감님께 보내는 편지' 내용 최종안 완성
- ② 카드뉴스 제작 논의
 - (1) 구성&내용 논의

[4차모임]

▶ 논의내용

- ① '교육감님께 보내는 편지' 게시처 논의
 - (1) 교육청 '의견나눔터'에 게시
 - (2)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메시지 통해 전달
 - > 10/16 교육청 SNS 담당자 통해 연락
 - > 10/23 제안문에 대한 답변수령
 - > 11/1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 통화
- ② 카드뉴스 1차 수정
 - (1) 디자인 수정
 - (2) 문구(표현) 수정
- ③ 카드뉴스 게시 논의
 -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게시

[5차모임]

- ① 카드뉴스 2차 수정 및 완성본 제작
 - >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게시
- ② 카드뉴스 설명글 작성
- ③ 교육청과의 소통내용 정리
 - > 인권보호관과의 통화내용 요약 및 정리
- ④ 최종활동보고서 작성

4. 활동 소감(아동 및 코디네이터)

OOO (코디네이터) : 중, 고등학교를 다닐 당시, 대학 입시에만 몰두하여 학교의 교칙에 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하지만 모니터링단 아이들과 함께 각 학교 교칙에 대해 조사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잘못된 교칙은 없는지 조사를 하면서 학생인권을 위한 교칙이 아직 많은 수정을 필요로 하며 학생을 위한 교칙이 만들어지기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했다.

OOO (아동 모니터링단) : 설문지를 제작하며 교칙이 그동안 나와 다른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았느냐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카드뉴스, 교육청과의 소통을 통해 교칙수정&개정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학생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날까지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OOO (아동 모니터링단) : 평소 아동인권에 대해 크게 생각해본 적은 없었는데 아동인권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고 이에 관한 활동들을 하며 생각보다 우리(아동들)의 인권이 많이 침해되고 있었고 어른들이나 어른들이 멋대로 정해놓은 규칙들에 의해 많은 아동들이 큰 억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이었지만 우리의 인권에 대해대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해주어 정말 뜻 깊은 시간이었다.

OOO (아동 모니터링단) : 처음 모니터링단을 시작할 때는 대체 무슨 활동을 하는거지?라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는데 좋은 선생님과 모둠원들을 만나 평소 알아보고 싶었던 주제로 모니터링단 활동을 할 수 있었어서 정말 기뻐다. 전까지는 교칙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에서 그쳤는데 이렇게 교칙에 대해 알아보고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교육청과 소통을 하고 모니터링단 사람들과 같이 이에 대해 대화하며 우리 학생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한걸음 걸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나아가야할 걸음은 어찌 보면 적을 수도, 수도 없이 많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에 의미를 두고 우리가 원하는 곳에 도달할 때까지 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싶고, 멈추지 않을 것이다.

5. 첨부자료

2019 아동인권당사자 모니터링단 포치와 아이들

학생다움이 뭐예요?

: 교칙에 대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

국제아동권리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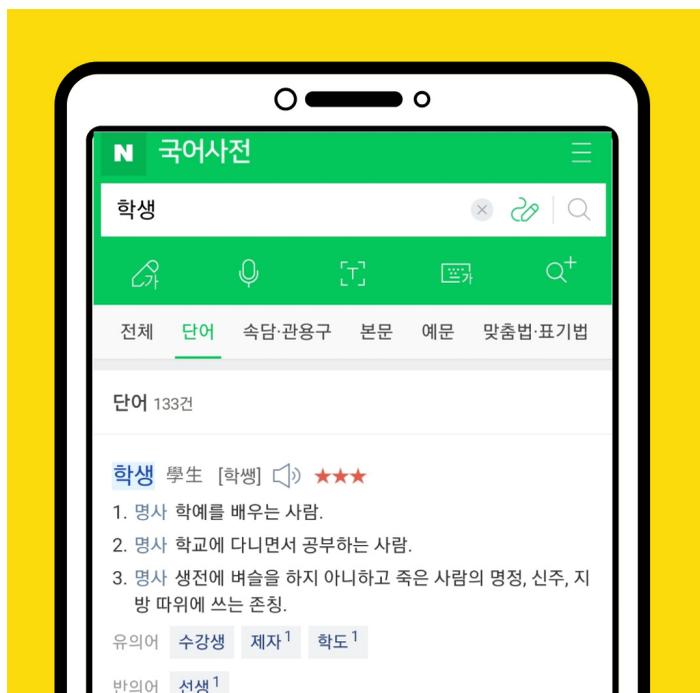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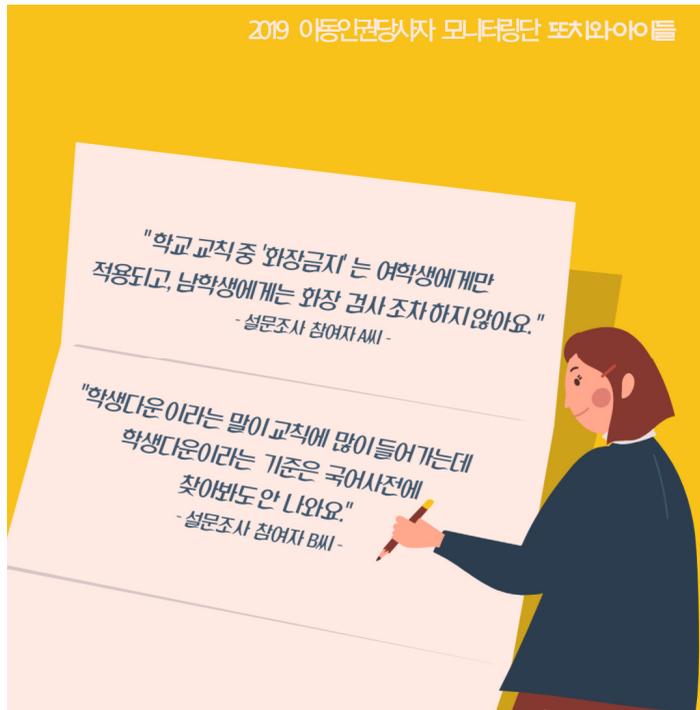
12조

(의견존중)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결정 할 때 우리는 의견을 말 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우리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28조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 또한 학교 규율은 우리의인격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2019 이동인권당사자 모니터링 포치와아일랜드



학생다움의 정의 가 무엇인가요?



[연세대학교 학생 인권포럼]

물론 중요한 학교내의 규정이지만
그것보다 학생인권이 더 중요한 사안

선생님이 생각하는 학생다움이라는
사고를 학생에게 주입시키거나 강
요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D

2019 아동인권당사자 모니터링 단체와 아이들

2019 아동인권당사자 모니터링 최종활동보고서

| | | | | |
|-------|-----------------------|---|---|---|
| 주 제 | 불편한 여학생 교복에 대한 문제점 개선 | | | |
| 모 둠 명 | 에버랜드조 | | | |
| 모니터링단 | 김도연, 김상희, 이서영, 한종윤 | 총 | 4 | 명 |
| 코디네이터 | 황혜민 | | | |

■ 우리들의 목소리(핵심 메시지)

궁금해서 친구들과 조사해본 결과 학생들의 신체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비해 교복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상의는 점점 짧아지고 치마도 마찬가지로이다. "어차피 더 줄여서 입던데" "그냥 큰 거 사면 되잖아" 한 반에 줄여서 입는 학생은 (평균)27명중에 많아야 3명 적으면 아무도 없었다. 또 사이즈를 크게 하면 좀 더 아래 크기가 났다며 바꾸라하거나 누가 봐도 커 보이게 사도 팔을 올리면 허리를 굽히면 배가 다 보였다. 그래서 남녀공학인 경우는 허리 라인 가슴라인이 없는 남학생의 교복을 사는 경우도 매우 많았던 것 같다. 2018년 겨울 매일 한파 특보가 내려지던 겨울에도 여학생 대부분은 치마를 입었다.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여학생들이 교복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실태를 확인해봤다.

학생들은 편한 옷을 입고 활동할 권리가, 학교는 학생들의 활동성을 제대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지정해준 복장인 교복은 정작 학생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한 점이 많은 여학생 교복의 경우엔 더욱 그러하다.

여학생 교복의 품질적인 면에선 교복의 사이즈와 재질을 문제 삼을 수 있다. 한 뉴스기사는 여학생들의 교복이 10세 미만의 아동복 사이즈와 비슷하다는 충격적 사실을 보도하며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작은 사이즈 뿐 아니라 유명 연예인들이 광고하는 교복 브랜드

일수록 추가되는 허리라인이 들어간 자켓과 셔츠, 딱 붙는 소매, 짧은 치마 등의 불필요한 요소들은 여학생들의 편안한 학교생활을 상당히 방해하고 있다. 까칠하고 뽀뽀한 교복의 소재는 이러한 교복의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이러한 여학생들의 문제상황을 해결하고 그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선 사회적 제도의 마련이나 국가의 적극적인 도움이 꼭 필요하다. 적어도 학교에서만큼은 학생들이 자신이 꿈과 진로를 계발하고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것에만 몰두할 수 있을만큼 마땅한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와 학교는 여학생들에게 학교생활에 최적화된 디자인과 재질의 교복을 보급하거나 교복 바지, 생활복, 체육복과 같이 편안하고 간편한 복장에 대한 여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대한민국 아동의 권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모니터링해요! 상대적으로 불편한 여학생 교복 문제에 대한 해결

1. 주제 선택 이유(문제 제기)

처음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 사전캠프에서 모니터링 주제를 정하기 위한 조별 모임과 토의를 진행했을 때, 각자가 생각하기에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상황들에 대해 조원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때 이전부터 느껴왔던 '여학생 교복'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들을 열심히 제시하며 여학생 교복의 문제점들을 모니터링하고 더 나아가 개선하는 것이 얼마나 꼭 필요하고 시급한 일인지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 '에버랜드' 조를 구성하고 있는 조원들 역시 모두 다 여학생들이다보니 남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한 여학생 교복들 만에 대한 문제점에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깊게 공감할 수 있었다. 추가적인 대화를 더 나누며 우리는 조원들의 합의 하에 '여학생 교복에 대한 문제점 해결하기'를 우리 조의 모니터링 주제로 삼고, 앞으로의 활동을 위한 계획을 상의해 짜는 시간을 가졌다.

2. 목적

인천시 내에서 남학생들에 비해 상당히 불편하게 제작된 여학생 교복의 문제점들을 밝혀내고 그 문제점의 심각도를 파악하는 것,

더 나아가 끊임없는 고민과 대화를 통해 밝혀낸 불편한 여학생 교복의 문제점들을 전반적으로 수정 및 보완하는 것.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학교생활을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음.
'편의'가 아닌 '핏(fit)'을 위한 불필요한 디자인을 제거하고 교복의 소재를 교복의 용도와 목적에 부합한 소재로 변경하는 것 / '실용성'에 초점을 맞춘 교복을 제작하고 보급하는 것 / 교복 선택의 폭을 넓히고 그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 대한 요구내용을 담아 교육청이나 교복업체 및 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편지글 및 제안서 작성하기

3. 활동 내용(모니터링 방법)

1. 첫 번째 만남-송도

- 여학생 교복의 불편함 때문에 피해를 입은 실제 학생들과 문제점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
 - 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내가 만족할 만한 꿈의 교복 구상하고 그려보기
-

2. 두 번째 만남-동춘동

- 한 주 간 학교 친구들과 나눈 교복 이야기 공유하기
 - 편지 쓸 대상 정하기 (교장선생님, 교복업체, 교육청 관계자 분들 등)
 - 각자 편지의 대상을 정한 후 편지의 대상에게 우리의 경험과 공유한 이야기들을 토대로 여학생 교복의 문제점과 불편함에 대해 호소하고 적절한 교복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낸 편지글 작성하기
-

3. 세 번째 만남-구월동

- 자신이 작성한 편지글을 소개하고 편지글 내용 공유하기
 - 편지를 작성한 소감과 느낀 점 나누기
 - 카드뉴스 제작 계획 세우기(카드뉴스 내용 및 디자인 구상)
 - 편지 배부하는 방식 정하기
-

4. 네 번째(마지막) 만남-인하대

- 인천시 교육청에 보내는 제안서 작성하기
- 모니터링 활동을 하며 느꼈던 전반적인 소감과 활동에 대한 피드백 주고받기
- 카드뉴스 제작 마무리하고 배부에 적합하게 프린트하기

4. 활동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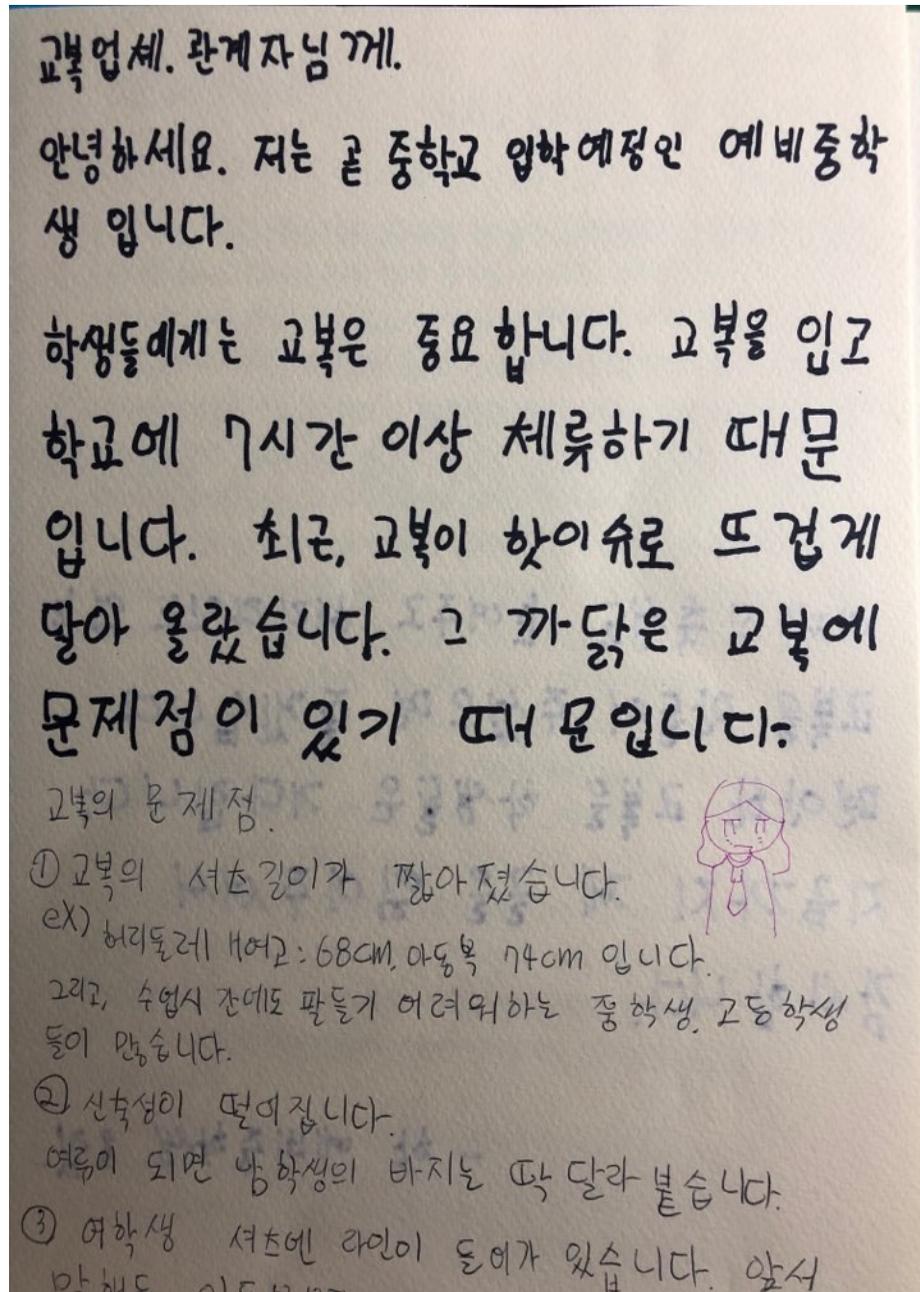
5. 활동 소감(아동 및 코디네이터)

비록 짧은 시간 동안이었지만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 활동을 하며 제대로 된 법적 및 제도적 보호와 보장을 위한 노력 없이는 여성이나 장애인과 같이 아동이나 청소년들 역시 권리보장의 사각지대에 쉽게 방치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엔 호기롭고 가벼운 마음에 시작한 활동이었지만 활동에 점점 더 적극적이고 깊이 있게 참여하면 할수록 비록 사회에선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잘 모른다는 이유로 쉽게 무시당하고 조종당하는 아동들에게도 마땅히 자신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았고 그들의 작고 왜소한 걸 모습에 그들의 권리까지 쉽게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이미 아동들의 크고 작은 권리들을 제대로 보장하고자 여러 기관과 단체들의 활발한 활동과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이 아동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상당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내가 이번 활동을 통해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바로 아동들의 권리보장을 위해선 아동들의 자체적인 노력도 꼭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물론 아동들은 사회적 약자이기에 그들의 권리보장을 위해선 그 누군가의 도움과 지지 등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의 권리 보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 소유자의 지속적 관심과 노력인 것처럼, 아동의 권리보장에서는 아동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모니터링단 활동을 하며 아동 인권을 제대로 잘 보장하기 위해선 여러 단체들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무엇이 자신의 권리에 해당하며 또 그것이 잘 보장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아동 당사자들의 지속적 관심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때문에 이번 아동인권당사자모니터링 활동이 상당히 뜻 깊었다는 생각을 했다.

2019.07.29.~2019.07.31. 아동 인권 모니터링단 캠프를 시작으로 이 활동을 한 지도 벌써 3개월이 넘었다. 모니터링 단 활동에 참여하고자 했던 이유는 정말 명확했다. 먼저 세계 아동 인권으로 규정된 권리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원인을 알고, 그 문제들을 이 모니터링 단 활동을 하며 해결해나가고 싶었다. 전국 각지에서 온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 같은 방향을 추구할 때 세계 오는 힘은 컸던 것 같다. 작은 마음 마음이 모여 큰 힘이 되듯, 모니터링 단 학생들, 코디네이터 같은 작은 힘들이 하나하나 모였던 그 순간, 시작만으로 제가 원하는 변화는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6. 첨부자료

편지 2장



- 인천시교육청장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연수구 소재의 한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redacted] 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시행중인 무상 급식과 각 학교에 지원되는 지원금의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증을 찾아주기 위한 목적으로 생긴
자우학기. 학년제를 겪으면서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교육이 있어선
정말 만족스런 학교 생활이였지만 단 하나 아쉬운 점이 있어 이렇게
교육청장님께 건의드리고자 되려는 쓰게 되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교육이 있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우선 교육이
뽕뽕한 재질로 만들어져 수업을 듣고, 학교에서 활동적으로 생활하는데에
있어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안감이 제대로 마감이 안 되어
있는 것도 태반이라 안에 다른 뜻은 입지 않으면 파랗고 심한
경우엔 알러지와 아토피가 심해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여학생 셔츠의 대부분이 가슴과 허리라인을 따라 줄긋지게
만들어서 손을 드는 것, 허리를 숙이는 것도 하나하나 조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더불어 사이즈 또한 같은 사이즈의 남학생보다
훨씬 작게 만들어져 행동을 하는데에 있어 몇 배의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남학생의 바지 또한 신축성이 거의 없어, 의자에
앉아있거나 천천히 걸으러갈 때를 제외하고는 활동하기에
다소 부적절하게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저는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교육업체마다 사이즈나 재질이 세각각인 것을 개선하곤자
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곤 이에 맞게 제작될 수
있도록 관리해주시길 바랍니다. 여학생의 셔츠는 길고 폭이 너...

제안서

국제아동인권센터 아동모니터링단 에버랜드조

1. 불편한 점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제아동인권센터 아동인권당사자 모니터링단 에버랜드조입니다. 저희는 이번 활동 주제로 교복에 대한 불편함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학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편함이 있는 여학생 교복에 집중하여 모니터링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교복을 착용하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아동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교복 불편함을 겪는 다른 학교의 친구와도 인터뷰를 해보면서 여학생 교복의 불편함에 대해서 더욱 실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아동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여학생 교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동들이 불편하다고 호소한 부분>

1. 와이셔츠의 뽀뽀한 재질로 인하여 신축성과 통풍성이 떨어져 불편함이 있습니다.
2. 치마의 길이가 짧은 교복도 많이 있고 신축성이 떨어지는 바지도 많아 불쾌지수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3. 보온성이 떨어져 겨울에 매우 춥고 여름에 땀 흡수가 잘 되지 않아 불편함이 있습니다.

2. 인천 교육청에 바라는 점

앞서 아이들이 호소한 여학생 교복의 불편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후로 아이들에게 인천시 교육청에게 바라는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보온성과 통풍성, 신축성 등 기능성 위주로 검증된 재질을 사용한 교복을 제작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중고생들에게 학교 내에서의 활동성을 완전히 보장해줄 수 있도록 제작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가적으로 각 학교들의 생활복 제작 및 보급을 활성화시키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각 학교마다 짧은 치마가 있는가하면 긴 치마가 있고 각 학교별로 자체 규정 등으로 인하여 제각각인데 앞서 이야기 한 점들을 토대로 교육청 측에서 중고생 교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정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은 여학생 교복에 대한 불편함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에서 이번에 저희 아동인권당사자 모니터링단이 제시하는 제안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바라며 아이들의 즐겁고 활기찬 학교 생활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여정

; 행복한 '학'교생활과 편안한 '교'복을 위한 우리들의 '여정'

아동인권당사자 모니터링단 에버랜드조



국제아동인권센터와 아동인권 당사자모니터링



Q. 국제아동인권센터란?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아동과 함께', '아동을 위한'
다양한 옹호활동을 하는 기관입니다.

Q.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이란?

아동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능동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입니다.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의 사전캠프



7월 31일 수요일 캠프 마지막날 에버랜드조

일시: 7월 29일(월) ~ 7월 31일(수)

장소: 서울 여성가족재단

활동내용: 아동권리 워크숍과 모듬별 모니터링 계획 수립



에버랜드 팀의 결성



팀원 모두 동물과 관련된 별명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를 연상하여 에버랜드조의 탄생!

교복의 불편함에 대해 공감하며

'남학생의 교복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함이 많은 여학생 교복'
주제를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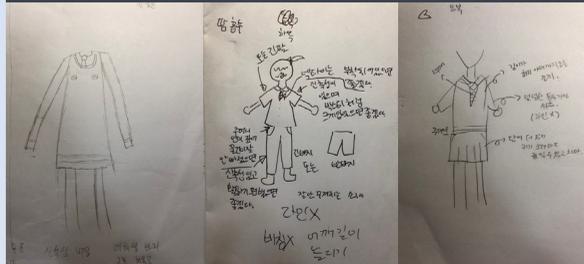


에버랜드조의 첫 모임 (in 송도)

1. 교복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학생과 인터뷰를 진행
2. 내가 입고 싶은 교복을 그려보기



내가 입고 싶은 교복 디자인해보기



에버랜드조의 두번째 모임 (in 동춘동)



학생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셨어요. 저는 큰 동헌도 행복해하는 예비대학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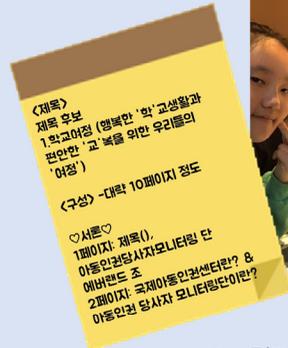
학생들이나 교복은 중요합니다. 교복은 학교에 7시간 이상 착용하게 됩니다. 최근 교복이 한의류로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 까닭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복은 학생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 교복은 한의류로 바뀌어 학생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교복은 학생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복은 학생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복은 학생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1. 학교 친구들과 나는 교복 이야기 공유하기
2. 교장선생님과 교복업체, 교육청 관계자분께 편지쓰기



에버랜드조의 세번째 모임 (in 구월동)



1. 편지 전달 계획 세우기
2. 카드뉴스 제작과 배부 계획



에버랜드조의 마지막 모임 (in 인하대)



1. 인천시 교육청에 보내는 제안서 작성
2. 마지막 모임 소감 나누고 카드뉴스 마무리하기



에버랜드조의 소감



평소에 불편하고 차별적으로 느껴지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인 우리가 직접 모여서 개선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흥미롭고 신기했습니다.

물론 당장 해결될지에 대해서 장담은 할 수 없지만 바꾸려고 노력하는 시도 자체가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활동의 시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물 한방울이 모여 호수가 되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교복의 불편함을 겪는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복으로부터 느끼는 불편함에 대해 계속 참지 말고 조금이라도 우리들이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나도 동의해, 우리가 조금씩 노력하면 언젠가는 교복의 불편함이 개선될 수 있다고 믿어!'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동들의 권리가 언제 어디서든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노력하자!'



3) 소수자 관련 차별(7모둠)



- 미등록 이주아동 | 00
- 장애아동 | 경상도, 도담도담
- 학교 밖 청소년 | 백조
- 성별 | 아.말.일, 플러스커뮤니티
- 성적지향 | 마피아

2019 아동인권당사자 모니터링 최종활동보고서

| | | | | |
|-------|--------------------------------|---|---|---|
| 주 제 | 미등록 이주아동 교육 기회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 | | |
| 모 둠 명 | ○○조 | | | |
| 모니터링단 | 강예은, 박성경, 윤가은, 윤성아 | 총 | 6 | 명 |
| 코디네이터 | 김세정 | | | |

■ 우리들의 목소리(핵심 메시지)

“ 제 2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조는 캠프에서 본 유엔아동권리협약 2조를 함께 읽었다. 이를 읽으면서 각자 자신이 든 생각, 경험, 이에 반하는 사례가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엄연히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해서 모니터링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교육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또래 학생, 친구로서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현재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가 침해된 상황을 알려 이를 함께 지켜나가자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

대한민국 아동의 권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모니터링해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동들



1. 주제 선택 이유(문제 제기)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에 미등록 이주민 자녀의 교육권 보장에 대한 행정지침을 마련했다. 이는 2000년 몽골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이 가족을 동반해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에 대한 지침이었다. 하지만 이는 지침이었을 뿐, 실제 아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들은 적었다. 2003년 1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지 않는 우리나라 정부에 모든 외국인 아동에게도 한국 어린이들과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수 차례 권고했고, 2003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미등록 이주민의 초등학교 입학을 허용했다. 하지만 중, 고등학교는 학교장 재량에 맡겨졌다.

무려 16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변화한 것은 적다. 작년에는 페버라는 청소년은 18살이 되자 대학 입학 대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구금되어 나이저리아로 추방될 위험에 처해 있었다. 페버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평생을 자랐지만 부모님이 나이저리아인이라는 이유로 늘 이방인으로 취급받았다.

페버라는 아동의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지 국가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육, 생존, 의료 등 인간다운 삶 영위에 필요한 것들을 받을 수 없는 삶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동이었던 것이다.

우리과 같은 아동이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었다. 게다가 2001년,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대책이 처음 나온 지 18년이 지났음에도 긍정적인 변화는 적고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것에 대해 경각심을 느꼈다. 우리 ○○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펼치고자 했다.

2. 목적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관련된 내용은 앞서 기술했듯이 18년이 지나도 국가적인 차원의 적합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복잡한 문제이다. 사전조사를 하면서도 알게 되었는데,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과 관련된 문제에 출생등록과 속인주의 제도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그렇기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남양주복지센터의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인터뷰할 때 들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침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접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덧붙여 이러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카드뉴스, 굿즈)를 개발, 제작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침해에 관심을 갖고 접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굿즈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에 기부하고자 한다.

3. 활동 내용(모니터링 방법)

〈요약〉

7월: 캠프, 주제 선정

8월: 오프라인 회의(2번), 인터뷰 요청 센터 정하기, 이메일로 6~7곳 연락.

9월: 경기이주아동보육네트워크의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 인터뷰, 굿즈 계획 진행

10월: 굿즈 관련 심사, 카드뉴스 게시, 오프라인 회의

7월 말, 우리는 모니터링 캠프를 통해 처음 만났습니다. 서울여성가족재단에서 우리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다양한 아동의 권리를 공부했고, 앞으로의 활동 동안 '미등록 이주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다짐을 했습니다.

8월,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다양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모임 전까지 우리는 다양한 논문 자료와 책, 뉴스와 칼럼 등을 찾아보며 미등록이주아동이 누구인지, 이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다른 나라에서는 미등록이주아동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실행되고 있는지 등 등 세세하게 파악했습니다.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느낀 점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캠프 때도 나왔지만, 미등록이주아동을 위한 모금활동을 진행하자는 의견에 모두가 동의하며 간략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동의 그림으로, 아니면 아동과 관련된 그림을 그려서 제품을 제작할지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확실한 결론은 나지 않고 다음에 다시 이야기해보자며 중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9월 9일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외국인복지센터에 인터뷰를 갔습니다. 센터에 찾아오는 이주노동자 가족들이 호소하는 어려움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은 어느 정도인지, 경기도 이주아동보육네트워크의 일부로서 어떤 활동을 진행하고 계신지 등 언론을 통해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8월부터 언급되었던 미등록이주아동을 위한 모금활동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고민 끝에, 우리는 노트북 스티커를 제작해 판매하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등록이주아동을 알리기 위한 여러 수단 중, SNS에 미등록이주아동과 관련된 사실을 전달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해 알리자고 결정했습니다. 다양한 활동계획에 우리는 카드 뉴스 팀과 굿즈팀으로 나누어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10월, 모두가 바쁜 와중에 펀딩 사업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OOO이 디자인을 도맡아 진행했고, 조원들이 협업으로 모금 홍보에 필요한 글을 작성했습니다. OOO이 제작한 미등록이주아동의 정의와 이들의 실태를 홍보하는 첫 카드뉴스도 올라갔습니다.

4. 활동 사진



5. 활동 소감(아동 및 코디네이터)

OOO) 작년에 지역에서 5년간 해오던 다문화 멘토링 봉사활동이 멘티가 중학생이 되면서 종료가 된 후, 내가 우리나라를 보다 나은 다문화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것에 있어 어떤 활동을 더 하면 좋을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다. 그동안은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성남시 내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데 집중했지만, 작년에 활동이 종료된 후 다문화, 이주아동의 현장에서 직접 보고 배우고 뜻 깊은 일에 참여하고 싶었다. 그래서 다양한 다문화국제학교도 연락해보고, 활동을 찾으려 노력했다. 그 끝에 발견한 프로그램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아동인권센터의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프로그램이었다.

전에는 알지 못했던 프로그램이라서 알게 된 후 진심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원서를 쓰면서부터 조원들이 활동하게 될 주제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보게 되었다. 교육 현장에서의 차별이 공통주제라는 것을 알게 된 후, 그동안 쉽게 다가서지만은 못했던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접근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3일간 캠프에서 활동하며, 이 주제를 조원들에게 이주아동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공유하며 조심스럽게 제안해보았다. 기쁘게도 이 주제가 채택되었고, 우리는 약 3개월간 이 주제로 활동하게 되었다.

비록 짧은 시간 동안의 활동이어서 큰 규모의 활동은 하지 못했지만, 지금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돌아보면 우리가 한 모든 활동이 의미 깊은 것 같다.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하며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에 대한 기사를 서로 찾아보며 공유하고 이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관련 법안이 없다는 점을 알게 되어 안타깝게 느끼면서 대책을 궁리했다. 관련 단체 6~7곳에 우리의 활동을 알리면서도 더 배우고 싶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메일을 보냈던 경험, 그리고 그 6~7개곳 중 한 곳에서 답장이 와서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의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에 관한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었던 경험, 그곳에서 돌봐주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을 직접 마주한 경험은 모니터링단으로서의 활동이 아니었다면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내게는 사회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고, 또 뜻을 함께하는 친구들과 이를 공유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들려고 했던 작은 노력들이 모두 소중했다. 비록 모니터링단은 지금 종료되지만, 이런 경험들은 훗날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제를 마주했을 때 이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를 내는데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에 함께 열심히 활동해준 조원들, 그리고 우리를 늘 도와주시려 했던 코디네이터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린다.

OOO) 아동인권 당사자로서 모니터링을 한다는 뜻 깊은 경험을 하게 되어 뿌듯한 마음입니다. 특히, 교직에서 아이들을 만나기 위한 준비과정 속에 있는 저에게 아동인권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처음 들어보았기에, 아동의 권리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활동을 시작할 때는 ‘과연 우리가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너무 큰 목표를 잡아서 중간에 포기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두려웠으나,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이 조금 이나마 보장된다면 정말 기쁜 것이라는 생각으로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평소 찾아보지 않았던 논문과 언론자료를 보면서 미등록 이주아동의 현실에 대해 많은 것을 몰랐던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지금은 편하게 교육을 받고 있던 제 자신을 되돌아보았고, 대한민국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다양한 법률의 개선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제아동인권센터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어 뜻 깊었습니다. 아동의 권리를 위해 힘써주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 뵈면서 저 또한 당사자로서 아동의 권리를 알리고 보장받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교육현장에서도 대다수의 친구들이 아동인권에 대해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으로서 이를 알리기 위해 조원들과 아동인권 책을 읽고 국제아동인권센터에 방문해 아동인권과 관련된 사회 현실을 이해하고 아동인권 보장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동인권의 보장을 위해 노력한 의미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제공해주신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아동인권센터에 감사드립니다.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니터링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아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가 곧 모든 이의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실인지 의문이 들었는데, 아동인권에 대한 배움을 이어나가면서 점차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소외받는 사람의 인권, 즉 아동의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이 바로 인권 실현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아동들을 위해 활동하는 모니터링단과 국제아동인권센터의 노력이 아동인권의 실현되는 사회가 되기 위한 밑거름이 되어 아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가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000) 항상 학교에서 인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단조롭고, 지겨웠다. 당장 나와 관련된 인권을 찾아보고, 학습하기보다는 일반적인 학습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번 활동을 통해 처음 주체적으로 '아동인권'을 접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내가 모르는 새로운 인권을 알게 되었다. 특히, 미등록 이주아동과 관련한 주제로 활동을 하면서 직접 인터뷰도 진행해보았다. 인터뷰를 하면서 등록된 아동인 내가 얼마나 국가로부터 교육권을 잘 보장받고 있는지 다시금 살펴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권 보장은 등록된 아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거주한 모든 아동들에게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교육권뿐만 아니라 아플 때도 신분을 증명 받지 못해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나는 이 경험과 활동을 통해 아동인권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생각을 명확히 하게 되었다. 나는 이 활동에서 배운 점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매우 뜻 깊었다. 이런 활동이 또 있다면 활동하고 싶다. 나는 우리 ○○조가 했던 모든 것들은 비록 지금은 작으나, 언젠가 큰 힘을 만드는 데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000) 다양한 매체에서의 외국인 관련 소식들을 접하면 종종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서 이들에 대하여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었고,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없었던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아직 미등록 이주 외국인을 위해서는 정부가 많은 지원과 활동을 해야 하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에 관련된 정책을 많이 실시해야 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책과 법 사이의 충돌이 없어지도록 법의 개정 등 많은 것들이 변해야 하고, 그리고 이를 위한 과정은 정말 힘들 것이라고 느꼈다. 하루아침에 미등록 이주 외국인이 살기 편한 국가가 되기에는 힘들고, 이들을 반대하는 집단이 있기에 더욱 힘들다는 것은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들에 대한 시선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다양한 정책이 이루어지더라도 자기 자신의 시선이 변하지 않는다면 달라질 것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또한 카드뉴스 제작과 굿즈 제작 등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서 정말 즐겁고 이가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생각에 더욱 즐겁게 활동 할 수 있었다.

000(코디네이터)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져 온 예은이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우리 ○○조의 모니터링 주제는 함께 공부하면 할수록, 논의를 하면 할수록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잘 드러나는 주제였다. 단순히 자신의 부모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 하나로 아동이 국가로부터 온전히 자기 자신을 부정당하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내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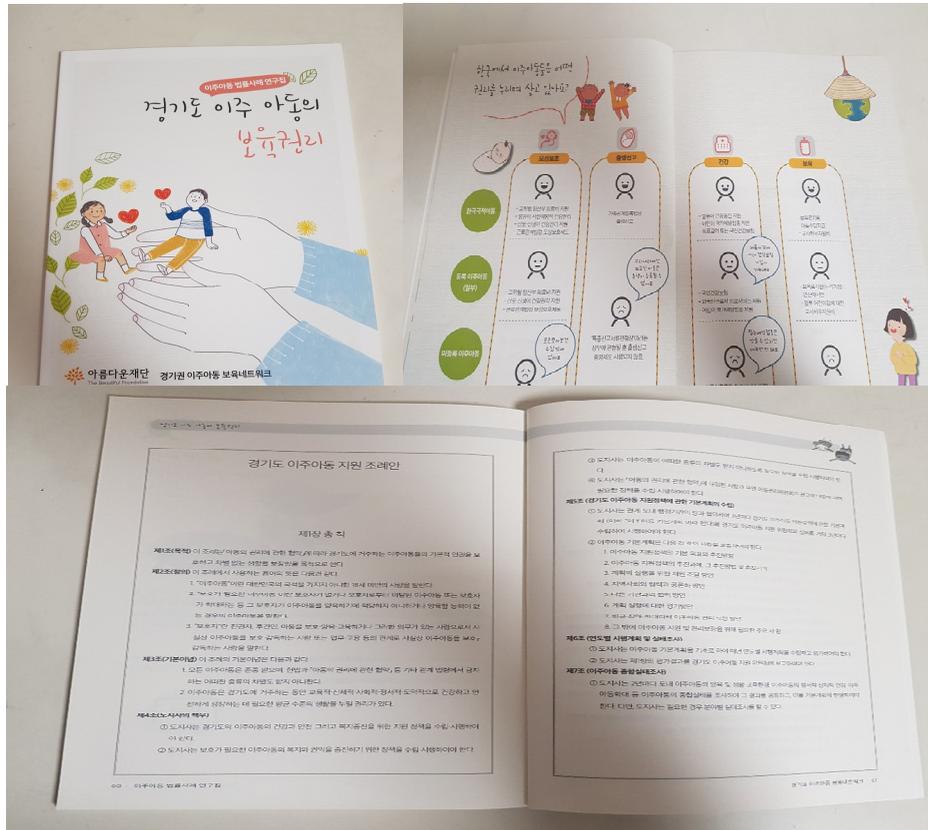
엄청난 충격이었다. 동시에 아동들이 어떻게 이 문제에 접근할지 코디네이터로서도 걱정되는 지점이 많았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은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혀있어,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와 다르게 아동들이 자신이 실현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였고, 이에 도달하기 위해 체계적인 목표를 세워 노력하였다.

아동들의 용기와 추진력이 없었다면 본 활동은 쉽게 진행되지 않았을 만큼 열정 가득한 아동들의 모습에 항상 감동을 받았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우리만의 속도로 목표에 다가갈려고 한 우리 예은이, 가은이, 성경이, 성아 모두에게 큰 칭찬을 해주고 싶다. 이번 활동을 통해 권리의 주체자로서 사회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처럼 나뿐만 아니라 너의 권리도 함께 생각하고 바라봐주는 멋진 사람들이 되길 항상 응원 한다♥♥

6. 첨부자료

▲ 남양주 외국인복지센터 인터뷰 진행 (2019.09.09.)



- 해당기관에서 받은 책자 일부

△ 인터뷰 내용정리

1)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의 활동?

- 경기도이주아동보육네트워크 중 유일한 미인가 시설로, 12개월부터 7살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섞인 형태로 이주아동을 보육하고 있다. 앞에 가구공장단지가 있는데 무허가 건물이었고 굉장히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 그래서 그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많이 오셨었다. 지금은 이주노동자분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2) 미등록 이주아동이 학교는 갈 수 있는가?

- 학교는 갈 수 있다. 2~3년 전에는 학교장 재량이었다. 교육부는 외국인 아이들을 받게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거절하는 학교들이 있다. 그런데 거절하는 곳들에 아이들을 보내면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라 아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조금 더 열린 자세를 지닌 학교들로 보낸다. 원래는 이주아동과 한국인 취약계층이 다녔던 분교가 있었으나 올해부터 없어졌다. 하지만 학교로 아이들을 보낼 때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누군가가 아이, 부모님을 위해 보증을 서야 한다. 그런 역할을 센터가 하고 있기도 하다. 참고로 미등록 이주아동은 체류자격이 없는 친구들이고 무국적 이주아동은 한국국적도 없고 외국 국적이 없는 친구들인데, 이 개념을 구분해서 알아두었으면 좋겠다.

3) 아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 법무부의 출입국이 강제단속을 나왔을 때 아이들이 부모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목격하면 아이들은 상당히 큰 트라우마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생긴 트라우마로 경찰이 출입국 관련 업무를 하지 않음에도 경찰만 보아도 두려워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아이들은 자신이 한국인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본국 소환 명령을 받으면 왜 돌아가야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외모 차별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있어 교사,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부모님이 저 아이는 다르게 생겼으니까 놀지 말라고 한 사례도 있었는데 그런 사례에서는 아이들은 부모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게 되어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에 대한 인식을 잘못 주입할 경우 그것이 그대로 차별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센터에 찾아오는 이주노동자 가족이 호소하는 어려움들에는 무엇이 있나?

- 아이들이 어리면 집에서 돌보아야 하니까 그것이 이주노동자 가족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이다. 이주노동자들은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하는 입장이고, 한쪽만 벌어서 생활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에는 어린이 / 보육수당, 양육수당 등의 지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특정 시간 동안 보육할 수 있는 곳에 맡기는 것조차 큰 부담이 된다. 게다가 저녁까지 근무하는데 저녁까지 근로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센터가 운영하는 무지개 보육원에서는 아이들을 돌봐주기도 하고, 생필품을 필요시 제공하며,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상담을 하기도 한다.

5) 국가에서 해주는 지원은 굉장히 적을 것 같다.

- 그렇다.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16종을 제공하고 있어서 미등록 이주아동도 이 예방접종은 원래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그 약을 갖고 있지 않으면 못 맞고,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한 병원들로 가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한국인은 무료이지만 이주아동은 돈을 내야한다. 그 외에도 이주아동 보육과 관련된 부분들은 일반 교회라든지 재단들에서 하고 있다. 경기도 이주아동보육 네트워크의 군포 아시아의 창, 오산 다솜 어린이집, 안산 코시안의 집 같은 경우들이 다 이런 경우이다.

6) 언론에서는 다룰 수 없거나 다루지 않은 내용 중 미등록 이주아동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을까요? 도움이 더 필요한 부분들은 무엇인가요?

- 이주아동이 한국에서 계속 지내면서 의사소통의 문제를 겪게 된다. 아이들은 계속 한국어 배워나가는데 부모님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무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아이의 학습이 멈춰버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언어 발달이 많이 미흡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집에서는 따갈로그어(필리핀 현지 언어)를 쓰고 그래서 다 알아듣기는 하지만 말하는 것에 있어서는 한정적일 수 밖에 없다. 부모님이 한국어를 집에서 못 쓰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

7) 이주아동을 대상으로 현재 한국어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 이 경우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중도 입국한 아이들이 조금씩 차이를 보일 것 같다. 부모님은 출신국의 언어를 쓰고 그래서 집에서는 한국어에 대한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학교에서는 사실상 아이들이 읽고 쓰기 하는 부분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안다는 전제 하에 가르쳐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경기도의 일부 학교에서는 다문화 특별학급이라는 제도를 운영해서 분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5학년 1반에 속해 있으면 이 아동은 5학년 1반과 함께 다문화 특별학급에 속하게 되어 한국어 분반 수업을 듣게 된다. 약 146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학급들이 있는 곳은 따로 담당 교사가 있고 이주아동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에 주로 있다.

8) 경기도 이주아동보육네트워크 일부로서 활동을 이어나가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활동들의 진행과정은 어떠한지?

- 이주아동 관련 단체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처음이다. 그 전에는 사실상 각자의 지역 안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바빴고 1차적인 보육이 주였다. 지금은 합심해서 법, 조례를 바꿔나가고 권리를 수면 위로 올려서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다. 네트워크의 활동은 “보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보육 권리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는 편이다. 하지만 건강권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이주아동 보육 조례안은 변호사님들과 경기도의회 김영삼 의원과 함께 작업하고 있는 중이다. 올해 4월에 간담회를 해서 이 조례안이 왜 필요하고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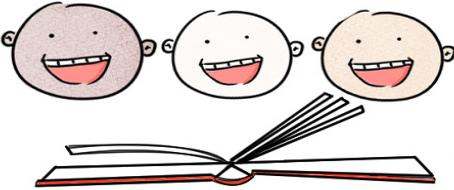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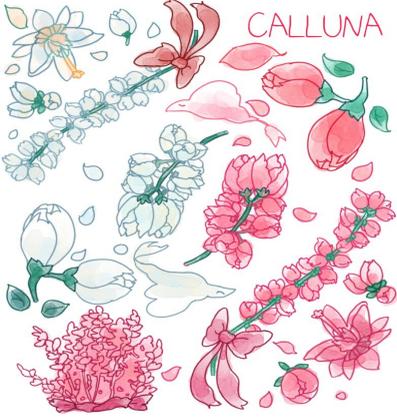
9) 경기도에서는 특히 “경기도 이주아동 지원조례안” 이 추진되고 있다고 뉴스 기사에서 읽었는데, 이 조례안의 경우에는 현재 어떤 상태인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다.

- 난민 반대 세력을 포함해서 반대세력이 의원을 압박,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간담회에 찾아와서 반대 의견을 강력히 피력하는 상황이다. 아직 상정을 하지 못한 상태이고 하반기에 상황을 살펴 넣어보려고 하는 상태이다. 조례안은 1) 이주아동 기본 정책을 3년에 한 번씩 세우게 하는 것, 2) 이주아동 관련 실태조사를 2년에 한 번 추진하는 것, 3) 이주아동에 대한 지원조례 운영위원회가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4) 이주아동의 교육권, 건강권, 보육권을 지키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 정도로 나누어진다.

▲ 굿즈팀 굿즈 제작 (노트북 스티커 및 다이어리 스티커)

△ 굿즈도안 제작

| | |
|---|---|
|  | <p>Luceat Lux Vestra =당신의 빛이 빛나도록 :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지닌 잠재적인 빛이 교육을 통해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p> |
|---|---|

| | |
|---|---|
|  | <p>함께하다, 교육, 학습</p> <p>: 인종,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들이 교육의 기회 앞에서 균등해야한다는 의미로 제작한 스티커이다.</p> |
|  | <p>heather.01</p> <p>: heather의 꽃말은 보호, 행운, 소원이 이루어지다 이다. 이 꽃말처럼 미등록 이주아동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으며, 자신의 소원을 펼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스티커를 제작했다.</p> |
|  | <p>heather.02</p> <p>: heather의 꽃말은 보호, 행운, 소원이 이루어지다 이다. 이 꽃말처럼 미등록 이주아동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으며, 자신의 소원을 펼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스티커를 제작했다.</p> |

▲ 카드뉴스 제작팀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를 기반으로 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에 관한 정보제공과 인식을 제고하고자 카드 뉴스를 제작하게 되었다.

△ 박성경 제작 (카드뉴스 =미등록 이주아동의 정의와 실태)

교육 현장에서의 차별

미등록이주아동

제1장. 미등록이주아동의 정의와 실태

국제아동인권센터 아동인권당사자 모니터링단 'OO' 조



Made with MANGOBOARD

... 미등록이주아동이란? ...

미등록이주아동

- ① 국내 체류 자격 없이 살아가는 18세 미만의 아동
- ②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의 체류자격에 의해 자신의 체류자격이 결정되어 미등록이라는 사유로 아동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욕구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대상.
- ③ 체류자격이 없어 대한민국 공적 장부에 등재되지 않고,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로서 우리나라 법의 보호 밖에 놓여있습니다.




Made with MANGOBOARD

Q. 이들이 받는 피해는 무엇인가요?

출생을 포함한 차별과 사회적 배제

학습권 보장X

우리나라 국민으로 인정(X)
→ 의무교육의 기회 보장(X)
입학 절차도 까다로움

생존에 대한 위협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이 가능함.
불법입양, 아동학대
무방비 노출.

공식적으로 미등록 이주아동은
'존재하지 않는 아동'이므로
필수예방접종 서비스, 건강보험 혜택 등
기초적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없습니다.



Made with MANGOBOARD



Q. 이들을 위한 법은 없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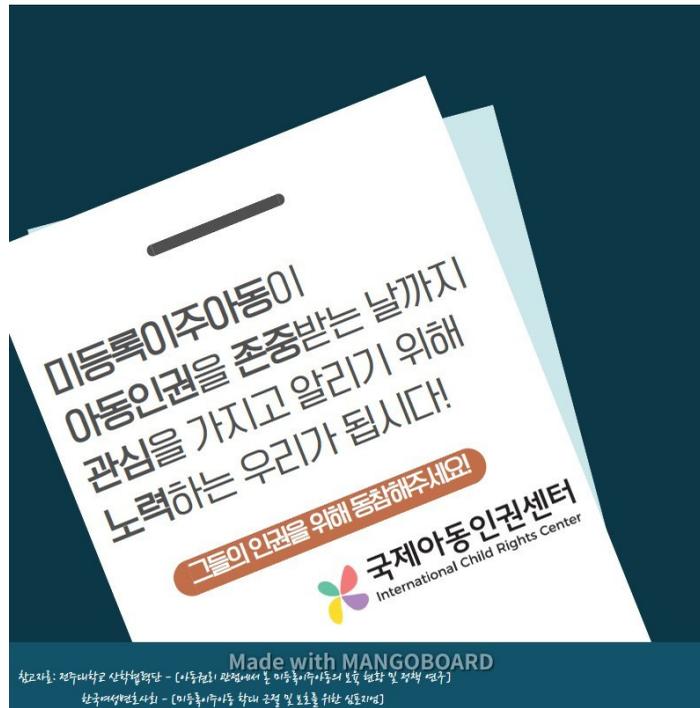
- 대한민국에는 외국인 근로자나 재한외국인과
관련된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 재한외국인: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 미등록이주민과 아동은 대한민국에 등록(X)
→ 법의 적용대상 (X), 이들을 지원할 법적 근거 부족.

- 미등록이주아동과 관련된 법이 부재한 대한민국,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합니다.

Made with MANGOBOARD



△ SNS 주소

페이스북: 2019 아동인권당사자 모니터링 ‘○○’

인스타그램: childrightsmonitoring

2019 아동인권당사자 모니터링 최종활동보고서

| | | | |
|-------|-----------------------|---|-----|
| 주 제 |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통합교육 | | |
| 모 둠 명 | 경상도 | | |
| 모니터링단 | 류조은, 김한나, 박태욱 | 총 | 3 명 |
| 코디네이터 | 윤이도 | | |

■ 우리들의 목소리(핵심 메시지)

아동도 인간이다.
 그렇기에 아동의 인권은 중요하다.
 한명도 제외 없이, 모든 아동이.

우린 한명도 놓치지 않고 모든
 아동의 인권을 챙겨주기 위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아동의 인권을 위해 나선다.

교육부의 국가 교육 슬로건,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모든 장애아동도 우리 모두의 아동.

대한민국 아동의 권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모니터링해요!
장애아동도 우리 모두의 아동

1. 주제 선택 이유(문제 제기)

지금까지 다녀보았고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장애아동을 많이 보았고 같이 놀았던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비장애 아동에 비해 많은 활동에 제약이 있는 모습을 보았다. 또한 경험했던 장애아동은 모두, 비장애아동이 소외시켰고 그렇기에 항상 따로 노는 장면 또한 보았으며, 우리 모두는 그 장면을 방관하기만 했다.

장애는 대부분 생애 끝까지 지속된다. 우리는 생각을 해보았다. 우리가 장애아동의 부모라면 자녀가 평생 동안 장애를 앓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속으로는 마치 절벽 앞에 있는 자동차에 타고 있을 법한 심정일 것이다.

장애아동도 인간이다. 인간은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하는 행동을 제외하곤 모두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순 있지만, 장애아동은 장애를 앓고 있는 동안에는 모든 활동에 큰 제약이 따른다. 즉, 비장애아동과 달리 행복을 추구하는데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

2. 목적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보다 하고 싶은 것들을 하게하고, 모든 활동을 하는데 있어 비장애 아동과의 차이를 최대한 최소화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그렇게 해서 모든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을 추구하게 해주며 행복이 마치 공공재처럼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혜택에서 배제할 수 없게 해주기 위해서이다. 공공재 이용에서도 제약이 있는, 세상에 유일한 인간이 바로 교정시설에 수감되어있는 수감자지만 장애아동은 교정시설에 수감되어있는 수감자. 즉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장애는 절대로 “죄”가 아니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말했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식 보낼 수 있는 군대 돼야” 우리는 장애아동도 교육을 누릴 권리가 있음에 따라 보장하고자 “장애아동을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가 안심하고 자식 보낼 수 있는 교육현장”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3. 활동 내용(모니터링 방법)

1. 인터뷰와 현장실태조사를 진행할 특수학교를 섭외하지 못하여 그에 대한 대안으로 자료 조사를 시행하기로 함. 또한, 특수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만한 기관에 다시 인터뷰 요청을 드리기로 함.

<역할 분담>

- 000 아동: 한국통합교육지원센터, 경남장애인옹호네트워크 두 곳에 인터뷰 요청.
 - 000 아동: 일반 학교에서 특수학교로, 특수학교에서 일반 학교로의 전학 사례 조사.
 - 000 아동: 통합교육의 실현을 어렵게 하는 요인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 조사.
 - 000 코디: 특수교육을 제공하는 주체자가 느끼는 어려운 점 및 개선 방안 조사.
2. 인터뷰를 요청한 기관 중 경남장애인옹호네트워크에서 다음에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다른 한 곳과는 연락이 닿지 않음.
 3. 자료 조사한 내용을 모아 이야기를 나눔. 일반 학교는 물론이고 특수학교에서도 장애 아동 교육이 충분히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또래 친구, 부모, 심지어 교사까지 장애아동과 그 교육에 관해 부진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을 인식하게 됨.
 4. 인식한 문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으로 모둠 아동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 만든 동화책을 만들어 여러 학교에 무료로 나누어 주기로 함.

4. 활동 사진



5. 활동 소감(아동 및 코디네이터)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 활동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하나도 기입을 하지 못하고, 봉사활동으로 남겨도 대입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가 매월 만나가고 쉬도 없이 카카오톡으로 회의를 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좀 더 이 사회에서 행복해졌으면 하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작년 2018년 아동인권당사자 모니터링단에는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해 모니터링 활동을 하였는데 많은 아동들이 놀 권리에 대해 모르고 있어서 설문조사나 인터뷰 활동하는데 많은 힘이 들었고 관련 기관에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요청을 해도 응답을 해주지 않아 많이 힘겨웠다. 그렇다고 이 모니터링 활동을 포기할 순 없어서 이번 2019년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도 참가하였다.

나는 이번 모니터 주제가 교육현장에서의 차별이라기에 흔히 언제나 볼 수 있는 특수목적 중, 고등학교나 학교의 정독실, 자습실 사용의 성적 우수자 특권 등의 일반적인 교육 현장 차별행위에 대해 모니터 하고 싶었으나 모니터링팀원의 다수 찬성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인권 모니터링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아쉽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지만 갈수록 하면 할수록, 인권 사각지대에 장애아동이 놓여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에 장애아동의 인권에 대해서 모니터 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의미 깊게 생각되었다.

나는 무엇보다 장애아동에 대한 자료나 기관이 많지 않아 애를 상당히 먹었다. 내가 처음에는 전교조와 교총의 갈등이 붙어넣은 일반 교육현장의 학생 차별 문제는 자료가 매우 많기 때문에 사실 이걸로 모니터링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정도였다. 우리는 인터뷰를 하려 해남학교와 한국통합교육지원센터, 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에 연락을 하였지만 현재까지 묵묵부답인 상태이다. 난 생각했다. 인권에 대한 실태를 알아가려해도 이렇게까지나 힘든데 인권을 향한 우리 모두의 인식을 고치는 것은 얼마나 더 힘든 것일까.

이번 활동에서 000 코디네이터님과 18년도에도 같은 모니터 활동을 하였던 000 누나, 이번에 새로 만난 000 누나를 만났는데 000 누나가 조금 까칠하게 간간하게 대해서 많이 속상했지만 지금 다시 보니 그 간간함이 더 좋은 모니터 결과를 도출해낸다는 생각에 안도가 되기도 했다. 000 코디님은 진주와 부산을 오가는 버스에서 나와 000 누나를 안전을 위해 같이 앉으라고 하시는 등 우리를 챙겨주는 보호자 역할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했고 000 누나는 현재 학교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어 바쁜 와중에도 이번 활동을 같이 잘 할 수 있게 도와줘서 너무 고마운 것을 느꼈다.

6. 첨부자료

통합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조사자료(000 조사). 끝

통합교육의 문제점

- 재정적 지원 부족으로 자료구입에 어려움이 많고 자료개발이 미흡하다.
- 특수교육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이 원만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다.
- 특수학급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학습자료 구입비 단가가 턱 없이 높다.
- 지도자료 교구,시설 등이 부족하다.
- 과중한 업무로 인해 개별지도가 불가능하다.
- 많은 학급으로 인한 개별화 교육이 불가능하다.
- 장애아동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 특수학급이 학교에 병설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 비장애아동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하여 개별 지도시간이 부족하다.
- 성적위주의 교육풍토가 학생들 간의 교류를 막는 것 등으로 나타났다.
-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이 미흡하다.
- 학습 자료가 부족하다.
- 적응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적다.
- 장애특성에 맞지 않게 아동을 배치한다.
- 교과서가 장애 단계별로 지도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 시설, 설비 낙후 및 교재 교구의 부족으로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 특수교육 담당자를 위한 전문교육이 부족하다.
- 특수교육교사 자격증 소지 교사의 담임 기피로 무자격 교사가 특수학급 담임을 맡는다.
- 특수교육에 해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갖춘 교육행정이 들이 부족하다.
- 교사의 자질과 장애아동의 정확한 판별과 같은 전문적 지도 기술이 부족하다.

해결방안

- 연수기회가 적고 교통이 불편하다.
- 연수내용이 현장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다.
- 교육과정의 수정은 융통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 교육과정의 수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교육과정의 수정은 일반학교 교육과정을 고려하되 장애아동의 특별한 교육적 요구에 적절해야 한다.

- 특수학급 장애아동을 지도하는데 요구되는 교수방법이나 수정된 교육과정의 적용에 관한 다양한 연수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교육과정 수정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교사는 항상 교육과정 수정을 통하여 그들이 설정한 목표를 성취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그들이 행한 수정의 효율성을 평가해야 한다.
- 특수학급 장애아동들을 지도하기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개발이 필요하다.
- 교육과정의 수정이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교사 재량에 맡기기보다 국립 특수교육원, 또는 시·도 교육청과 같이 책임 있는 기관에서 특수학급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반 교육과정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수정 연구들을 활발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 설문조사나 질문 또는 형식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수집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 직접적 관찰에 의해 정보를 수집한다.
- 체계적인 결과물의 검사를 통해 정보의 수집이 필요하다.
- 총액으로 교부하고 있는 '학교 운영비'와는 별도로 그 동안 목적성 예산으로 시·도마다 특수학급에 지원해온 '특수학급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 신임 특수교육 업무 담당 전문직을 위한 직무연수를 의무화해야 한다.
새로 특수교육 업무를 맡는 장학사들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한다면 실제적인 장학 행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 통합교육의 실천을 통한 성공적 사례를 중심으로 통합교육의 실험적 실천을 통해 그 검증 자료를 확보하여 학교중심으로 통합교육의 성공적 실천사례가 확산되어 가도록 한다.

2019 아동인권당사자 모니터링 최종활동보고서

| | | | | |
|-------|--------------------|---|---|---|
| 주 제 | 교육현장에서의 장애아동 차별 | | | |
| 모 둠 명 | 도담도담 | | | |
| 모니터링단 | 김지은, 박경록, 이정민, 황이현 | 총 | 4 | 명 |
| 코디네이터 | 예선영 | | | |

■ 우리들의 목소리(핵심 메시지)

“장애아동이 미래의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적절한 교육 및 환경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동이 겪고 있는 차별은 다양하다. 하루의 시간을 대부분 집이 아닌 학교에서 보내는 만큼 아동이 겪고 있는 차별의 대다수는 교육현장에서 발생한다. 그 중에서 사회적 소수자인 장애아동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장애아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 특수교사 인력부족, 시설미비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장애아동은 현재 교육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아동이 후에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비장애인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그들에게 적절한 교육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집값 떨어진다고 자기 동네에 특수학교 짓기 꺼려하는 지역주민, 특수교사 인력부족으로 인해 장애유형이나 정도가 다른 아이들을 거의 혼자 감당해야하는 특수교사, 우리는 ‘정상인’이며 장애인과는 다르기에 그들의 가치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만 여기는 비장애인들의 잘못된 인식처럼 현재 장애아동의 인권과 교육권은 침해당하고 있다. 우리는 교육현장에서 장애아동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들이 당하고 있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이 사실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인식개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1. 주제 선택 이유(문제 제기)

UN아동권리협약을 보면 '제23조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인격을 존중받고 자립하여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장애아동은 후에 성장하여 비장애인들과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그들을 위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실태를 보면 인력부족, 시설미비 등으로 인해 그들에 위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 목적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 특수교사 인력부족으로 인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문제, 시설미비 등 교육현장에서 장애아동이 겪는 차별은 무궁무진하다. 우리는 불평등이 다른 아동들보다 더 많았을 장애 아동을 위해 활동하고자 했다. 특히, 개인에게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식들을 습득하는 과정이 일어나는 곳인 교육현장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만들고, 문제점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인식개선을 위해 힘쓰는 게 우리의 목표다.

3. 활동 내용(모니터링 방법)

8월: '장애아동의 차별에 대한 실태 조사'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자 했다. 현재 차별에 대한 문제 인식을 먼저 해야 차별의 심각성을 느끼고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8월 11일 오후 1시에 경산역에서 모여 같이 현재 사람들의 장애 아동 차별에 대한 인식을 알기 위한 설문지 문항을 함께 정하고, 설문지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파악하고자 했다. 그리고 자료 조사도 역할을 나누어 수행했는데 역할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코디) : 장애학생의 특수학교 입학 문제&특수학급 현황 조사

OOO : 선생님 등 인력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Ex)케어x, 방치, 일반 교과목

OOO : 장애 아동이 학교에서 배제되는 문제

ex)체육시간, 현장학습, 시험시간, 수업시간 등

OOO : 학교 시설로 인해 불편을 겪는 경우

ex)오르막길, 엘리베이터x, 장애인화장실x, 보도블럭x

OOO : 장애아동 개개인에 맞는 적합한 교육을 받고있는가 문제

인터뷰도 각자가 만날 수 있는 장애학생, 교수님, 인권에 관심이 많은 선생님, 담임 선생님, 특수학교 교사 등과 같은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 아동에 관한 이야기를 다각도로 접근하려 했다. 그래서 8월 25일 일요일 모임에선 각자가 수집한 인터뷰 및 자료들을 분석하고 문제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카드뉴스와 포스터를 만들 계획을 세웠다.

9월: 모든 자료들을 바탕으로 '장애 아동 차별 인식을 알리는 매체 만들기'를 중점으로 두어 활동했다. 우리가 만들어 공유한 매체는 카드뉴스와 포스터다.

9월 1일의 만남에서는 카드뉴스를 만들었는데 장애 아동이 자신이 학교에서 겪은 차별을 직접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보는 사람들이 공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선생님의 인력 문제,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은 교육과 현장체험학습에서 배제되는 다양한 차별을 설명하고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말로 마무리를 지었다.

9월 29일 일요일 모임에서는 학교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다루었다. 장애인 화장실의 개수가 부족한 점과 경사로나 점자블록에 대한 시설미비는 물론 핸드레일 같은 편의시설이 있지만 관리가 잘 안 되어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사실을 전달해서 장애인의 학교 시설에 관한 개선도 필요함을 알렸다.

10월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다른 모둠과 함께하는 협동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10월 26일 토요일 캠페인 하루 전, 캠페인을 준비하기 위한 포스터를 작성하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만남을 가졌다. 장애 아동 및 아동의 성적 차별을 알리고 인식 개선을 위한 포스터를 만들고 현재 사람들의 인식을 알기 위한 설문조사도 계획했다. 그래서 10월 27일 일요일 대구 2·28 공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포스터를 나누고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캠페인을 진행할 때 직접 사람들을 만나고 말을 건네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었다.

4. 활동 사진



5. 활동 소감(아동 및 코디네이터)

1) 아동

예전부터 아동인권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장애아동에 관해서 관심이 깊었는데 내가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특수학교에 봉사활동을 꾸준히 가면서 느낀 점은 인력부족의 심각성이었다. 장애유형이나 정도가 다른 학생들을 한 교실에 모아두고 교사와 사회복무요원 각각 한 명씩 배치되어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그 후로 특수교육이나 장애아동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서적 등을 통해 혼자 정보를 찾아보곤 했다. 그동안 관심은 많았지만 이와 관련된 활동을 직접 해볼 생각은 못했었다. 우연히 이 캠페인을 알게 되고 나와 뜻이 비슷한 친구들을 만나 함께 모니터링단을 하면서 내 스스로의 인권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활동하는 동안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특수학교에 가서 직접 현직교사를 만나 인터뷰도 해보고 실제로 길거리에서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해보으로써 나의 인권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위해 나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었다. 이번 모니터링단 활동을 발판 삼아서 아동인권의 증진을 위해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해보고 싶다.

2) 아동

학교의 수업을 통해 현재 아동이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늘 간략히 다루어 아쉬운 점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모니터링단 활동은 나도 현재 교육현장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으로서 우리 주위의 차별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이 차별의 심각성을 더욱 깊이 깨닫고 우리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직접 생각해볼 수 있었다. 같은 배움을 받는 아동으로 공감가는 일이 많아 더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할 수 있었고 주위 사람들부터 인식 개선을 촉구하는 등 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들을 실제 나의 환경에 적용할 수 있었다. 이번 모니터링단을 활동한 것을 계기로 앞으로도 아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인권에 관심을 갖고, 또 이런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실천하리라 다짐했다.

3) 코디네이터

나는 장애아동의 사회성, 언어발달 등에 도움을 주는 예비 언어치료사로써 장애아동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생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활동을 시작했다. 특수학교에 봉사를 갔을 때 서로 다른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들이 개인에게 맞는 적합한 교육을 받지 못한다고 느꼈고, 일반학교에는 편의시설도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장애아동 인식개선, 설문조사, 편의시설 부족에 대한 포스터와 카드뉴스를 만들며 이 환경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여러 지역의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과 활동을 하는 것은 더디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발맞춰나가는 것이 아주 의미 있는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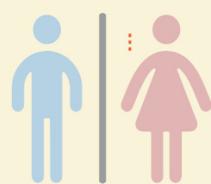
6. 첨부자료

학교에서 시설부족으로 겪는 어려움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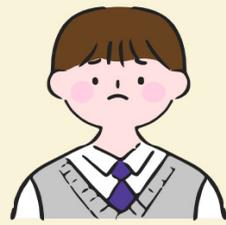


장애인 화장실의 문제점



장애인 화장실이 부족해요.
 각 층마다 있어야 할 화장실이
 1~2개밖에 없습니다.
 화장실이 있어도 번기에 손잡이가
 없어서 이용이 힘들고,
 휠체어를 탄 학생은 세면대가 높아서
 사용이 힘들어요.

학교 안밖에서의 문제점



경사로가 부족 해서 등교할 때 불편해요.
 길을 찾기위해 안내도를 봐야하는데
 점자안내도가 없고, 점자블록 또한 없어요.
 휠체어를 타고 쓸 수 있는 책상과 문이 없어요.
 책을 읽고싶어서 도서관에가도
 점자책이나 음성지원이 없어요.

그 외 시설 문제점



편의시설이 있어도 오래됐거나 고장이나서
 사용이 어려워요.
 핸드레일의 경우, 손잡이가 낡고
 잡으면 가시가 박혀서 사용할 수 없어요.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 도담도담

불편한 수업시간

학교 다니기 너무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입니다.
학교생활 중 겪는 불편함에 대해 말해볼게요.



제가 **현장학습**을 가고 싶어도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집에서 쉬는 날이 많아요. 사전지도를 받거나 친구를 짝지어주면 잘 어울릴 수 있을 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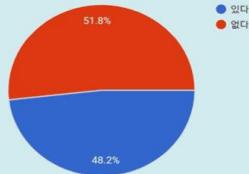


학교 친구들은 **장애인 비하/혐오 발언**을 하거나 저를 보며 수근거리기도 해요. 또 다르다는 이유로 불편하게 느껴서 저와 놀지 않으려고 해요.



1. 일상생활에서 장애인 비하/혐오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는가?

응답 56개





선생님

제게도 고충이 있어요.
학생들을 다 신경쓰거나 적합한 교육을 하려고 해도 **인력 부족**으로 힘들어요.

현재 많은 장애 학생들이 비하/혐오발언, 개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교육, 수업시간 배제, 교사 인력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등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2019 아동인권당사자 모니터링 최종활동보고서

| | | | | | |
|-------|-------------------------|---|---|---|--|
| 주 제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 | | | |
| 모 둠 명 | 백조 | | | | |
| 모니터링단 | 천유민, 김서연, 이재경, 전재인, 음수빈 | 총 | 5 | 명 | |
| 코디네이터 | 정연휘 | | | | |

■ 우리들의 목소리(핵심 메시지)

“우리도 학생입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학생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주체적으로 진로를 계획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지해주세요.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안 다닐 뿐 우리와 같은 청소년의 신분으로써 사회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다른 것은 틀림이 아니다.

비록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3번, 온라인으로는 거의 자주 만났지만 공식적으로는 1번 만나였지만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그들을 위한 마음은 진심이었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져 미래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교육이 있는 곳이라면 모두 교육현장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양한 교육 받으며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계획해 나가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해주세요.

학교를 다니고 다니지 않고는 그냥 단순한 차이일 뿐입니다. 다양한 교육현장 속에서 많은 학생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지지해주세요!

대한민국 아동의 권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모니터링해요!
(학교 밖 청소년! 꿈과 희망을 안고 살자!!)



1. 주제 선택 이유(문제 제기)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대상을 선택하고 그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주제를 잡은 이유는 첫 번째 우리 모둠원들이 다른 모둠과는 다르게 모두 고등학생 이상이고 고등학생 1학년 2명과 3학년 3명 그리고 코디네이터 언니인 대학생까지 연령대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자퇴를 한 학생들을 생각보다 자주 접할 수 있었고 소셜미디어나 뉴스에서도 듣고 보다 보니 자퇴생들에 대해서 관심이 갔습니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한다면 자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퇴를 하였다 하면 먼저 좋지 않은 인식이 박혀있어서 자신이 자퇴를 하였다는 사실을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고정관념 때문에 자신이 선택한 길을 속 시원하게 말하지도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였으면 하고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청소년증을 발급하려 면사무소에 갔는데, 면사무소 직원 분께서 학교를 안 다니냐고 회의적인 눈빛으로 저에게 여쭙보셨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를 다니는 저도 회의적인 말투로 물어보시는게 기분이 안 좋았는데, 실제 경제적 문제나 진로 등의 사유로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향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인식 제고를 하고자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교육현장에서의 차별 중 교육현장이라고 여겨지는 곳은 보통 학교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이 있는 곳이라면 모두 교육현장임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학교를 나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받고 있는 차별이나 실태를 알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주제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듣고 싶었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자체의 개념조차 모르고, 부정적인 인식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선택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의 활동으로 인해서 인식이라도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식 개선이 모든 일에서의 첫 발자국이라고 생각합니다.

2. 목적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그들이 삶을 만들어 가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차별적 의미에 대해 시사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신분증 청소년증을 홍보함으로써 청소년증에 대한 학생들과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식 확장을 유도하였습니다.

더불어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 역시 학교 밖 청소년 용어를 바꿔보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경험한 부정적인 시선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끔 유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캠페인을 진행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빨리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자퇴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의 삶이 자신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미래와 꿈을 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여도 우리는 그들이 선택한 길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꿈과 희망을 위해 지지를 해주고, 응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자퇴를 하였다면 그들이 앞으로 만들어갈 길을 응원해주고 지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닌 자퇴이라고 하더라도 그들한테 응원의 메시지와 힘을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사람들은 그러기보다는 비난과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그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활동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옹호활동을 통해 차별이 존재하는 인식을 실태 조사하여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 희망메시지를 전하는 것 또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개선을 목표로 SNS(페이스북)홍보 방법도 사용하였습니다.

3. 활동 내용(모니터링 방법)

(8월)

용어 바꾸기

2. 인터뷰 대상 정하기 + 내용 정하기 + 내용 정리

- 대상 : 유튜버 + 학교 밖 청소년 / 일반인 (학교 다닌 사람 또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 / 꿈드림 검정고시 관계자 / 쉼터 관계자

3. SNS(페이스북) 홍보 계획

4. 캠페인 활동 => 판넬 만들기

5. UCC 홍보 (실행하지 못함)

(9월 / 10월)

페이스북 활동지 제작

활동 개요

인터뷰 내용 정리

청소년증 홍보

(11월)

캠페인 활동

4. 활동 사진





5. 활동 소감(아동 및 코디네이터)

OOO :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아동인권에 대한 활동을 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인권 모니터링단에 신청하게 되었었는데, 감사하게도 합격이 되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아동인권 에 대해 고민해보고 활동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굉장히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언제쯤 친해질까 하고 걱정했지만 2박3일 간의 레크레이션과 활동 이후 돈독한 사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남을 가질 때에도 서로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 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배려하며 조율하면서 여러 번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밖에 나가서 캠페인을 하였는데, 우리 조의 주제인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 개선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 메시지를 적어 주셨는데, 내용이 모두 너무 감동적이었고 적극 참여 해주신 것에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인식 개선의 희망을 볼 수 있었고 무언가를 위해 열심히 계획하고 마지막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OOO: 평상시 놓치고 지나갔던 학교 밖 청소년 인식 제고에 대한 방안을 이번 기회를 통해 캠페인을 구성하고 카드뉴스를 제작하며 마련할 수 있어서 뜻 깊었습니다. 평상시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제적 문제나 진로 등의 사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찍히는 사회적 인식이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모니터링 활동을 하면서 그들의 시선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사회적인 인식이 오히려 그들을 차별 받는 소수자와 사회 부적응자로 만들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사회적 인식을 SNS나 캠페인의 방식으로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었고, 미래의 교육가가 되어서도 이러한 인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OOO : 아동인권모니터링단이 되었을 때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떨리고 설레는 마음이었다. 단지 그런 마음이었는데, 캠프를 진행하고 나서 생각보다 규모가 큰일이고 정말 진지하게 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내가 아직 현실을 잘 몰라서 아동의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내가 그런 것을 개선해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반면에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이 노력이 필요하고 내가 살아오면서 사람들이 추진하였던 활동이나 캠페인 등이 많은 정성과 시간을 들여서 공들여 해낸 결과물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서툴기도 하다보니까 그러지 못한 것 같다. 만약에 내가 다음번에 또 아동인권 모니터링단에 참가하게 된다면 그 때는 이번에 하였던 것을 바탕으로 하여 더 나은 활동을 만들 수 있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OOO : 평소 인권에 관심이 있었고 청소년지도사라는 진로를 가지고 있기에 관심을 가지고 아동인권 모니터링단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기본적인 아동, 인권, 아동인권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였고 직접 활동주제를 정하여 활동할 수 있어서 더욱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보고서나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도중 모니터링단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주제로 직접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좀 더 바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었던 기회였기에 더 뜻 깊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으로 마지막 활동을 하였는데 내년에는 코디네이터로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OOO : 작년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주제를 선정하고 조원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특히나 교육현장에서의 차별은 현재 아동들이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던 주제였기에 다른 조들도 원활한 활동이 이루어졌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입장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선정 주제가 어려웠지만,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육현장에서 받는 차별은 쉽게 찾을 수 있었고 그만큼 다수에게 빈번하고 실제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여 저희의 활동으로 온라인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개선을 진행하였고 2천 명가량에게 게시물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인식개선 방법도 깨닫게 되었으며 청소년증도 홍보하며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차별일 수도 있다는 편견의 생각을 깰 수 있었습니다. 아동의 시각에서 아동의 권리를 모니터링한다는 것은 정말 매력적이었고 인식개선을 목표로 편견과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감에 행복했습니다.

조장으로써 크게 기여한 바는 없지만 믿고 열심히 활동해준 조원들에게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2년 동안 아동들의 인권을 위해 활동했던 것을 바탕으로 코디네이터로 아동들의 모니터링을 뒷받침해주고 싶습니다.

OOO: 평소에도 아동에 대한 차별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아동들과 함께 다양한 주제 속에서 스스로 골라 스스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도 좋았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고르게 되어서 때때로 힘들 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 개선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도 새로웠습니다. 차별 없고 항상 꽃길만 걸기를 바라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더더욱 지지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이런 아동 인권에 대한 활동이 또 개최된다면 활동을 진행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동 인권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서 좋은 인연들을 만들게 된 것도 행복했습니다.

6. 첨부자료

백조와함께하는
'학교 밖 청소년' Story



왜 '학교 밖 청소년' 인가요?

2019년 '아동 인권 모니터링단' 공통 주제는 교육현장에서의 차별이에요. 그렇다면 왜 백조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세부 주제를 선택했을까요?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자체의 개념조차도 모르고, 부정적인 인식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떤 활동을 계획하나요?

1. '학교 밖 청소년' 용어 바꿔보기
2. 인터뷰로 차별 실태 및 인식 알아보기 (학교 밖 청소년 / 일반인 / 꿈드림 관계자 / 쉼터 관계자)
3. 청소년증 홍보하기
4.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 온오프라인 캠페인 진행하기

이 같은 활동들을 모두 페이지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페이지와 게시물도
좋아요
꾸욱** 
누리주세요!

백조와 함께 생각 나누기

학교 밖 청소년 편

안녕하세요
아동인권모니터링단 백조입니다!

저희는 아동권리 옹호활동을 통해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적 인식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 현장에서
받는 차별 실태 및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 재학생 인터뷰

학교 밖 청소년을 보거나 들으신 적 있나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꿈을 이루거나 타당한 목적을 위해서가 아닌 단지 학교가 다니기 싫어서 자퇴하는 사람들의 인식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고정관념으로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나 예능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재능과 끼를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유튜버 서경 인터뷰

1 언제 자퇴를 하셨나요?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14살 때 했구요! 자퇴 계기는 저는 4학년때까지 사립학교를 다녔고 원래 홈스쿨링 할 생각이었어요. 제가 학교에서 좀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학교에 있어봤자 저만 힘들어질 것 같아서 자퇴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2 학교를 그만두셨을 때 주변의 반응은 어땠나요?
음.. 주변 어른 분들은 저 힘들었던 거 아셔서 많이 격려해주셨어요!

3 학교 자퇴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장점은 제 시간을 제가 계획해서 쓸 수 있어서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구요! 또 제가 하고 싶은 공부들(음악)도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게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 했을 때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4 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차별받으신 적 있나요?
음... 그런 적은 많죠... 누굴 만나든 간에 학교를 안 다닌다고 하면 무시하고 그런 일은 항상 많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면서 댓글에도 무시하고 차별하는 악플들이 엄청 많구요

5 학교 밖 청소년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이기도 해요.

꿈드림 관계자 인터뷰

1 어떤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오나요?

주로 학교 밖 청소년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들의 공간"입니다. 청소년들이 학교를 나온 다음에 갈 곳을 찾아 학업이나 취업 지원과 같은 다른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편입니다.

2 학교 밖 청소년 차별 사례를 보거나 들어보셨나요?

본 적은 없지만 학교 안에서 차별을 받아 그 차별로 인해서 나오는 친구들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3 개선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여러 상황으로도 학교를 나올 수 있는 것인데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선생님들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며 포용력 있게 행동하셨으면 좋겠고 친구들은 많은 생각의 시간을 가지고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대입만을 바라보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해 학교를 나오는 친구들이 많은 만큼 이에 따른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꿈드림 관계자 인터뷰

꿈드림 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지원과 제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나요?

지원이 학교에 비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학교 밖 청소년이 청소년비율에서 소수이지만 이들도 청소년이고 동등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나온 후에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찾을 수 있는 제도와 그 도움을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을 때에도 대도시의 활용, 연계할 수 있는 곳 등 방문 및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많은 반면 그 외의 지역들은 상황이 열악합니다. 지원이 수도권 아이들에게 치중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은 지역에서도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대도시 지역들에게 연계시켜 지원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청소년쉼터 관계자 인터뷰

1 어떤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오나요?

학교를 다니거나 다니지 않는 학생 모두 방문합니다.

2 학교 밖 청소년 차별 사례를 보거나 들어보셨나요?

딱히 본 적이 없습니다.

3 국가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가요?

여성가족부와 사형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금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찾아다니는 활동, 간식과 게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담도 진행합니다.

4 또 어떤 개선방안이 필요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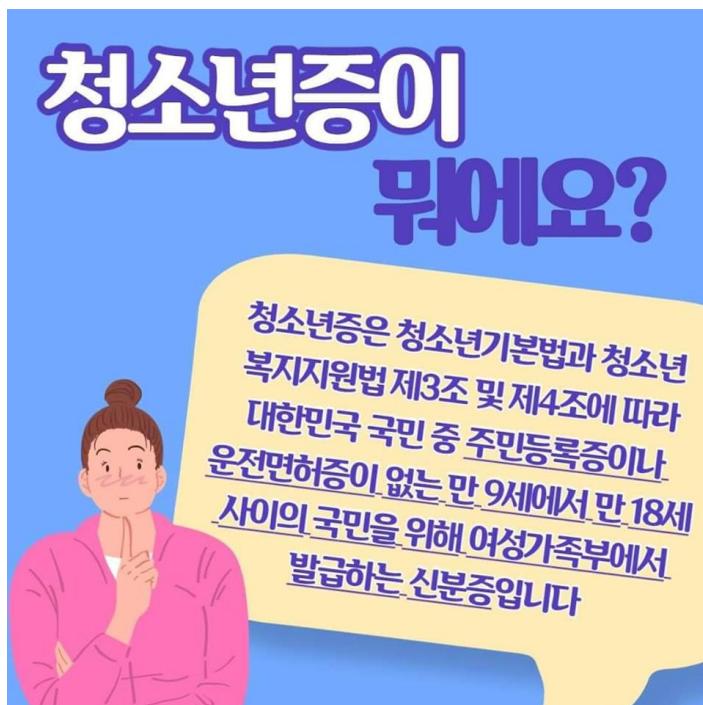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수당을 제공하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수업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자립 수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8학조의 활동과 소식이 궁금하신가요?

 아동인권 모니터링단  좋아요



발급 방법 및 장소가 궁금해요!

온라인 발급

발급 비용: 무료
발급 기간: 2주 ~ 1달
발급 방법: 복지포털 사이트 방문

유의 사항

1. 청소년 본인이 신청해야 함
2.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제출

온라인 신청 불가능 경우

1. 신규 신청 / 신청한 적이 없는 경우
2. 신청인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3. 외국 국적의 청소년인 경우

오프라인 발급

발급 비용/기간: 온라인 발급과 동일

유의 사항

1. 대리인 증명서류 제출 시 대리발급 가능
2.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가능

필요 서류

1. 발급 신청서
2. 반명함판 사진 (3X4)



무슨 용도로 사용 가능한가요?

청소년 신분증명 카드로 활용
ex) 검정고시, 자격시험

수송 시설 이용료 할인 및 면제
(1) 버스/지하철 20% 할인
(2) 여객선 10% 할인



문화 시설 이용료 할인 및 면제
(1) 공원 면제 or 50% 할인
(2) 영화관 100-500원 할인
(3) 공연장 30-50% 할인
(4) 미술관 30-50% 할인

※청소년증사용시 준수사항

1.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X
2.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의 증표사용X



좋아요 꼭!
아동인권 모니터링단

제작 아동인권모니터링단 FACEBOOK

@전재인 @이재경 @김서연@음수빈@이재경 #아동인권모니터링단
 @전재인@정연휘@천유민

다음 소식도 기대해주세요!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아동인권센터

페이스북 페이지 '아동인권 모니터링단' 주소 :

<https://www.facebook.com/%EC%95%84%EB%8F%99%EC%9D%B8%EA%B6%8C-%EB%AA%A8%EB%8B%88%ED%84%B0%EB%A7%81%EB%8B%A8-102171801149644>

2019 아동인권당사자 모니터링 최종활동보고서

| | | | | |
|-------|---------------------|---|---|---|
| 주 제 | 교육현장에서의 성차별 | | | |
| 모 둠 명 | 아동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아말1) | | | |
| 모니터링단 | 이다영, 박선아, 김채연, 홍준영 | 총 | 4 | 명 |
| 코디네이터 | 박하은 | | | |

■ 우리들의 목소리(핵심 메시지)

교육현장에서 아동들은 자신도 모르게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모둠은 교육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성차별을 주제로 하였습니다. 교육현장에서 체육 시간에 남녀 활동 종목이 다른 것과 선생님들의 성차별적 발언으로 차별받는 아동들이 있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현장에서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선 선생님들은 아동을 이해하고 아동은 선생님들을 이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아동의 권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모니터링해요!
(선생님, 성별이 뭐가 중요해요?)



1. 주제 선택 이유(문제 제기)

처음부터 저희 조는 체육 시간에 종목이 달라서 차별을 받는 아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학교에서 탈의실이 여자 탈의실만 있어서 남녀 서로 불편한 점이 있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고정관념과 안 좋은 인식으로 인한 차별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교육현장에서 받는 성차별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는 교육현장에서의 성차별로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2. 목적

아동은 선생님의 성차별적 발언을 당연하다고(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선생님의 생각을 이해하며 시대적 차이를 인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아동의 권리를 항상 생각하며 발언해 주시고 아동과 같이 시대적 차이를 인정하시면 좋겠습니다.

3. 활동 내용(모니터링 방법)

첫 모임(1차)은 원주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원주에서는 성차별 경험을 묻는 온라인 설문 조사 문항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모임(2차)은 춘천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춘천 모임에서는 캠페인에 관련된 문구나 일정, 시간, 준비물 등을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모임(3차)은 속초에서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캠페인을 준비하였습니다. 문구를 넣어 팸말 만들기와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포스트잇에 쓰는 질문 팸말을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모임(4차)은 원주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미리 연락을 드린 후 저희는 000 선생님(초등학교 선생님이자 남성 페미니스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모임(5차) 춘천 명동에서 1시간 정도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4. 활동 사진



5. 활동 소감(아동 및 코디네이터)

○○○(아동) : 성차별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일어나지만, 찾기 쉽지 않았다. 그러나, 아동당사자 모니터링 활동을 하면서 성차별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그냥 넘어가기 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인터뷰 활동을 할 때 어른들도 아동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놀랐고, 아동들의 입장에서 배려하며 행동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셔서 놀라웠다.

사실 내가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권리를 침해당했는지 내가 수치심을 당했는지 등을 모르고 넘어가기 일상이었는데 이 활동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데 나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아동당사자 모니터링 활동은 나만이 아닌 모든 아동들에게 추천해 주고 경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모든 아동들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으면 좋겠다.

○○○(아동) : 여러 번 만나면서 캠페인 계획도 짜보고 온라인 설문조사도 해보고 굿즈도 만들어보고 인터뷰도 하면서 바쁘게 지냈었던 것 같다. 이번 활동을 통해 아동이 받고 있는 차별에 대해, 그 중 교육현장에서의 성차별에 잘 알게 되었고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도 있고 활동하면서 성차별에 대해 느낀 생각 또한 많았지만 나한테 가장 크게 느껴졌던 부분은 설문조사를 해보고, 인터뷰도 해봤던 다양한 경험들이다.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활동을 하는 동안 즐거웠고 앞으로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싶다.

○○○(아동) : 아동 권리 스스로 지킴이단을 하고 나서 잠시 잊고 있었던 아동의 인권을 다시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모둠에 언니들과 친구가 있어서 든든하기도 하고 멘토님과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캠페인도 여러 지역에 가서 해보니 더욱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동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지신 어른들(멘토님)이 잘 알고 해결해 주시려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했습니다. 처음엔 거리로 나가서 캠페인을 하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캠페인 참여 해주시는 분들께서 좋은 말들을 해주시고 가셔서 오히려 부듯했습니다.

○○○(아동) : 예전에도 한 번 했던 활동이어서 기대가 컸었다. 그리고 기대한 보람이 있는 활동이었다. 지역별로 모여서 모임을 하기 편했고 사람이 적어서 한명 한명 의견을 듣기 편했던 것 같다. 모인 사람들도 생각이 트여있어서 서로 말이 통했고 더 수준 있는 인권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활동기간이었다. 시간이 짧아 캠페인을 제대로 못한 게 아쉽다. 기간이 좀 길었으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볼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인권활동으로 인해 사람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사회에 대한 시야가 넓어진 것 같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계속 신청할 것이다.

OOO(코디네이터) : 이렇게 소감을 적으니,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다는 것이 실감이 나네요. 다 같이 캠프에 모여 공부하고 활동했던 것이 정말 옛그제 같은데, 벌써 모니터링 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니 참 신기해요. 우리 팀원들 모두 학교생활 하면서 설문조사하랴, 캠페인 준비하랴, 인터뷰 준비하랴 정말 고생했어요. 게다가 모임 때마다 집에서 먼 다른 지역까지 가느라 피곤하고 힘들었을 텐데 늘 괜찮다고 말해주고, 밝은 얼굴 보여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 덕분에 캠프에서 목표로 잡았던 활동들을 함께 잘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부족한 점 많은 코디네이터였지만, 모임 때마다 팀원들이 늘 따뜻하게 맞아주어서 행복했어요. 다음에도 이렇게 아동인권을 위해 활동할 기회가 생기면 그때도 또 같은 멤버로 활약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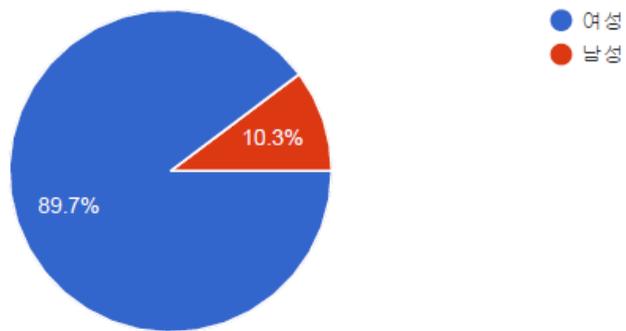
그리고 언제나 조력해주시는 국제아동인권센터 참여확산팀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6. 첨부자료

<강원지역 교육현장에서의 성차별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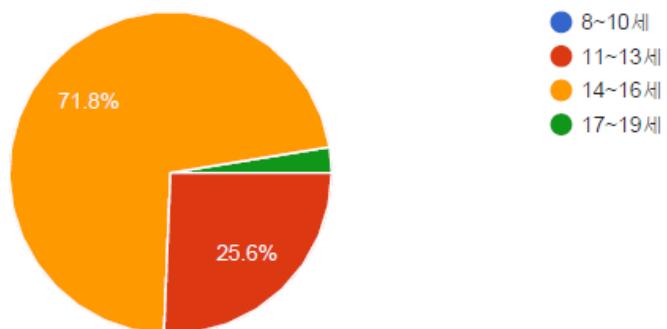
성별

응답 3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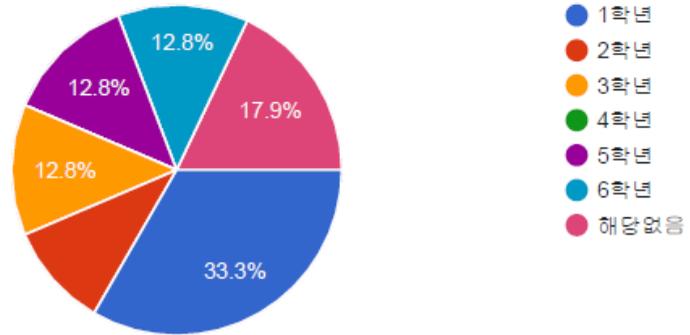
나이

응답 3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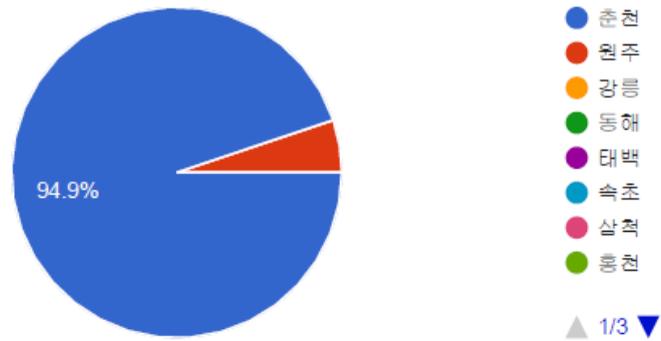
학년

응답 3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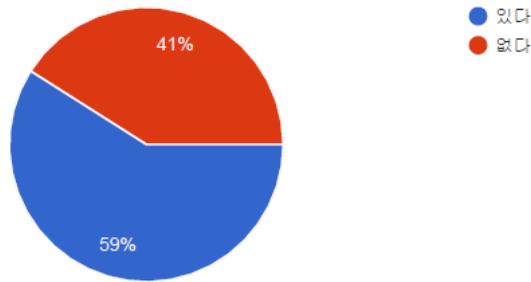
지역

응답 3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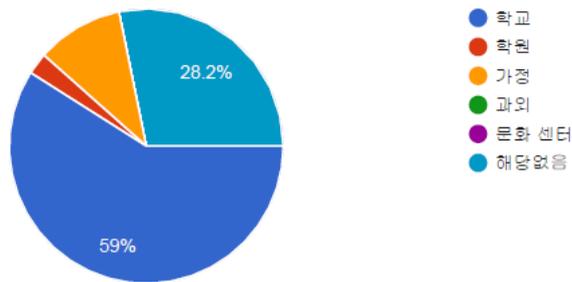
1.1 나는 교육현장에서 성별로 인해 차별을 경험하거나, 본 적이 있다.

응답 3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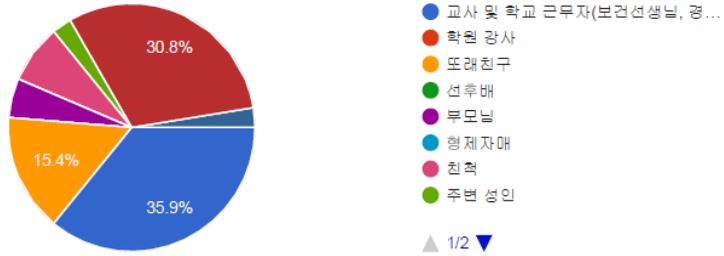
1.2 성별로 인해 차별을 가장 많이 경험한 곳은 ()이다.

응답 3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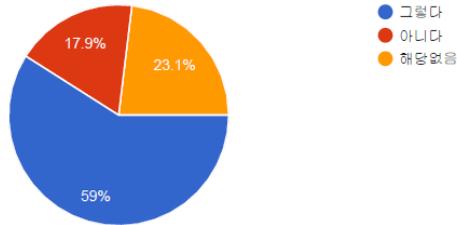
1.3 성별로 인해 차별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이다.

응답 3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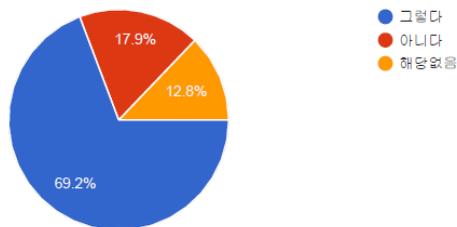
2. 선생님의 편의를 위해 반 자리 배치를 성별에 따라 정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예: 모둠별 수준을 맞추는 이유로 남학생만 있는 모둠에 일부러 여학생을 포함시킨다.)

응답 3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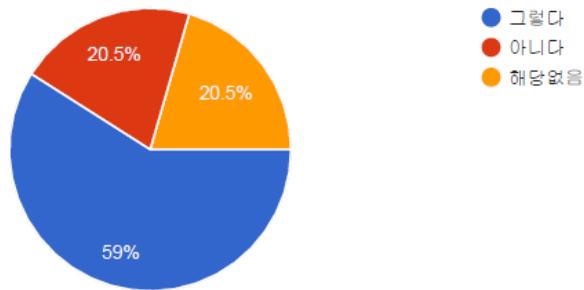
3. 여자는 여자답지 못하다, 남자는 남자답지 못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응답 3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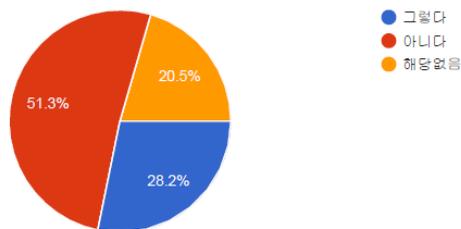
4. 성별에 따라 스포츠 활동 기회나 체육시간 참여 정도가 달라진다.

응답 3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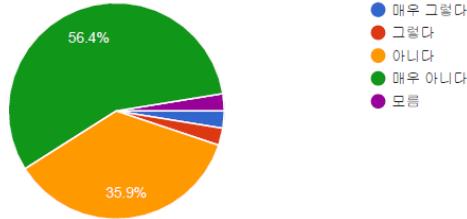
5. 성별에 따라 정해진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예: 여학생은 반드시 치마 교복을 입어야 한다.)

응답 3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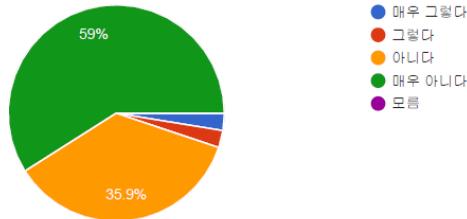
6. 남학생들만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한다. 여학생들은 무거운 것을 들면 안된다.

응답 3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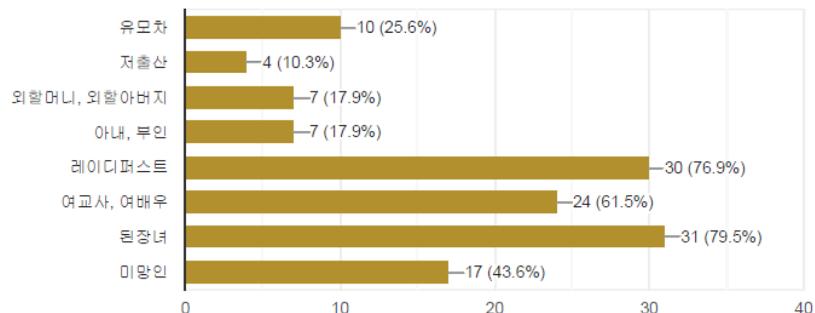
7. 남학생들이 화장을 하거나 머리를 기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혹은 여학생들이 화장을 하지 않거나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응답 39개



8. 다음 단어 중에서 성차별적인 단어를 모두 고르세요. (중복 가능)

응답 39개



9. 자신이 경험한 교육현장에서의 성차별을 적어주세요.

응답 17개

선생님이 너는 남자니깐
다쳐도 괜찮다며 다쳤는데 방치했다

동아리
시간에 남여 따로 모둠으로 앉음

지금은
함께하지만 1학기때 남자는 무용대신 체육을하고 여자는 무용을 했습니다.

체육시간에
여자 남자 하는 운동이 다름

.

"남자애들은
이성적이고 수학, 과학을 잘해.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남학생이 풀자."

없음

성 차별
당한적이 별로 없다

여자는
무용 남자는 체육 정말 기분도 나쁘고 차별에 대한 생각이 들어 무용을 듣는 여자 학생들이 이의 제기를 하자 지금 현재 모두가 무
용을 하게되었다
ㅠ

남자는
체육하고 여자는 무용을 하는것 남자는 모동일을 못하여 여자가 있어야된다고 모동을 배치하는것 체육 부장을 여자가 하면 할게
없다고 하는것
등등

여자애들은 1학기때
일주일에 한번씩 체육시간에 무용을했는데 그시간에 남자애들은 체육을했고 2학기때 남자애들은 겨우 2시간만했던것이 정말 짜
증났다. 왜 여자애들만
특별히 체육시간에 남자아이들과 달리 무용을 하는지 모르겠고 이게 수업으로 지정되어서 하는거라고 하시는데 왜 여자애들만 1
학기때 무용을 해야한다고
수업으로 지정됐는지도 모르겠다

선생님께서
남학생들은 주의가 산만하다는 이유로 여학생 모듬에 남학생 1명을 집어넣었다

여자는
안전해야해 다리벌리면 안돼 조신해야해 등등과 같은 발언을 들은적이있다

맨앞자리에
앉아있는 친구의 키가 커서 뒷자리 친구가 안보인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옆으로도 큰거 같은데 라며 바야냥 됐다

여자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책을 읽을땐 뭐라고 하시면서 남자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책읽을때는 뭐라고 안하신다. 그리고 혼이 날때도
성차별이 좀 심하게
티내도록 혼을 내신다

왜
.....

2019 아동인권당사자 모니터링 최종활동보고서

| | | | | |
|-------|-------------------------|---|---|---|
| 주 제 | 교육현장에서의 성차별 | | | |
| 모 둠 명 | 플러스커뮤니티 | | | |
| 모니터링단 | 윤서희, 임연진, 임선형, 조은재, 박찬빈 | 총 | 5 | 명 |
| 코디네이터 | 박재영 | | | |

■ 우리들의 목소리(핵심 메시지)

< 각자 개개인의 특성을 존중해주자! >

수많은 교육현장 속에서 아동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능력이 아닌 단순히 '성'으로만 차별받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서 이번 저희 모둠의 주제를 '교육현장에서의 차별'로 정한 이유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아동의 권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모니터링해요!
(각자 개개인의 특성을 존중해주자!)



1. 주제 선택 이유(문제 제기)

우리 조가 아동성차별이라는 주제를 정한 이유는 아동 성차별이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이기도 하고 우리가 개선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 목적

- 1) 학교에서의 성차별 없애기
- 2) 아동 성차별에 대한 인식 개선

3. 활동 내용(모니터링 방법)

1차 모임(8월 25일)

1. 학생과 선생에 대한 인터뷰 정리
지난 회의에서 교사, 학생에게 5가지씩 질문을 정하여 각자 인터뷰를 해오기로 했다. 녹음본과 기록을 취합했다.
2. 카드뉴스 제작
코디네이터가 미리 템플릿을 제작하여 의견을 듣고 회의를 통해 내용을 채웠다.
3. 캠페인 준비
일시, 장소, 준비물, 역할 분담을 했다.
인식 개선 캠페인은 의견을 총합하여 피켓을 만들어서 2개는 홍보용 문구 넣고 1개는 스티커 붙여서 설문조사를 하고 옆에서는 퀴즈를 풀 수 있게 하기로 결정했다.
캠페인 퀴즈 내용을 정했다.
상품으로 텀블러를 나눠주기로 했고 텀블러 문구와 디자인을 했다.

2차 모임(9월 22일)

1. 캠페인 준비
순천역에서 만나 모임장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캠페인 피켓을 제작하였습니다.
2. 캠페인 실행
순천버스터미널과 미즈여성아동병원에서 피켓을 들고 스티커를 붙이거나 캠페인을 안내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캠페인을 했습니다.
- 2) 아동 성차별에 관한 피켓 제작
- 3) 아동 성차별에 관한 캠페인 활동

3차 모임(10월 13일)

3차 모임은 광주 유스퀘어에서 만나 크게 3가지 활동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UCC 계획을 하였습니다. UCC는 각자 자기 지역에서, 성차별과 관련된 메시지 혹은 구호를 외치는 10초~20초 가량의 동영상을 찍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PPT를 제작하였습니다. PPT 제작은 먼저, 큰 틀을 잡은 뒤 살을 붙여 내용 구성을 했습니다. 1차 모임부터 4차 모임까지 내용을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 나누기를 하였습니다. 소감 나누기는 한 명씩 돌아가며 첫 모임부터 3차 모임까지의 소감을 종합해 PPT 제작 할 때 내용을 넣었습니다.

4차 모임(10월 27일)

1. UCC 계획과 촬영

성차별에 대한 메시지나 구호를 말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기로 했다.

2. PPT 마무리

한줄 소감을 넣고 PPT를 마무리했다.

3. 아동최종활동보고서 작성

역할을 분담해서 작성했다.

우리들의 목소리(핵심 메시지) - 000

주제 선택 이유(문제 제기) - 000

목적 - 000

활동 내용(모니터링 방법) -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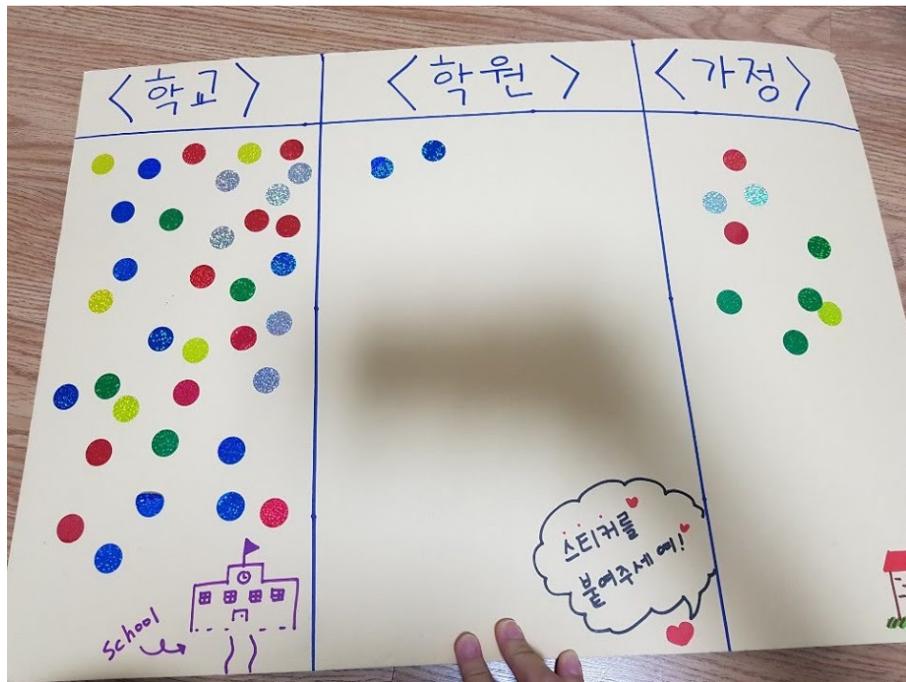
- 3차 모임 - 000

4. 전시물 정하기

피켓, 자료집, 텀블러를 전시하기로 했다.

4. 활동 사진





5. 활동 소감(아동 및 코디네이터)

000

인터뷰가 제일 인상 깊었다. 평소 학교 선생님들에게 수업(공부)에 관한 질문만 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터뷰를 하고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가치관)에 대해 알게 되어서 뜻깊었다.

캠페인 활동에 참여를 못해서 아쉬웠다. 그래서 다음 캠페인 활동에는 참여해야겠다.

정기적은 아니지만 다양한 연령대의 친구들과 회의하러 만나면서 생각(의견)을 나눠보고 다함께 '성차별'에 대한 인식개선을 하려고 노력했던 점이 좋았다.

활동을 하고 나서 이전과 달라진 것은 단순히 '성차별'이 안 좋고 어떤 것이 성차별인지만 알고 있었는데, 모니터링단 활동을 하면서 성차별 인식개선을 위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인식 개선 운동을 하였다는 점이다.

차별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옹호 운동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000

모니터링 활동들 중에서 캠페인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캠페인은 준비하는 과정도 너무 재미있었고 캠페인을 하니 더욱더 재미있었습니다. 물론 저희의 말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가 제작한 텀블러를 받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캠페인을 할 장소에 먼저 연락을 드려 미리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캠페인을 다시 한다면 순천터미널에서 사전허락을 받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저희가 제작한 텀블러를 받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입니다.

활동을 하고 나서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아동인권의 침해를 더 예민하고 세심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라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 캠페인을 한다는 것이 신기했고 재미있었습니다.

000

제일 인상 깊었던 활동은 캠페인입니다. 캠페인을 함으로서 시민분들이 잘 참여를 해주지 않아서 인식 개선을 위해 좀 더 힘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인식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점들과 아직까지는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분들이 아직은 적다는 점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캠페인 활동을 좀 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소가 불안정 하였고, 시민들의 참여도 적었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에는 좀 더 계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쓰는다는 취지가 좋았고, 조금이라도 인식이 개선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즐겁게 하고, 계획하는 게 좋은 활동이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한 주제에 대해 남들보다 좀 더 알게 되어, 이것을 알릴 수 있는 지식이 생겼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성차별에 대해 알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차별을 겪으면서도 도움 청하는 방법을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보다는 성차별이라는 것에 대해 인식이 개선되고 관심을 갖고 더 알고 싶어 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활동들을 계기로 성차별을 당하고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더욱 발전하고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OOO (코디네이터)

인상 깊었던 활동은 텀블러 제작이다. 텀블러를 제작하면서 아이들이 생각한 대로 디자인한 물품을 실제로 만드는 게 뜻 깊었고 업체와 조율하여 물건을 주문하는 경험이 처음이라 색달랐다.

개선할 활동은 캠페인이다. 다음에 같은 활동을 하게 된다면 미리 날씨를 알아보고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주는 곳에서 아동들이 퀴즈도 내 보고 좀 더 여유롭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싶다.

활동을 하면서 아동 인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고 성차별이라는 의미에 관해 아동 주도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것이 목표였는데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줘서 좋았다.

활동을 하고 나서 아동 성차별에 대한 나 자신의 인식이 이전과 달라졌고, 주변에 청소년이 없었는데 이런 기회로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관심사 등 아동들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다. 또 캠페인을 하며 60대 시민분들도 아동 캠페인 피켓을 보고 관심을 가지시고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시는 걸 봤는데 캠페인으로 인해 사람들의 인식도 조금이나마 달라졌다고 생각한다.

이번 활동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할 수 있어서 좋았고 조원들과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6. 첨부자료

플러스 커뮤니티 최종결과보고

아동 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모듬원

코디네이터 박재영

조은재, 임연진, 임선형, 박찬빈, 윤서희

목 차



주제 소개



1차 모임



2차 모임



3차 모임



4차 모임



소감



마무리

주제 소개 //



성차별 :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받는 편견이나 차별

조원들이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많이 경험했던 차별 = 성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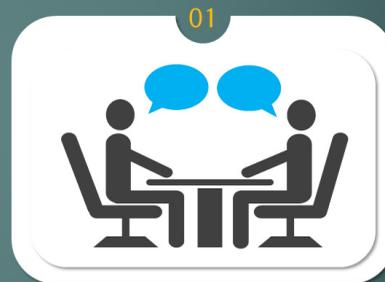
→ **성차별**을 주제로 선정
성차별 관련 인터뷰, 인식개선 캠페인 활동 실시

1차 모임 //

1 인터뷰 정리

교사, 학생에게 5가지씩 질문을 정해
각자 인터뷰

-> 인터뷰 내용과 녹음본 공유



1차 모임 //

2 카드뉴스 제작

카드뉴스에 들어갈 내용을 정하기

-> 성차별 실태, 인터뷰, 미래 성평등 사회



1차 모임 //

3 캠페인 준비

- 캠페인 장소, 방법을 결정
- 캠페인 및 준비 역할 분담
- 상품(텀블러) 디자인
- 퀴즈 내용 결정



한줄소감 //

- **윤서희** 처음 만나는 모임에서 어색했지만 처음에 잘 시작한 것 같다.
- **박찬빈** 캠페인이라 많이 걸어다닐 줄 알았는데 한곳에 머물러서 다 하니가 좋았다.
- **조은재** 인터뷰 한 내용이 다 다양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알 수 있었고 캠페인을 계획함으로써 좀 더 좋은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2차 모임 //

1 캠페인 피켓 제작

장소 : 미즈여성아동병원

우드락, 마카, 색연필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캠페인 피켓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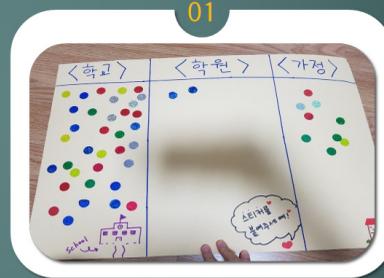


2차 모임 //

2 캠페인 실행

장소 : 순천버스터미널, 미즈여성아동병원

아동이었을 때 성차별을 당한 장소가 어디였는지 설문조사
"CHILD RIGHT" 문구가 있는 텀블러를 나눠드리며 아동의 권리를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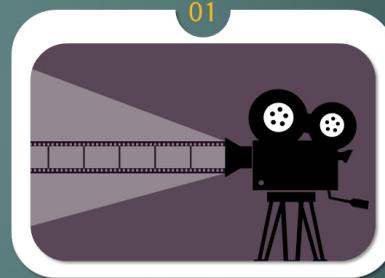
2차 모임 한줄소감 //

- **윤서희** 모니터링단 활동 중에 제일 중요한 캠페인에 아파서 참여 못해서 아쉬웠다.
- **박찬빈** 피켓 만들 장소가 마련되어있어서 좋았다.
- **조은재** 캠페인에 잘 참여해주지않는 사람들로 인해 인식개선을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임선형** 오늘 캠페인장소는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뜻깊은 경험이었다.

3차 모임 //

1 추가 마무리 활동

모두 모여서 구호를 외치는 UCC를
1~2분 가량 촬영해
추가 마무리 활동 계획



3차 모임 //

2 PPT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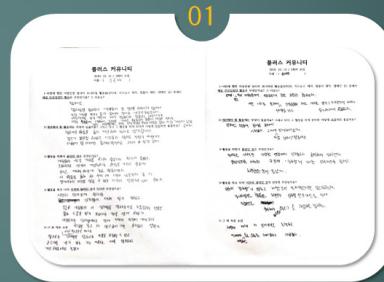
- 투표를 통해 템플릿을 결정
- 목차 구성
- PPT에 무엇을, 어떻게 넣을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눔



3차 모임 //

3 소감 나누기

각자 활동하면서 좋았던 점, 개선점, 활동 후 달라진 점 등 전체 활동에 대한 소감을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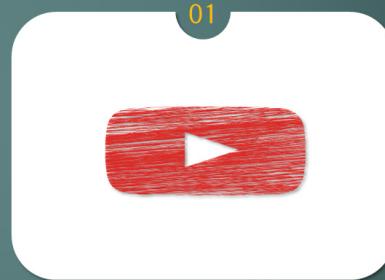
한줄소감 //

- 윤 서 희** 불가피하게 팀원들이 다 모이지 못해서 ucc를 못 만든 게 아쉬웠다.
- 박 찬 빈** ppt를 계획하니 재미있었다.
- 조 은 재** ucc계획을 짜면서 ucc를 처음 하게 된다는 게 기대가 되었고 한편으로는 어떤 말을 하여 "인식 개선"이라는 주제에 맞게 할지 고민이 되었다.

4차 모임 //

1 UCC 촬영

자기소개와 성차별 관련 메시지
혹은 성차별 구호를 외치는 영상을
자기 지역에서 촬영하기로 함



4차 모임 //

2 PPT 마무리

조원들 의견을 모아서 PPT를 수정하고
한줄소감을 작성함



4차 모임 //

3 최종활동보고서 작성

보고서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역할을 분담하여 최종활동보고서를 쓰고 전시하고 싶은 결과물을 정함



한줄소감 //

- **윤 서 희** 더 이상 팀원들을 만나지 못하고 발표를 직접 하지 못하니까 아쉬웠다.
- **박 찬 빈** 마지막 모임인데 모두가 모이지 못해서 아쉬웠다.
- **조 은 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마지막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여 아쉬웠다.

최종소감

1. 가장 인상깊었던 활동은?

은재 찬빈

01

캠페인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준비와 실행이 재미있었다
보람을 느꼈다

서희

02

인터뷰

평소 수업 질문만 하다가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과 가치관을 알게 되어
뜻깊었다

최종소감

2. 개선하고 싶은 활동은?

서희

은재 찬빈

01

캠페인

장소가 불안정했다
시민 참여가 적었다
더 계획적인 실행이 필요
참여하지 못해 아쉽다

최종소감

3. 활동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

서희

은재

01

인식개선

다양한 친구들과 의견 나누고
희망을 갖고 즐겁게 계획해
인식개선을 위해서 힘썼던 점

찬빈

02

캠페인

우리가 제작한 텀블러를 받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좋았다

은재

03

성차별 지식

활동을 통해서 한 주제에 대해
남들보다 좀더 알게 되어
알릴 수 있는 지식이 생긴 점이
좋았다

최종소감

4. 활동을 하고 나서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서희

01

직접 참여

직접적으로 성차별 인식 개선
운동을 했다는 점

은재

02

권리 침해 인식

아동인권의 침해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 청하는 법을
몰라서 도움받지 못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관심과 호기심이 생겼다

찬빈

최종소감

5. 그 외 자유 소감

01

윤서희

차별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자발적인 응호운동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02

조은재

앞으로는 성차별을 당하고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큰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로 더욱 발전하고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01

박찬빈

이렇게 전라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 캠페인을 한다는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단체사진 & 인스타그램 주소 //



PLUS COMMUNITY :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pluscommunity2>

2019 아동인권당사자 모니터링 최종활동보고서

| | | | | |
|-------|-------------------------|---|---|---|
| 주 제 | 교육 현장에서 성적 지향성에 따른 차별 | | | |
| 모 둠 명 | 마피아 | | | |
| 모니터링단 | 이다영, 박지현, 이민채, 장우진, 이서주 | 총 | 5 | 명 |
| 코디네이터 | 전단비 | | | |

■ 우리들의 목소리(핵심 메시지)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성적 차별이 학생들에게 의외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것을 알고 차별하지 말고,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자. 또, 어떤 성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두 같이 존중하자.

대한민국 아동의 권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모니터링해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1. 주제 선택 이유(문제 제기)

교육 현장 내에서 성적이나 외모 등 흔히 보이는 차별도 있겠지만 의외로 성적 지향으로 인하여 차별을 다한 사례를 많이 겪고, 듣고, 보았습니다. 교육 현장 내에서 아동이 여러 이유들로 인해 '성적 지향성'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로 인해 차별을 받거나 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게 사용하는 여러 주변 사례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성적 지향성'에 대한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 목적

-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성적 지향성에 따른 차별 때문에 상처받는 친구들이 줄어든다.
- 교육 현장에서 성적 지향성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

3. 활동 내용(모니터링 방법)

1차 모임(8/25) : 성적 지향성에 관한 인식 조사 설문지 문항을 모두 완성하였고 그 문항을 한글 파일 형태와 구글 폼 형태로 입력하여 완성했다. 또한, 마피아 팀의 캐릭터도 완성되어 전자파 차단 스티커 제작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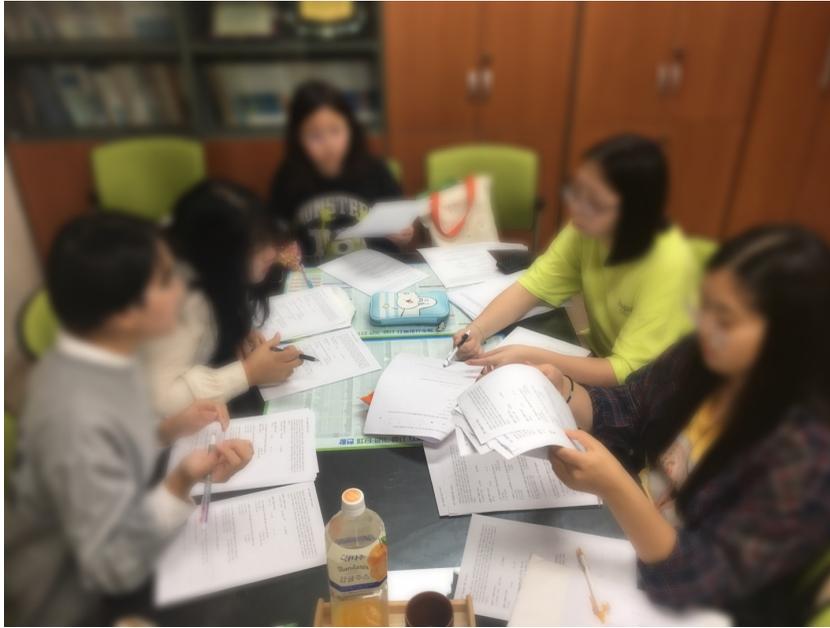
2차 모임(9/1) : 설문지의 내용을 문항 별로 종합적으로 통계를 냈고, 인터뷰는 성소수자와 이성애자로 내용을 나누어서 질문하기로 결정하였다. 전자파 차단 스티커는 두 종류의 모양 중 주변 의견을 물어봐서 한 종류로 택하기로 결정하였다.

3차 모임(9/8) : 스티커는 완성본을 스티커 출력 회사로 보내어 완성시키기로 하였고, 분배는 그냥 아는 지인에게 1인당 최대 100장씩 돌리기로 하였다. 스티커를 자르고 설명 내용 종이를 잘라서 포장하고 나누어 돌리기로 하였다.

4차 모임(10/27) : 수정한 스티커 도안을 주문하기로 하였고, 스티커의 설명문을 수정하였다. 또, 최종 보고서를 연습으로 작성해보았다.

5차 모임(11/2) :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성적 지향성에 관한 영화를 함께 관람했다.

4. 활동 사진



5. 활동 소감(아동 및 코디네이터)

000 : 이런 뜻 깊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영광이었고, 나 혼자서는 쉽게 다루기 어려운 문제를 다 함께 고민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서 더 즐거웠다. 다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활동할 기회가 오지 않게 되더라도 열심히 아동의 인권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다.

000 : 나만 성소수자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즐겁고 뿌듯했다. 또, 학교나 학원 등 일상적인 장소에서도 성적 지향성에 관해 언급할 때 늘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000 : 학생들의 생각도 많이 알게 되었고, 활동을 통해 의외로 더 많은 학생들이 교육 현장에서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을 당하고 있어서 놀라웠다. 또, 그런 내용들도 언니, 동생과 같이 정리하고 조사하고, 취합하고, 의견내고 하는 과정도 매우 즐겁고 매우 의미 있고 재밌는 활동이었던 것 같아서 나의 지난 일요일이 아깝지 않다.

000 : 일요일마다 모여서 활동하는 것이 조금 귀찮기는 했지만 내가 하는 일이 이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이런 활동이 있다면 참여해 보고 싶다.

000 : 아동들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직접 문제의 실태를 알리고 다른 이들의 생각을 바꾸어 나가는 과정이 뜻 깊었다. 우리의 일상에 아무렇지 않게 녹아있는 문제점들을 찾아내며 아직도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아동의 인권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아동들이 직접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이 별로 없는 것이 아쉬움을 느끼게 되었고 앞으로 내가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좋은 사람들과 뜻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했다.

000 코디 : 제주의 아동들이 모니터링단 캠프에서 많은 논의를 거친 후 선택한 ‘교육현장에서의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는 주제는 기대하지 못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아동들이 어떤 주제로 모니터링을 하든, 그것이 아동들의 경험과 일상으로부터 나온 이야기라면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했다. 성인으로서의 개입을 최소화 하고, 조금은 서툴러도 아동들의 힘으로, 아동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들어주고 격려하는 과정 속에서 아동들의 생각이 조금씩 자랄 수 있기를 바랐다. 감사하게도 그 과정 속에서 나 또한 요즘의 아동들의 일상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한정된 시간과 여건 속에서 열심히 활동 해 준 아동들에게 참 고맙고, 앞으로 이 아이들이 속한 이 곳, 저 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멋진 모니터링단 아동들이 되길 기대해본다.

6. 첨부자료

1. 설문조사 결과지

성적 지향성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총 99명 조사)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 ① 초등학교 고학년(42명) ② 중학생(37명) ③ 고등학생(20명)

성별이 어떻게 되나요?

- ① 여성(76명) ② 남성(23명) ③ 그 외

1. 성적 지향성이라는 단어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 ① 아예 모름(35명) ② 들어는 봄(29명)
③ 조금 알고있음(21명) ④ 정확히 알고있음(14명)

2. 사회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 ① 매우 부정적(14명) ② 부정적(42명)
③ 잘 모르겠음(28명) ④ 긍정적(10명)
⑤ 매우 긍정적(5명)

3. 교육 현장에서 성적 지향성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 ① 매우 아니다(20명) ② 아니다(30명)
③ 잘 모르겠다(41명) ④ 그렇다(8명)
⑤ 매우 그렇다

3-1.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을까요?

→ 긍정적으로

차별X

교과서나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

록 차별 없는 그림, 글 등의 환경 조성

이해해주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좋을 것 같다.

젠더와 성적 지향성 등 보다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성적 지향성이 무엇인지부터 교육이 필요하다

수업 때 한다.

전문가를 불러 교육한다.

학생들끼리 토론한다.

강의식

성소수자에 대한 것을 조롱하지 않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이나 이상만이 사랑이 아니다라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차별하지 말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라고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
잘 모르겠다.

관련 동영상/자료 시청

영상 시청 또는 얇은 책을 읽어서 교육했으면 좋겠다.

성소수자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고 증명하는 교육

성소수자에 대한 좋지 않은 편견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교육을 하면 좋겠다.

강사 초청, 독서

학교에서 강연을 해 주면 좋겠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토론식으로 모둠에서 표를 만든다.

전혀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성적 지향성이 무엇인지 등 이것에 대해 설명하는 하는 교육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 모르겠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야한다

사람들이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상의 모든 성적 지향성을 포용하는 열린 교육

성적 지향성이나 성 정체성에 관한 수업을 따로 만들거나 그래야한다고 생각한다.

영상 시청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성소수자 차별의 사례들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인식 등을 바꾸고 여러 정보(성소수자는 레즈, 게이, 바이만 있는 게 아닌 무성애자 그레이섹슈얼도 있다)를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강사 초청

두 달에 한 번 인권 교육 오는 것처럼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

학교에서 성적지향성 관한 외부강사 강연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

강연

- 먹고 자고 싸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는 편이다
- 행복하세요, 우리와 다를 것 없는 사람들
- 본인의 지향성에 따라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겠다는데 성소수자를 왜 그렇게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보는지 모르겠다.
- 말로만 차별을 없앤다고 한다.
-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사는 것일 뿐이다
- 배려가 필요하다
- 남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는다면 딱히 상관없다
- 나는 별로 생각이 없는데 사람들은 욕한다.
- 좋아요
- 멋지다
- 그들만의 취향이니까 이상하게 보지 않고 존중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 모르겠다.
-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 긍정
- 별 생각 없다.
- 그게 먼저 몰라요
- 몰라요
-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 상관없다.
- 별 생각이 들지 않는다.
- 성소수자들도 존중받아야 된다. 성소수자가 나쁜 것이 아니다.
- 별 생각 없다.
- 괜찮다고 생각한다.
- 누굴 좋아하든 그 사람 자유라고 생각한다.
- 좋다
- 없다
- 몰라서
- 남들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차별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나쁘지도 않고 나쁘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다들 취향도 다르고 하니 그냥 하나의 개성인 것이다.
- 이성애자와 같은 사람. 일반적인 사람.

- 그냥 사람 그 이상 이하도 아닌 사람
- 그들 또한 같은 사람이며 사랑한다는 것은 제한되면 안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닌 선택의 문제이므로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차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 잘 모르겠다.
- (만약 내 친구라면) 솔직히 겉으로는 티내진 않겠지만 성 소수자란 거 알기 전이랑 똑같이 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 예민한 주제도 많을 것 같고 내가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대화할 때 조금 불별 할 것 같다.
- 성 소수자도 개인이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그들이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안타까움
- 성소수자는 각자의 성향 차이로 당연히 이해하고 잘못 된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 자신의 자유라고 생각하기에 그냥 별 느낌 없다.
- 존중되어야 하는 사람
-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 사랑하는 마음이 다르지 않다면 똑같은 사람이고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 소수자도 개개인의 마음이므로 지지한다.
- 성 소수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취향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성 소수자는 성 소수자일 뿐 누군가가 비난할 권리가 없다.
- 성 소수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각각 개인의 성향 차이 이기 때문이다.
- 평소에 생각해 보지 않았다.
- 신경안씀
- 인권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좋다면 좋은대로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을 남 눈치안보고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정말 대단하고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고 할 것이 없을 만큼 자연스럽게 내 삶과 가까이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성소수자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성소수자들을 차별한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 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저 그 대상이 다를 뿐 따로 이렇게 성소수자라고 이름을 필요로 해야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든다.
- 모르겠다.
- 성소수자에 대해 잘 모른다.

- 아무 생각이 없다.
- 예전에도 성소수자가 존재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인터넷 등으로 인한 공유로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아직은 조금 낯선 단어 이지만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면 딱히 문제 될게 없는 것 같다.
- 차별 받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별로 생각이 없다.
- 그들의 생각에 내가 비판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 신경 쓰지 않는다.
- 존중받아 마땅하고 왜 차별하는지 잘 모르겠다.
- 별 생각이 없다. 다 똑같은 사람이고, 사랑이다. 세상에 존중받지 못 할 사랑은 없다
- 성 소수자들은 자신의 성적 지향성에 의해 차별 받아서는 안 되며, '퀴어'라 불려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 딱히 특별한 생각이 없고, 사회적으로 받는 시선 때문에 많이 두려울 것 같다.
- 난 성 소수자에 대해 어떤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연애, 사랑하면 어떤 생각을 하는가? 주로 잘 생각하지 않는다. 애초에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성 소수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느낀다. 성소수자가 편히 다닐 수 있는 날이 오는 날까지 파팅^^
-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다 똑같은 사람인데 차별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그것에 대해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 아무 생각이 없다. 사람은 느끼는 감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감정에 솔직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 매우 긍정적이다. 사랑하면 사랑하는거지 굳이 성별을 따져가며 해야 되나 싶다. 나는 그들을 매우 존중한다.
- 아무렇지 않다
-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교육현장에서의 성적 지향성에 따른 차별>에 대한 인터뷰 응답내용

| | |
|---|-----------------|
| 인터뷰어 | OOO |
| 인터뷰 날짜 | 2019.09.06. 금요일 |
| 인터뷰이 나이 | 16살(성소수자) |
| 인터뷰이 성별 | 여 |
| 인터뷰 장소 | OOO 모니터링원 집 |
| <p>1.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라고 생각하시나요? -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안 좋은 것 같다.</p> <p>2. 커밍아웃을 할 때 어땠나요? - 부모님이 기독교인이라서 부모님한테는 아직 말하지 못했고 주변 소수 친한 친구들에게만 이야기를 했다. 별 (복잡한) 생각은 없었고 당당하게 이야기 했다.</p> <p>3. 커밍아웃을 했을 때 주변인의 반응은 어땠나요? - 친구들은 모두 '그러려니' 했다.</p> <p>4. 학교에서 상담할 사람이 있나요? - 상담할 친구가 있다.</p> <p>5. 있다면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해 주었나요? - 하지만 딱히 상담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상담을 한 적은 없다.</p> <p>6. 없다면 어떻게 상담을 해 주었으면 하나요? - 응답X</p> <p>7. 학교에서 성소수자에 대해서 차별 발언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 친구들이 여자애들끼리 붙어있으면 '레즈냐' 라고 비아냥떨 때가 있다.</p> <p>8. 차별 발언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 하시나요? - 기분은 나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넘긴다.</p> | |

| | |
|---------|-----------------|
| 인터뷰어 | 000 |
| 인터뷰 날짜 | 2019.09.08. 일요일 |
| 인터뷰이 나이 | 14살(비성소수자) |
| 인터뷰이 성별 | 여 |
| 인터뷰 장소 | 자동차 안 |

1. 성적 지향성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 아니요
2. 들어보셨다면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 응답X
3.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라고 생각하시나요?
- 지금은 아직 평범하지 않은, 나와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여기는 것 같다.
4.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일단 성소수자들이 많지 않고, 성소수자들의 의견이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돼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5. 교육현장에서 성적 지향성에 따른 차별을 겪거나 목격하신 적이 있나요?
- 있다.
6. 있다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해주 실 수 있나요?
- 성소수자에 대해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상한 사람을 보듯이 쳐다보았다.
7. 주변인이 커밍아웃을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나요?
-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다.

| | |
|--|---------------|
| 인터뷰어 | 000 |
| 인터뷰 날짜 | 2019.09.06. 금 |
| 인터뷰이 나이 | 16살(비성소수자) |
| 인터뷰이 성별 | 여 |
| 인터뷰 장소 | 학교 |
| <p>1. 성적 지향성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p> <p>2. 들어보셨다면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 평소 학교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팬픽을 많이 있는 친구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p> <p>3.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라고 생각하시나요? - 저는 긍정적이지만, 사회는 많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p> <p>4.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자신과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p> <p>5. 교육현장에서 성적 지향성에 따른 차별을 겪거나 목격하신 적이 있나요? - 없습니다.</p> <p>6. 있다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해주 실 수 있나요? - 응답X</p> <p>7. 주변인이 커밍아웃을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나요? - 아무 생각이 안 들고 거부감도 없을 것 같다.</p> | |

| | |
|--|---------------|
| 인터뷰어 | 000 |
| 인터뷰 날짜 | 2019.09.06. 금 |
| 인터뷰이 나이 | 16살(비성소수자) |
| 인터뷰이 성별 | 여 |
| 인터뷰 장소 | 학교 |
| <p>1. 성적 지향성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 들어봤다.</p> <p>2. 들어보셨다면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 설문지에서 처음 들어봤다.</p> <p>3.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라고 생각하시나요? - 많이 별로라고 생각한다.</p> <p>4.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이성애자가 보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p> <p>5. 교육현장에서 성적 지향성에 따른 차별을 겪거나 목격하신 적이 있나요? - 선생님이 차별을 하시는 것을 본 적은 없지만,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너 레즈냐?' 하는 것과, 팬픽을 읽는다고 하면 "그런 더러운 걸 왜 보냐?" 하는 식의 반응을 본 적이 있다.</p> <p>6. 있다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해주 실 수 있나요? - 응답X</p> <p>7. 주변인이 커밍아웃을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나요? - 아무 생각이 없겠지만 나한테 고백을 하는 상황이라면 느낌이 조금 다를 것 같다.</p> | |

| | |
|---------|-----------------|
| 인터뷰어 | 000 |
| 인터뷰 날짜 | 2019.09.07. 금요일 |
| 인터뷰이 나이 | 13살(비성소수자) |
| 인터뷰이 성별 | 여 |
| 인터뷰 장소 | - |

1. 성적 지향성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 아니요

2. 들어보셨다면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 못 들어 봤어요.

3.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라고 생각하시나요?
- 예전보다는 많이 자유로워진 것 같다.

4.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예전에는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것을 거의 밝히지 않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당당하게 밝히는 모습을 봤기 때문.

5. 교육현장에서 성적 지향성에 따른 차별을 겪거나 목격하신 적이 있나요?
- 없다

6. 있다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해주 실 수 있나요?
- 응답X

7. 주변인이 커밍아웃을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나요?
- 이해가 잘 안되고 조금 신기하게 보겠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할 것 같다.

3. 스티커 도안과 설명문

| | |
|--|--|
| <p>마음껏 피어나는 아동의 권리</p> <p>성적 지향(性的指向, Sexual orientation) : 자신이 이끌리는 이성, 동성, 혹은 특수의 성 또는 젠더를 나타내는 말</p> <p>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제 아동 인권 센터에서 제주 지역 아동 인권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피아조입니다. 저희는 교육현장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식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p> <p>마피아조의 설문조사 결과, 교육현장에서 아동들 사이에 성적지향에 대한 여러 차별 발언("너 게이냐?", "너 레즈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저희는 어떤 성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든지 모두 같이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이러한 스티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랑'을 존중해주세요.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 현장이 되면 좋겠습니다.</p> <p>틀린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p> |  |
| <p>스티커 설명문</p> | <p>인식개선 홍보를 위한 스티커</p> |

4

사업결과 발표회

4. 사업결과 발표회

1) 목적 및 기대효과

-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아동들이 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대한민국의 아동권리 보장 실태에 대한 사회적 이해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매년 11월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을 기념하며 아동인권 보고대회를 개최하며, 2019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아동인권보고대회는 2019년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하고, 아동청소년 · 활동가 · 관계자 · 전문가 등과 함께 교육 현장에서 아동이 경험하는 다양한 차별 실태 및 이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 공유를 통해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2) 아동인권보고대회 개요

(1) 일시: 11월 27일 (수) 14:00 - 17:00 (3시간)

(2) 장소: 로얄호텔(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61) 3층 그랜드볼룸홀

(3) 참석자: 총 61명

- 아동 모니터링단: 29명 / 성인 코디네이터: 3명 / 초청자: 19명
- 토론자: 3명
- 진행팀: 7명(국제아동인권센터: 4명, 자원봉사자 3명)

(4) 주요 진행 사항

- ‘교육 현장에서의 차별’ 설문조사 결과 공유 및 토론
- 아동인권 모니터링단 활동 개요 및 사례 발표
- 아동인권 모니터링단 활동 전시 및 제작물 공유

3) 세부 진행 사항

(1) 전체 일정

| 구분 | 시간 | 소요시간 | 세부 내용 |
|-----|-------------|------|---|
| 준비 | ~12:00 | | 현장 세팅 |
| 리허설 | 12:00-12:30 | 30' | 리허설 |
| 식사 | 12:30-13:30 | 60' | 점심 식사 |
| 개회식 | 13:30-14:00 | 30' | 개회식 |
| 제1부 | 14:00-14:10 | 10' | 세션 안내(진행 순서 등) |
| | 14:10-14:30 | 20' | ‘교육 현장에서의 차별’ 설문조사 결과 공유 |
| | 14:30-14:50 | 20' | ‘교육 현장에서의 차별’ 관련 토론 이선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옹호센터 팀장 최지혜 경기도교육청 인권옹호관 홍의표 도봉초등학교 교사 |
| 휴식 | 14:50-15:00 | 10' | 휴식 |
| 제2부 | 15:00-15:10 | 10' | 활동 개요 소개 김지안 2019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 / 아이캔두잇 |
| | 15:10-16:10 | 60' | 사례발표 I, II, III 백채은 2019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 / 프리즘키퍼 황지원 2019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 / 또치와 아이들 강예은 2019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 / OO(이응이응) |
| | 16:10-16:30 | 20' | 소감 공유 홍준영 2019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 / 아.말.일 박하은 2019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단 코디네이터 |
| | 16:30-17:00 | 30' | 청중 질의 응답 윤채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과장 |

(2) 세부 발표 내용

- ‘교육 현장에서의 차별’ 설문조사 결과 공유 및 토론

| | |
|-----|--|
| 공통 | 교육 현장에서의 차별의 문제점 및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의미 |
| NGO | “아동의 개별적 정체성이 차별이 아닌 존중의 이유가 되는 사회” 전국의 아동이 스스로 주변 지인들에게 설문 조사 내용에 대해 안내하고 실시한 것에 대한 의미 |
| 교육청 | “모든 아동의 현재 행복이 더 이상 미래로 유보되지 않는 세상을 꿈꾸며” 차별 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 방법, 신고 했을 때의 절차 / 관련한 기존 권고 사항 등 안내 |
| 학교 | “권리를 위한 권리: 차별 없는 학교를 위한 인권교육” '교육현장 내 차별' 실태 관련 학교 내 효과적인 인권 교육 실시 방안에 대한 안내 |

- 아동인권 모니터링단 활동 개요 및 사례 발표

| | |
|----------|--|
| 활동 개요 | 모니터링단 사업 개요(목적/참여자/활동주제 등) 모니터링단 사업 주요 활동(코디네이터 교육 / 캠프 / 지역 모듬 활동) |
| 사례 발표 | 주제별 진행 상황 전반 소개(활동 모듬 수, 유형의 의미 등) 본인의 모듬 활동 내용 발표(회차별 진행 사항 등) 주제별 제언 그 외 모듬별 제작 자료 중 공유하고 싶은 내용(동영상, 카드 뉴스 등) |
|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소수자 관련 차별(7모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등록 이주아동(oo) *장애아동(경상도, 도담도담) *학교밖청소년(백조) *성별(아.말.일, 플러스커뮤니티) *성적지향(마피아)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p>성적으로 인한 차별(5모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적(동백꽃, 아이캔두잇, 우리결정했어요, 칠칠데, 프리즘키피)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p>학교 내에서의 차별(4모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회여부, 교훈/교가/교명(개똥벌레) *연령(아이언맨) *교칙(또치와 아이들) *교복(에버랜드) </div> |
| 활동 소감 | 모니터링단 참여 동기 모니터링 과정에서 의미있었던 점 다른 아동의 활동 소감 중 공유하고 싶은 내용 아동의 더 나은 참여를 위한 제언 |

4) 현장 사진



5

부록: '교육 현장에서의 차별' 설문지

교육 현장에서의 비차별 실현을 위한 실태 조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생활하는 교육현장(학교, 학원 등)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이유로 차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별이란? 상대방의 성별, 장애, 외모, 연령, 학업성적, 가족 상황 등 어떤 특성을 이유로 삼아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거나 구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아동인권센터는 교육현장에서의 차별실태를 알아보고 아동 인권이 존중받는 비차별적인 교육현장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의 만8-18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들이 다니게 될 교육현장의 비차별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실태조사의 모든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며, 설문지에 이름을 적지 않고 진행되므로 답변 내용은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절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평소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을 편하게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적어주신 정보 또한 실태조사 분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설문에 대한 개인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여러분의 생활공간인 교육현장이 보다 인권을 존중하는 곳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 & 국제아동인권센터

* 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시는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고, 인적사항 등은 자료에 대한 검증 및 확인을 위해 파악하는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되는 일은 절대 없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통계법」 제34조(통계 종사자의 의무)

통계조사자, 통계조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문의처: 국제아동인권센터 참여확산팀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10길 17 인왕빌딩 102호 국제아동인권센터
 전 화) 국제아동인권센터 참여확산팀 070-4908-6933 / 010-9578-3132
 이메일) cp@incrc.org

기본 인적사항

여러분의 성별, 태어난 연도/월, 지역, 학교 특성, 학년을 V표시하거나 작성해주세요.

| | | |
|------------|--|---|
| 성별 | ① 여성 ② 남성 ③ 그 외 | |
| 태어난 연도 / 월 | _____년 _____월 | |
| 거주 지역 | ①강원도 ②광주광역시 ③경기도 ④경상남도 ⑤경상북도 ⑥대구광역시 ⑦대전광역시 ⑧부산광역시 ⑨서울특별시 ⑩세종특별시 ⑪울산광역시 ⑫인천광역시 ⑬전라남도 ⑭전라북도 ⑮제주도 ⑯충청남도 ⑰충청북도 | |
| 학교 특성 | <input type="checkbox"/> 현재 재학중인 학교 |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특성화고등학교 ⑤ 대안학교 ⑥ 다니지 않는다. ⑦ 기타 () |
| | <input type="checkbox"/> 남녀공학 여부 | ① 남녀공학(혼성학교) ② 남학교 ③ 여학교 |
| 학년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 5학년 ⑥ 6학년 ⑦ 해당없음 | |

[응답방법]

※ 질문을 읽은 후 내 생각이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는 번호에 V 표시해주세요.

※ 복수응답 가능 문항은 해당하는 내용 모두에 V 표시해주세요.

※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답하여 주세요.

※ 총 문항수 : 40문항

※ 응답예시

| 구분 | 번호 | 질문 | 답변 | | | | |
|----|-----|---------------------------------|-------|---------|---------|----------|---------|
| | | | 거의 매일 | 주 1회 이상 | 월 1회 이상 | 년 1-2회 | 해당항목 없음 |
| 행복 | 1.1 | 최근 1년 간 얼마나 자주 배가 아플 정도로 웃으셨나요? | | | | | |
| | | | √ | | | | |
| | 1.2 | 최근 1년 간 내가 가장 많이 웃은 곳은 ()이다. | ① 집 | √ ② 학교 | ③ 학원 | ④ 기타 () | |

I 차별유형별 경험 영역

※ 다음은 차별유형별에 따른 경험유무 관련 문항입니다. 아래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생각해보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번호 | 질문 | 답변 (※중복응답 없음) | | | | | | |
|--------|-----|---|---------------|-----------------------|---------|-----------------------------------|----------|------------|--|
| 나이 | 1.1 | 나는 최근 1년간 나이 로 인해 차별을 경험해본 적이 있다 | 거의 매일 | 주 1회 이상 | 월 1회 이상 | 연 1~2회 | 해당 경험 없음 | 목적한 경험은 있음 | |
| | 1.2 | 나으로 인해 차별을 가장 많이 경험한 곳은 ()이다 | ① 학교 | ② 학원 | ③ 가정 | ④ 기타() | | | |
| | 1.3 | 나으로 인해 차별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이다 | ① 교사 | ② 교사의 학교 근무자보안생활 경찰 등 | | ③ 또래친구 ④ 선배 ⑤ 보호자 ⑥ 주변 성인 ⑦ 기타() | | | |
| 성별 | 2.1 | 나는 최근 1년간 성별 로 인해 차별을 경험해본 적이 있다 | 거의 매일 | 주 1회 이상 | 월 1회 이상 | 연 1~2회 | 해당 경험 없음 | 목적한 경험은 있음 | |
| | 2.2 | 성별로 인해 차별을 가장 많이 경험한 곳은 ()이다 | ① 학교 | ② 학원 | ③ 가정 | ④ 기타() | | | |
| | 2.3 | 성별로 인해 차별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이다 | ① 교사 | ② 교사의 학교 근무자보안생활 경찰 등 | | ③ 또래친구 ④ 선배 ⑤ 보호자 ⑥ 주변 성인 ⑦ 기타() | | | |
| 학업성적 | 3.1 | 나는 최근 1년간 학업성적 으로 인해 차별을 경험해본 적이 있다 | 거의 매일 | 주 1회 이상 | 월 1회 이상 | 연 1~2회 | 해당 경험 없음 | 목적한 경험은 있음 | |
| | 3.2 | 학업성적으로 인해 차별을 가장 많이 경험한 곳은 ()이다 | ① 학교 | ② 학원 | ③ 가정 | ④ 기타() | | | |
| | 3.3 | 학업성적으로 인해 차별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이다 | ① 교사 | ② 교사의 학교 근무자보안생활 경찰 등 | | ③ 또래친구 ④ 선배 ⑤ 보호자 ⑥ 주변 성인 ⑦ 기타() | | | |
| 외모 | 4.1 | 나는 최근 1년간 외모 로 인해 차별을 경험해본 적이 있다 | 거의 매일 | 주 1회 이상 | 월 1회 이상 | 연 1~2회 | 해당 경험 없음 | 목적한 경험은 있음 | |
| | 4.2 | 외모로 인해 차별을 가장 많이 경험한 곳은 ()이다 | ① 학교 | ② 학원 | ③ 가정 | ④ 기타() | | | |
| | 4.3 | 외모로 인해 차별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이다 | ① 교사 | ② 교사의 학교 근무자보안생활 경찰 등 | | ③ 또래친구 ④ 선배 ⑤ 보호자 ⑥ 주변 성인 ⑦ 기타() | | | |
| 문화(종교) | 5.1 | 나는 최근 1년간 문화적차이 로 인해 차별을 경험해본 적이 있다 | 거의 매일 | 주 1회 이상 | 월 1회 이상 | 연 1~2회 | 해당 경험 없음 | 목적한 경험은 있음 | |
| | 5.2 | 문화적차이로 인해 차별을 가장 많이 경험한 곳은 ()이다 | ① 학교 | ② 학원 | ③ 가정 | ④ 기타() | | | |
| | 5.3 | 문화적차이로 인해 차별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이다 | ① 교사 | ② 교사의 학교 근무자보안생활 경찰 등 | | ③ 또래친구 ④ 선배 ⑤ 보호자 ⑥ 주변 성인 ⑦ 기타() | | | |
| 경제여건 | 6.1 | 나는 최근 1년간 경제적수준차 로 인해 차별을 경험해본 적이 있다 | 거의 매일 | 주 1회 이상 | 월 1회 이상 | 연 1~2회 | 해당 경험 없음 | 목적한 경험은 있음 | |
| | 6.2 | 경제적수준차로 인해 차별을 가장 많이 경험한 곳은 ()이다 | ① 학교 | ② 학원 | ③ 가정 | ④ 기타() | | | |
| | 6.3 | 경제적수준차로 인해 차별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이다 | ① 교사 | ② 교사의 학교 근무자보안생활 경찰 등 | | ③ 또래친구 ④ 선배 ⑤ 보호자 ⑥ 주변 성인 ⑦ 기타() | | | |
| 성적지향 | 7.1 | 나는 최근 1년간 성취향성차 로 인해 차별을 경험해본 적이 있다 (특정 성별이성 동성 양성 등에 성적 및성적으로이해관계를 나타내는 것) | 거의 매일 | 주 1회 이상 | 월 1회 이상 | 연 1~2회 | 해당 경험 없음 | 목적한 경험은 있음 | |
| | 7.2 | 성취향성차로 인해 차별을 가장 많이 경험한 곳은 ()이다 | ① 학교 | ② 학원 | ③ 가정 | ④ 기타() | | | |
| | 7.3 | 성취향성차로 인해 차별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이다 | ① 교사 | ② 교사의 학교 근무자보안생활 경찰 등 | | ③ 또래친구 ④ 선배 ⑤ 보호자 ⑥ 주변 성인 ⑦ 기타() | | | |

II

교육현장에서의 차별

※ 다음은 학교(타 교육기관) 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차별 관련 문항입니다. 아래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지 생각해보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경험하고 있는 교육 현장의 특성 상 아래 질문에 대해 응답할 수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시해주세요.

| 번호 | 질문 | 그렇다 | 아니다 | 해당없음 |
|----|---|-----|-----|------|
| 8 | 우리 학교는 학생회 참여나 투표자격을 연령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예. 전교 회장선거 투표권 5,6학년만 부여/급식메뉴 선택권 학년별로 제한 등) | | | |
| 9 | 나는 최근 1년 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 | | |
| 10 | 우리 학교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만 우수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거나 기숙사/독서실을 차별적으로 제공(배정)한다. | | | |
| 11 | 우리 학교는 교내 대회참가 가능 여부, 학급회장 자격 가능 여부 등을 성적순으로 결정한다. | | | |
| 12 | 우리 학교는 성적에 따라 교육의 질과 수준이 다르게 제공되고 있다. (예. 차등수업, 성적별 배정교실에 따라 교사의 자격 및 수준차이 등) | | | |
| 13 | 우리 학교는 학생자치조직(학생회 등)의 대표(전교어린이회장, 학생회장 등) 선출 자격이 학교장이나 교사 추천 또는 성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 | | |
| 14 | 우리 학교는 성별에 따라 스포츠 활동 기회나 체육시간 참여 정도가 달라진다. | | | |
| 15 | 우리 학교는 연애를 한 경우 여학생과 남학생이 서로 다르게 처벌받는다. (예. 여학생 자퇴강요, 남학생 근신 또는 징계없음) | | | |
| 16 | 우리 학교는 지정된 복장, 두발 등의 규정을 어기거나 화장을 하면 '학생의 본분에 맞지 않는 행동', '불량스럽다'고 생각하고 더 엄하게 통제하는 편이다. | | | |
| 17 | 나는 최근 1년 간 교사가 특정 학생만을 대상으로 예고없이 소지품 검사 등을 하는 것을 보거나 경험한 적이 있다. | | | |

III 체계/규정으로 인한 차별

※ 학교(교육기관) 체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나 환경 제공 부족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차별 관련 문항입니다. 아래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지 생각해보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질문 | 답변 | | | | |
|------|--|---|--------------------|------------|-----|----|
| | | 그렇다 | | | | 모름 |
| | | 알려지지 유무 및 원인 | 그 외 건강상 의 이유 | 종교 및 문화 | 기타 | |
| 18 | 우리 학교는 급식 관련 설문조사에서 다음 사항을 물어보고 조사한다. | | | | | |
| 19 | 우리 학교는 학생 선수가 대회나 훈련으로 인해 수업을 빠질 경우, 보충수업을 제공한다. | | | 그렇다 | 아니다 | 모름 |
| 20 | 우리 학교에서는 다른 사람도 내 시험성적을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알려주거나 게시한다. | | | 그렇다 | 아니다 | 모름 |
| 21 | 우리 학교는 성별에 따라 정해진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예: 여학생은 반드시 치마교복을 입어야 한다 등) | | | 그렇다 | 아니다 | 모름 |
| 22 |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출석 번호를 정할 때 성별에 따라 구분을 두고 있다 (예: 남학생 1번부터 시작, 여학생 21번부터 시작 등) | | | 그렇다 | 아니다 | 모름 |
| 23 |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 또는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학업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는 조치가 있다. | | | 그렇다 | 아니다 | 모름 |
| 24 | 우리 학교는 학생이 생리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휴식이 필요할 때 설 수 있는 적절한 장소가 있다. | | | 그렇다 | 아니다 | 모름 |
| 25 | 우리 학교 내에 중요사항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결정되고 운영된다. (예: 학예회, 예술제, 축제 등의 학교주요행사, 시험시기, 학칙 제개정 등) | | | 그렇다 | 아니다 | 모름 |
| 26 | 우리 학교에는 차별을 경험한 경우 쉽게 이 문제를 상담하거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 | | 그렇다 | 아니다 | 모름 |
| 26.1 | 상담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 ① 교사 ② 학교 안/밖 관계자(학교상담사, 사회복지사, 학원 선생님 등) ③ 선/후배 ④ 또래친구 ⑤ 부모 등 보호자 ⑥ 기타() | | | | |

IV 차별에 대한 인식

※ 평소 여러분의 의식/무의식 속에 있는 차별에 대한 인식 관련 문항입니다. 문항을 보고 생각나는대로 바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없으니 솔직하게 답변해주세요.

| 번호 | 질문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아니다 | 매우 아니다 | 모름 | |
|------------|---|---|----------------|-------------|-------------|-----------------|-----------------|
| 27 | 나는 교내에서 누군기를 차별하는 것 또는 누군가가 차별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 | | | | |
| 28 | 나는 후배가 선배를 무조건 존경하고 선배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 | | | |
| 29 | 나는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 | | | | | |
| 30 | 나는 다문화라는 용어가 차별적이라고 생각한다. | | | | | | |
| 31 | 나는 어떤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 | | | | | |
| 32 | 나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 자체가 차별적이라고 생각한다. | | | | | | |
| 33 | 나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하면 왠지 문제가 있거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 | | | | | |
| 34 | 나는 친구들이나 교사 및 주변사람들이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말하는 것은 관심과 애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 | | | | | |
| 35 | 나는 카나 몸무게로 그 사람의 성격 등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둔하고 게으르다. 등) | | | | | | |
| 36 | 나는 가정형편으로 인해 수학여행 등 문화/교육 활동에 참여가 어려운 학생은 국가나 학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 | | | |
| 37 | 나는 단체 활동 중 장애 아동이 참여할 수 없는 체험학습이나 갈 수 없는 장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계획을 변경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 | | | | |
| 38 | 나는 교내에 남성, 여성 뿐 아니라 성소수자들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성중립적인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 | | | |
| 39 | 나는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같은 학교, 같은 교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통합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 | | | | |
| 40 | 다음에 제시된 특성을 지닌 경우, 학교나 학원 등에서 여러 형태의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구분 | 매우 자주 경험할 것 같다 | 자주 경험할 것 같다 | 중증 경험할 것 같다 | 거의 경험하지 않을 것 같다 | 전혀 경험하지 않을 것 같다 |
| | | 장애가 있는 친구 | | | | | |
| | | 다문화가정 친구 | | | | | |
| | | 탈북가정 친구 | | | | | |
| | | 난민가정 친구 | | | | | |
| | | 성적지향이 다른 친구 (특정 성별의 상대에게 관심을 나타내는 것) | | | | | |
| | | 외모가 뚱뚱하거나 못생긴 친구 | | | | | |
| | |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친구 | | | | | |
| | | 웃을 못 잃는 친구 | | | | | |
| 공부를 못하는 친구 | | | | | | | |

2019년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 사업

| 인쇄일 | 2019년 11월
| 발행일 | 2019년 11월
| 발행인 | 최 영 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1가)
나라기움 저동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 전 화 | 아동청소년인권과 02)2125-9647
| F A X | 02)2125-0929
| 제 작 | (주)두루행복한세상 (070) 5080-2080

ISBN 978-89-6114-721-7 93330

비매품